

# 규슈에서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존을 생각하다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994년 개소한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지난 25년간 국내외 학술심포지엄 개최, 출판,  
일본학도서관 운영 등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평화공존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는 인문학국플러스지원사업으로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라는 연구 아젠다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2017년 교육부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인문학 거점센터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인문학의 사회적 확산과 연구 아젠다의  
공유를 위해 생애주기별 인문교육프로그램 및 다양한 인문학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차세대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공동체네트워크 조성, 인문자산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맞이해 함께해준

메이오대학 학생과 교수님, 치란특공평화회관 학예사 선생님,  
릿쿄대학 스즈키 아키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 현지교육 ③+포문동 ⑦

# 규슈에서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존을 생각하다

펴 낸 날 2024년 10월 31일

펴 낸 이 서정완(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

프로젝트 참여자 고현아, 김지연, 김혜진, 박종후, 박철웅, 박태규, 신현주, 여현정, 윤상민, 윤석희,  
이영석, 이하림, 장서윤, 세스코 미유, 이케다 우메카, 미야기 안미, 히가 세리나,  
주겐지 아오이, 히가 스미레

제 작 여름 출판사

펴 낸 곳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전 화 033-248-3215~6

전 자 우 편 japan@hallym.ac.kr

※ 이 책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인문학플러스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입니다. (2017S1A6A3A01079517)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 현지교육 ③+포문동 ⑦

규슈에서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존을  
생각하다

# 보고서를 간행하면서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년에 걸쳐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인문한국플러스(Humanities Korea Plus/HK+) 기초학문분야국책사업을 <포스트제국의 문화권력과 동아시아>라는 연구 어젠다로 수행하고 있다.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인문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강원도에 인문학을 뿌리내려 인문학의 확산과 공유를 꾀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강원도, 인문학을 품다’라는 주제 아래 ‘책’을 중심으로 인문학을 가까이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문학은 사람이 존재하고 삶을 영위하는 궤적 자체이며, 인류만이 누리는 사유(思惟)의 한 페이지를 매 순간 각인하는 시간이고 연속의 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책은 인류가 걸어온 고뇌와 기쁨과 아픔과 슬픔 등 그 정신세계의 삼라만상을 담은 창고 또는 냉장고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 방향의 배경에는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존’이라는 지향점이 있으며, 이는 전쟁과 폭력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근대가 걸어온 역사를 직시하고, 이런 폭력과 파시즘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삶을 영위하고, 좌절하고, 굴복하고, 저항하고,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유를 하고 무슨 감정을 느끼며 견뎌왔는지를 살펴보자는 취지이다.

이러한 백본(backbone)을 가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에서는 2024년 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규슈 지역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는 규슈를 일주하는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 현지교육 3>을 다녀왔다. 이는 <현지교육 1>과 <현지교육 2>로 오키나와에 다녀온 이후 횡서로는 세 번째이고, 지역으로는 오키나와에 이어 규슈로 갔다. 이번 <현지교육 3>에는 일본학연구소 연구보조원이기도 한 한림대학교 대학생 10명이 참가했다.

먼저 출국 전에 사전교육을 3회 실시했는데, 주된 내용 중 하나는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조사와 이에 대한 숙지였고, 다른 하나는 주요 목적지에 대한 사전 조사였다.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조사는 우리 교육이 일제강점기에 집중한 나머지 세계사 또는 동아시아사로서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지식이 빈약하기에 역사적으로 각각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전쟁의 발단과 경위를 알자는

것이였다. 주요 목적지는 규슈에 산재하는 가미카제 특공대 평화기념관 세 곳이고, 아울러 동선상에 있는 곳으로 임진왜란과 유관한 가토 기요마사가 성주였던 구마모토성과 심수관요까지 방문하는 것이였다. 그리고

지란특공평화회관에서는 학예사 선생님을 모셔서 강연과 질의응답을 거쳐 스즈키 아키라(鈴木彰) 교수의 강연까지 준비하였다.

가미카제 관련된 주요 기념관은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大刀洗平和記念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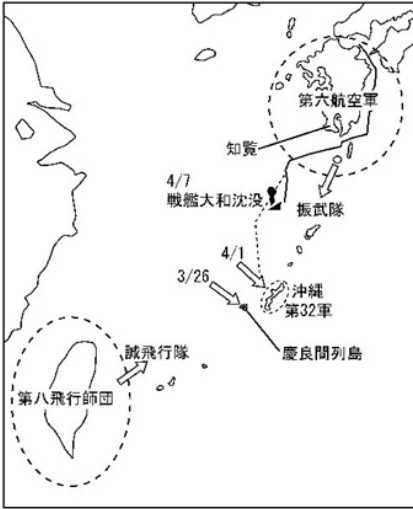
반세특공평화기념관(万世特攻平和祈念館), 지란특공평화회관(知覽特攻平和

會館)이다. 이들 중 다치아라이는 후쿠오카시와 구루메시 중간에서 구루메시

에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있으며, 반세와 지란은 가고시마에 있다. 그럼 왜

가고시마일까? 그 키워드는 바로 오키나와에 있다. 1945년 3월 26일에

미군이 오키나와 본섬 남서쪽에 있는 게라마(慶良間)제도에 상륙하자 미군의



【그림1】특공 작전 상황도  
(출전: 知覽特攻平和会館홈페이지)

오키나와 상륙, 뒤이은 규슈 상륙을 두려워한 당시 일본 군부가 본토를 사수하고 오키나와를 버릴 생각으로 오키나와에서 결전을 준비한 결과의 하나가 250kg 폭탄과 편도 연료로 적합에 돌격하는 공격, 즉 죽으러 가는, 일본어로 이른바 ‘돛코(特攻)’라는 전술이다. 【그림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규슈에서 오키나와 방면을 지키고자 제6항공군을 중심으로 진무대(振武隊) 등이

출격했고, 대만에서는 제8비행사단을 중심으로 마코토(誠)비행대 등이 복상하는 형태로 오키나와 방어를 맡았다. 전함 야마토(大和)가 오키나와로 향하다가 미군에 격침된 곳은 지란과 오키나와 중간쯤 되는 해상이다. 가미카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 특공대는 3월 말에서 4월, 5월에 집중적으로 출격했는데, 이는 원자폭탄 투하까지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이다. 그만큼 전황(戰況)이 불리했다는 것이고, 또 자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목숨을 일개 무기로 삼아서 계속 출격시킬 정도로 광기 속에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함에도 본토에 있는 일본 국민은 대본영(大本營)이 거짓으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믿어 황군이 계속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해 국가가 망국 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몰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 일본 해군의 기함인 야마토를 격침하고 오키나와를 장악한 미군은 다음 규슈 상륙 작전에 승리를 확신하면서도 미군의 피해도 상당할 것을 고려해서 일본에 항복을 타진하나 일본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인류는 원자폭탄 투하를

목적하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오키나와만 버린 것이 아니라 마쓰시로(松代) 지하에 대본영과 천황이 머무는 황거(皇居)까지 건설해서 전시하에 자국민의 생명 보호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천황과 황군의 명예를 위해서 마지막 한 명까지 결사 항전한다는 태세를 보였다. 그리고 이 마쓰시로 대본영을 만드는 과정에 조선인이 강제 동원되었고, 최근 들어 일본이 우경화가 진행되면서 마쓰시로 대본영 공사에 조선인이 동원되었다는 설명글이 삭제되거나 은폐,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밝혀 둔다.

가미카제나 오키나와 또는 일본이 연출하고 강조하는 전쟁 피해국으로서 모습 등 하나의 단면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전체 구도에서 관계성과 연쇄에 주목하면, 미군은 젊은 병사의 희생을 막으려고 일본에 항복을 요구하다가 일본이 거부하자 결국 원자폭탄을 사용했다. 반대로 일본은 오로지 천황을 옹호하는 광기로 젊은 병사를 무기로 만들어 사지로 내몰고, 결사 항전이라는 구호로 자국민 보호를 저버리다 피폭국이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전쟁, 평화, 인권, 생명, 폭력, 애국 등 다양한 문제의식과 시점이 가능하다. 가령 특공대원 1,036명 중 현재 확인된 조선인 특공대원은 15명이다. 이들 조선인 특공대원을 그저 애국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출격 전날에 부대 앞 식당 아주머니에게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고향 노래를 불러도 되겠냐며 아리랑을 부른 조선인 특공대원의 삶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패전 후 지금까지 일본은 '평화 국가'라는 기치 아래 세계를 향해서 긍정적 이미지를 발신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대일본제국이 저지른 잘못과 죄가 상쇄 또는 은폐되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의 순수한 시민이 바라는 평화와 일본 정부나 권력 집단이 내거는 어떠한 의도를 감춘 평화를 제대로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가? 그 정도로 이른바 '평화 교육'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반공 교육'이 '평화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은가? 게다가 일본은 근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국민이 역사를 모른다는 지적을 많이 접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역사를 가르치는데 왜 대부분 학생이 역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고, 심지어 무관심한가? 많은 학생이 싫어하는 것은 과연 역사 자체인가, 아니면 학교에서 배운 역사 교육의 방식인가? 문제는 역사 자체가 아니라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훈련이 아닌, 그저 주입을 강요하고 평가도구로 전락한 역사 교육이 문제인 것일까?

이처럼 우리는 많은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할 여지가 있다. 그야말로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처럼 암기할 내용을 제시하고 암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 찾아보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하나씩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 현지교육〉은 이렇듯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역사 알기를 실천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현지교육 1〉과 〈현지교육 2〉에서는 오키나와를 찾아 당시 해군사령부 참호, 히메유리평화기념자료관을 방문했다.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방문지는 켄켄화단(健堅花壇)이었다.



〔그림2〕 켄켄화단에 관한 「류큐신보(琉球新報)」  
2017년 6월 19일자

여기는 아직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일본군 수송선에서 일하다가 미군의 공격을 받고 사망한 조선인 징용자 시체가 떠내려온 곳이다. 현재 조선인을 포함한 망자의 넋을 기리는 화단(꽃밭, 이곳 시민들이 조선인의 넋을 기리려고 무궁화도 심었다)을 이곳 시민들이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부터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리고 태평양전쟁까지 모든 전쟁을 남의 영토에서 자행한 일본에 오키나와는 유일하게 자국 안에서 지상전이 벌어진 곳이다. 일본이 남의 땅에서 전쟁을 벌였기에 오키나와 주민을 제외하면 일본 국민은 전쟁의 참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1944년 가을부터 사이판에서 이륙한 B29가 군수공장을 중심으로 폭격을 시작하고, 1945년 3월부터는 도쿄 도심에 소이탄이 투하되기 시작했다. 오키나와 상륙과 때를 같이한 것인데, 이 공습과 원자폭탄 투하가 일본 본토에서 벌어진 전쟁의 참상이었기에 더욱 오키나와, 도쿄 공습, 원폭 투하가 일본이 말하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지교육3>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 반세특공평화기념관, 지란특공평화회관을 중심으로 구마모토성과 심수관요를 찾았고, 그 보고서를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알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거나 단편적 지식을 주입해서 채우지 않고 찬찬히 관심과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씩 찾아가는 행동이 뒷받침된 ‘알아가기’가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 현지교육>이다. 참가한 학생들이 재학 중에 멋진 추억을 만들었기를 바라고, 사회에 나가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즐거움’을 가끔은 생각할 여유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

2024년 10월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소장/지역인문학센터 센터장

서정완

제1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사전 조사

Chapter 01

우리가 몰랐던 일본의 태평양전쟁사

- 017 일본 제국주의적 야망, 만주사변 박철웅
- 021 일본의 중국 대륙 침략이 태평양전쟁을 불러오다, 중일전쟁 윤석희
- 024 태평양전쟁 전야, 일본의 전쟁 준비 김지연
- 027 일본의 전략적 실수와 그 교훈, 진주만 공습 박종후
- 030 대일본제국의 운명을 바꿨던 해상 전투, 미드웨이 해전 신현주
- 033 태평양전쟁의 전환을 바꾼 전환점, 과달카날 전투 여현정
- 036 첫 가미카제 작전 시작, 레이테만 해전 이영석
- 040 제국 일본의 광기, 오키나와 전투 윤상민
- 043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 두 발 김혜진
- 046 일본의 항복과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하림

Chapter 02

우리가 몰랐던 가미카제 특공대 이야기

- 051 '경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조선인 특공대원의 '특공사' 박철웅, 여현정, 윤상민, 이하림
- 064 특공사, 산화(散華)인가? 박종후, 여현정, 윤상민, 이영석
- 071 '특공위령'에 대한 인식 김지연, 박철웅, 윤석희
- 083 조선인 가미카제 특공대원 탁경현, 그와 위령비를 찾아서 김지연, 박종후, 이영석
- 094 일본에서의 평화교육과 왜곡되는 전쟁 역사 김혜진, 신현주, 이하림



## 제2부 천리길의 두 걸음, 현지교육

### Chapter 01

#### 우리가 분석한 가미카제 특공대

- 109 가미카제 특공대와 만화 <진격의 거인> 속 유사성과 딜레마 여현정
- 118 특공대의 이미지와 그 활용에 대한 고찰 신현주

### Chapter 02

#### 우리가 생각한 일본과 평화 그리고 가미카제

- 129 가미카제가 이런 식으로 소비되어도 될까 김혜진
- 138 가미카제를 쫓으며 느낀 '의아함' 박종후
- 147 특공의 위령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하여 김지연
- 155 일본에서 본 '특공(가미카제)'과 '평화' 그 이질적인 조합 속에서 윤석희
- 163 특공대원의 죽음을 기억해 줄 사람은 누구인가 이하림
- 175 평화기념관의 그늘과 평화의 길 윤상민
- 181 일본이 말하고자 하는 '평화'란 무엇일까? 박철웅
- 191 한국과 일본에서 바라본 가미카제 이영석

### Chapter 03

#### 일본인이 생각한 일본과 평화 그리고 가미카제

- 205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의 중요성 아이이
- 210 다각적인 시점에서 바라본 특공대, 그리고 평화란 무엇인가? 우메카
- 214 참가자 프로필

부록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 7

- 219 국경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고희아
- 222 메이오대학과의 만남을 통해 김지연
- 226 오늘의 기억이 오래오래 남기를 김혜진
- 230 한일 문화 교류의 씨앗 박종후
- 234 교류가 주는 메시지 박철웅
- 237 한일교류와 나 박태규
- 241 한국과 일본이 나뉘야 하는 교류란 무엇일까? 신현주
- 244 역사와 문화를 넘나드는 한일 대학생 교류의 의미 여현정
- 248 주는 것보다 받은 것이 많았던 만남 이영석
- 251 교류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미래 장서윤
- 254 한국을 다녀와서 느낀 점과 새로 배운 점 미야기 안미
- 258 교류회를 통해 느낀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과 앞으로의 관계 세소코 미유
- 261 문화 교류로 얻은 많은 계기 이케다 우메카
- 263 교류 프로그램의 진짜 의미 주겐지 아오이
- 265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고 느낀 점 히가 세리나
- 268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며 배운 점 히가 스미레



부록

본문에 실지 못했지만  
읽어줬으면 하는 이모저모

- 273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조선인 건축가 김혜진, 신현주, 윤석희
- 285 가고시마에서 만난 특강 김혜진
- 290 [좌담회] 현지교육을 다녀와서
  
- 306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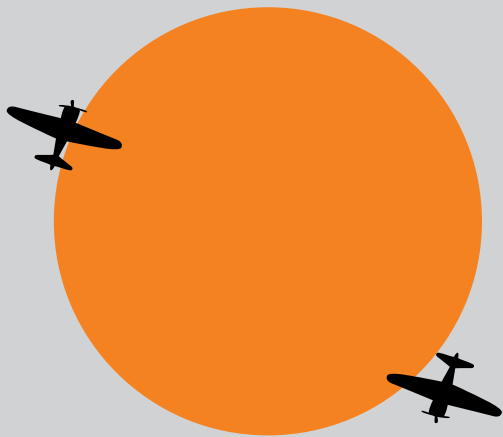




## 제1부

#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사전 조사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 현지교육 ③



Chapter  
01



# 우리가 몰랐던 일본의 태평양전쟁사

---

우리는 가미카제 특공대의 흔적을 쫓아

2023년 12월에는 용인에, 2024년 2월에는 규슈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채 역사적인 장소에 방문한다면

느낄 수 있는 것은 없겠죠. 그래서 조사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일본의 태평양전쟁사와 이를 조사하며 느낀

우리 감상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 일본 제국주의적 야망, 만주사변

---

박철웅

---

1931년 9월 18일, 일본이 류타오후 사건(柳條湖事件<sup>1)</sup>)을 일으켜 만주사변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만주를 침략해 봉천성과 만철선 일대, 길림까지 점령하며 남만주를 장악했다. 사건의 배후는 관동군 작전 주임 참모 이시와라 간지(石原莞爾<sup>2)</sup>)였다.

당시 동북군 지휘자인 장학량(張學良<sup>3</sup>)은 북경에서 티푸스를 치료 중이었다. 결국 지휘 체계가 무너진 동북군은 일본의 기습공격으로 북

- 
- 1\_ 일본제국 관동군이 중국의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 만철선을 폭파한 사건. 일본제국은 이를 중국의 소행으로 뒤집어쓰고 이를 구실로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 2\_ 이시와라 간지(石原莞爾, 1889~1949), 일제 육군 작전참모로 부임한 인물로 만주사변의 계획자이다. 최후에 남은 두 국가(이시와라는 이를 일본과 미국으로 예측한다)의 최종 전쟁으로 세계는 하나로 통합된다는 최종전쟁론을 주장했으며, 제국 일본의 슬로건인 팔굉일우(八紘一宇, 천하가 한 집안)를 위한 사회혁명 사상으로 쇼와유신론(昭和維新論)을 제안했다.
  - 3\_ 장학량(張學良, 1898~2001), 중화민국 군인이자 정치가로, 1931년 만주사변 당시 중국 동북군을 지휘한 인물이다. 1936년 서안사변(西安事變), 공산당 내전을 중지하고 일본 침략을 함께 막자는 취지로 당시 중화민국 총통인 장개석(蔣介石)을 구금한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다.

대영(北大營 4)이 빠르게 함락되었다. 이후 관동군은 금주와 치치하얼을 공격해 1932년 2월에는 하얼빈까지 점령했다.

1932년 1월 마옥산 사건(馬玉山事件 5)을 계기로 제1차 상해사변이 일어났고, 결국 일본군이 상해를 점령했다. 이 사건들은 만주국 수립을 위한 시간 벌기로, 1932년 3월 만주국이 수립되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가 만주국 황제로 세워졌다.

이에 중국 국민당 정부는 국제연맹에 제소했고, 리튼 조사단 6)이 파견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국제연맹이 만주를 관리한다는 리튼 조사단의 보고를 무시한 채 '일·만 의정서'를 체결하고 1933년 국제연맹에서 탈퇴했다.

만주국 성립 후 일본은 경제 활성화와 대공황 극복의 계기를 맞았다. 일본군의 자작극이었던 만주사변은 1937년 루거우차오 사건(蘆溝橋事件 7)과 중일전쟁으로 이어졌다. 일본 사회의 군국주의 강화와 전쟁 지지 여론 속에서 만주사변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군사 모험주의가 만연했다. 이는 결국 중일전쟁 발발과 일본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만주사변은 일제의 만몽영유론(滿蒙領有論 8) 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건이다. 당시 국제질서의 정점에 서고자 했던 일제는 서구에 대항하기 위해 자원이 풍부했던 만주와 몽골 지역을 지배하고자 하였다. 결국 만주국 성립에 성공한 일본은 동아(東亞 9)라는 개념을 내세워 동아연맹을 추진했다. 만주사변 전후로 일본은 전쟁을 옹호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으며, 확연한 침략전쟁의 길로 들어섰다. 하지만 이로써 일본은 국제질서에서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만주사변을 조사하면서 일본의 침략주의 사상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근대 일본의 다양한 사상이 이를 뒷받침했다. 이시와라 간지의 쇼

와유신론<sup>10)</sup>,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개화론<sup>11)</sup> 등의 영향을 받은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수탈하는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면모가 다분히 드러난 사건이었다.

만주사변은 일본 내각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이시와라 세력이 독단적으로 행한 사건이었기에 하극상이라는 의견이 있다. 필자는 이로써 일본 군부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판단하였고, 만주사변이 일본 몰락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만주사변의 기획자인 이시와라 간지와 그의 상관 도조 히데키<sup>12)</sup>는 서로 앙숙 관계였다. 이러한 면에

- 4\_ 중국 라오닝성(辽宁省)에 위치한 곳으로, 장학량의 군대가 주둔하던 장소였다.
- 5\_ 1932년 1월 18일 중국 상하이 마옥산에서 일본인 승려가 고향에게 습격당해 사망한 사건. 일본제국은 이를 명분으로 같은 해 1월 28일 제1차 상해사변을 일으켰다.
- 6\_ 루타오후 사건의 배후를 밝히고자 중국 국민당 정부는 국제연맹에 제소하였고, 국제연맹이 이를 받아들이면 서 파견된 조사단.
- 7\_ 중국 베이징 서부의 루거우차오(盧溝橋) 다리에서 일본군이 자작극으로 벌인 일본군 실종 사건. 일본제국은 이를 구실로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 8\_ 세계최종전쟁 및 소와공황의 극복을 위해 만주와 몽골을 지배해야 한다는 제국주의적 이론. 만몽영유론이 대두되면서 만주 침략에 영향을 미쳤다.
- 9\_ 1940년 일본제국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내걸면서 등장한 개념. '동아'는 일본, 중국, 만주를 중심으로 하여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를 아우르는 개념이다(서희정. "21세기 새로운 동양학의 정립 가능성-동양(東洋), 동방(東方), 동아(東亞) 개념분석을 통해-." 『퇴계학논집』 27권(2020): 129-164).
- 10\_ 메이지유신 30년 이후 일본이 불황기에 빠지며 새롭게 나타난 국가 개조의 풍조로, 1927년부터 제기된 사회 혁명 사상이다. 이어 1930년대에는 국가 개조 운동으로 발전한다. 쇼와유신론자들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체제를 확립하고 부패한 정치세력을 몰아내고자 하였다. 쇼와유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가올 미국과 일본의 최종전쟁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그들은 동아연맹을 주장했다(조관자. "일본 우익의 국가주의와 아시아주의 연구: 기타 잇키의 국가개조론과 이시와라 간지의 쇼와유신론." 『한림일본학』 no. 30(2017): 139-171).
- 11\_ 일본의 계몽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1875년에 집필한 저서 『문명론의 개략(文明論之概略)』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그는 미국을 가장 발전한 나라, 즉 문명(文明)의 나라로 두고, 중국, 일본 그리고 아시아 제국들을 서양의 문명을 목표로 하는 반개(半開)의 나라로, 아프리카 및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야만(野蠻)의 나라로 규정했다. 정리하면, 모든 국가는 야만-반개-문명으로 나아가는 도식을 제시하며 국가 간 우월 관계를 인정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사상의 영향으로 일본이 우월주의 및 제국주의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福澤諭吉, 『文明論之概説』).
- 12\_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1884-1948), 일제 육군이자 정치가로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내각총리대신이었다. 태평양전쟁의 주도자이며, 일본 패전 후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기소되어 사형되었다.

서 제대로 통합되지 못한 일본이 몰락의 길을 걷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만주사변은 당시 일본 사회의 광기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일본은 대공황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직접적으로 지상전을 겪지 않았던 일본 시민들 사이에 전쟁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전쟁의 결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지, 혹은 광기에 물든 당시 일본 사회가 원인이었는지 궁금하다.



---

# 일본의 중국 대륙 침략이 태평양전쟁을 불러오다, 중일전쟁

---

윤석희

---

중일전쟁은 1937년 7월 7일 발생한 루거우차오<sup>盧溝橋</sup> 사건을 발단으로 1945년 9월 2일까지 벌어진 전쟁이다. 루거우차오 사건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13일 상하이 전투, 12월 난징 전투, 난징대학살이 벌어졌으며, 1938년부터 1941년까지 전쟁은 확대되고 고착되었다. 1941년 12월 일본이 미국과 영국에 선전포고함으로써 중일전쟁은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었고, 1945년 9월 2일 연합국에 대한 일본의 항복 문서 조인식을 끝으로 중일전쟁은 종결되었다.

루거우차오 사건은 루거우차오 근처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일본군이 몇 발의 총성을 들음과 동시에 사병 한 명이 행방불명되면서 발생하였다. 사병은 뒤늦게 복귀했지만, 일본군은 이를 중국군의 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공격하였다. 일본군과 중국군 간의 전투는 중국 측의 양보로 7월 11일 정전협정을 맺고 사태를 되돌려놓았지만, 전쟁 구실

을 찾던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전쟁의 명분으로 삼고 대규모 군대를 파병하였다.

1937년 7월 말 일본은 화북 지방(베이징과 톈진) 일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9일 상하이에서 일본 해군 중위가 정찰 명목으로 홍차오 공항에 난입하려다 중국군에게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8월 13일 일본군은 전쟁을 상하이로 확대했다. 상하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중국군의 격렬한 저항에 큰 피해를 보았고, 11월 중순이 되어서야 상하이를 점령하였다.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군은 1937년 12월 중화민국의 수도인 난징을 공격하여 12월 13일 점령하였다. 중화민국의 국민당은 일본군을 피해 충칭으로 천도하였다. 일본군은 난징 점령 후 약 6주간 난징에 남은 민간인과 군인 수십만을 상대로 학살과 강간을 자행했다.

이후 중일전쟁이 장기화되고 고착되었다. 그러던 중 미국은 일본의 중국 침략에 항의하여 미일통상항해조약<sup>13)</sup>을 파기하고 전쟁물자 수출을 금지하였다. 일본은 전쟁물자를 획득하고자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으로 전장을 확대했고, 그 결과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에 참패하면서 항복하였다. 1945년 9월 2일 요코하마에 정박 중이던 미국 전함 미주리 선상에서 항복 문서가 조인되면서 태평양전쟁과 함께 중일전쟁도 끝을 맺었다.

평소 역사에 관심이 있어 유튜브 영상과 영화를 보며 태평양전쟁을 접해 그 실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중 중일전쟁 파트를 조사하면서 모르는 게 많다고 느꼈다. 중일전쟁을 글로 정리하면서 주요 사건과 내용을 파편적으로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일전쟁을 조사하면서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전쟁이 장기간 진행되었다는 점을 시작으로 새롭게 배운 것들이 있다. 하나는 일본이 루거우차오 사건과 상하이 전투(사변)를 전쟁으로 볼 수 있음에도 ‘사건’ 또는 ‘사변’으로 표기하여 국제사회에서 전쟁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이 일본의 중국 침략을 보고 전쟁물자 대일 수출 금지를 결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일전쟁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불러일으켰고, 이로써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대해 부족했던 지식을 쌓는 시간이 되었다.

---

13\_ 미일통상항해 조약: 1939년 7월 미국이 일본의 중국 침략에 항의함에 따라 조약 파기를 통고했다.

---

# 태평양전쟁 전야, 일본의 전쟁 준비

---

김지연

---

미국과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전시 동맹국 관계이기도 했으나, 20세기 초반 무렵부터 서로를 군사적인 위협 대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양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방지와 군비 축소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에 불만을 느끼는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본 육군 내에서는 미국과 전쟁이 필연적이며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말이 대두되었다. 1920년 후반 “전쟁 자원이 미국에 비해 부족한 일본이 추구해야 할 정책은 석탄과 철광이 풍부한 만주와 몽골 지역을 영유하는 것”이라는 만몽영유론(滿蒙領有論)을 주장했다. 담론이 실제로 옮겨져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일어났다. 또한 1936년 런던 해군 군축 회의에서 이탈한 일본은 대적해야 할 적으로 소련, 중국, 미국과 영국을 모두 포함하고 군비를 증강했다.

군비를 증강하던 시점인 1937년 7월 노구교사건(盧溝橋事件)이 발생하

고 증일전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고노에 수상과 아리타 외상은 각각 성명을 발표하여 “증일전쟁은 동아신질서를 목표로 하는 것이며, 이 전쟁 이전에 성립된 국제규범들로 전쟁을 규율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통상항해조약<sup>14)</sup>을 폐기하였고, 미·일 양국 간 어떤 조약도 없는 상태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독일이 두 달 만에 유럽을 제패하고 영국·프랑스·네덜란드의 지위가 약화하자 일본은 독일과 동맹을 체결하며 대외정책을 전환했다. 그리고 인도차이나에 병력을 주둔시켰다. 미국과 영국은 강하게 반발해 일본 자산 동결, 석유와 군수용 물자 수출 금지 등의 경제적 조치를 하였다. 일본은 여러 자원을 미국·영국·네덜란드의 식민지에서 수입하고 있었는데, 이는 군대를 운용하고 총력전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했다. 일본은 석유 수입이 끊어질 것과 중국·미국과 벌일 전쟁을 대비해 독일·이탈리아와 3국 동맹을 맺고 인도차이나를 점령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석유 수출 전면 금지를 단행했고, 미국·중국·영국·네덜란드는 전략물자 수출금지, 즉 ‘ABCD 포위망’을 형성했다. 미국은 석유를 재공급하는 대신 일본에 중국과 인도차이나의 점령지에서 철군할 것을 요구했다. 천연자원이 나지 않는 일본은 점령지에서 철군하여 자원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자 일본은 네 나라에 포위당했다고 국민을 선동하고, 동남아시아 침략을 서구제국주의 침탈로부터 여러 민족을 해방하는 ‘성전<sup>聖戰</sup>’으로 합리화하고자 했다. 히로히토 천황은 미국과의 전쟁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

14. 두 나라 간의 우호적인 교류·통상관계를 발전시키려고 체결되는 조약으로, 통상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중요 수단이다. 화물의 선박과 왕래 시 대우와 권리 의무, 개인의 거주나 영업의 자유 등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으며, 석유를 얻기 위해 여러 경제적 방안을 제안했으나 협상에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일본이 1941년 미국의 태평양 함대가 있는 진주만을 기습 침략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었다.

태평양전쟁이 시작되기 전 상황은 생각보다 더 많은 연도를 거슬러 올라가야 이해할 수 있고 전부 답을 수 없는 많은 관계가 얽혀 있었다. 일본은 침략과 수탈로 좀 더 넓은 곳으로 진출하면서 나라를 키워나갔다. 그리고 만몽영유론과 동아신질서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상을 펼쳤다. 군비를 늘리면서 자국과 타국을 희생시키는 말도 안 되는 길을 향해 열심히 나아갔다고 생각되기도 했다. 조사하며 새로이 느낀 점이 있다면, 결국 지배국들이 각 나라의 이익을 위해 부딪치며 생긴 전쟁이 아닌가 하는 점이였다. 태평양전쟁을 바라볼 때 시야가 자연스레 미국과 일본에 한정되어 있었고 특히 일본에 집중했다. 그렇지만 미·일을 포함해 언급된 나라만 5개가 훌쩍 넘었다.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점령과 지배, 세력의 확장 등을 위한 지배국가 간의 싸움에 많은 이가 희생당한 것만 같아 씁쓸했다. 새로운 시각이었다.

---

# 일본의 전략적 실수와 그 교훈, 진주만 공습

---

박종후

---

일본은 20세기 초에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이를 발판으로 동아시아를 지배하며 더 나아가 세계를 손에 넣으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미국은 일본에 호의적이었으나 전쟁과 침략을 일삼는 일본의 행보에 미국이 제동을 걸게 된다.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있었기에 미국은 석유와 철의 공급을 중단하며 일본의 야망을 꺾으려 했다. 이 석유 금수 조치는 미국의 원유에 의존하던 일본에 큰 차질을 빚게 했고, 일본은 전쟁을 멈추고 굴복하는 대신 미국에 대항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다. 당시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했지만, 기습공격으로 진주만은 큰 피해를 보았다. 이 공격으로 미군은 함선 10여 척이 침몰하고 비행기 180여 대가 손상되었으며, 사상자는 무려 2,400여 명에 달했으나 일

본군 사상자는 60여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일본군은 항공모함을 파괴하려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겉보기에는 성공적이었으나, 실제로는 불완전하고 불안한 승리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진주만 공습은 미국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많은 함선과 비행기가 피해를 보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수천 명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공식적으로 참전을 결정한다. 반면 일본 내에서는 진주만 공습이 대승리로 받아들여졌다. 기습공격으로 미국의 중요 함선과 비행기를 파괴하였지만, 전략적으로는 실패였다. 이는 결국 미국의 보복과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엄청난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진주만 공습은 일본의 전략적 실수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일본은 미국의 원유 금수 조치로 경제적·군사적 압박을 받았으나, 이를 외교적 해결이 아닌 군사적 공격으로 대응했다. 진주만 공습은 일본이 군사적 공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사례로, 그 결과는 후에 큰 전략적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일본은 진주만 공습에서 항공모함을 파괴하는 데 실패했고, 결국 이는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참패로 이어졌다. 미드웨이 해전 패배는 진주만 공습 이후 일본이 세운 전략이 급조된 것임을 보여주며, 이런 일본의 무모한 군사 전략은 결국 자국의 파멸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무력보다는 외교적 해결이 중요함을 다시금 일깨워준다는 사건이었다. 일본의 군국주의적 정책이 결국 자국은 물론, 주변국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초래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본의 착오와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갈등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



식하고, 무력보다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국제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 대일본제국의 운명을 바꾼 해상 전투, 미드웨이 해전

---

신현주

---

미드웨이 해전은 진주만 공습이 있고 6개월 뒤인 1942년 6월 4일에 발생했다. 미군은 진주만 공습에 대한 복수로 일본 본토에 폭격기 'B-25 미첼'로 폭격을 가했다.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천황의 땅이 외국의 기습을 당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일본 군부는 미군 전력에 위협을 느꼈다. 이에 따라 미군 항공모함을 전부 격파하여 미군 전력을 약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일본군은 전력 면에서 미군보다 우세했다.<sup>15)</sup> 그러나 어느 한 곳에 전력을 쏟지 않고 함대를 둘로 나눠서 작전을 수행했다. 항모 '준요'와 '소류'를 주축으로 하는 5함대는 알류산 열도<sup>16)</sup>를 침공하여 미군의 주의를 분산하고, 주력인 1함대와 2함대가 미드웨이를 정복하면 지원하러 온 미군 항모를 공격한다는 작전이었다. 한편 미군은 일본군의 암호를 도청하던 중 그들이 계속 말하는 'AF'라는 문자가 미드웨이를

의미한다는 것을 해독하고 이후 미드웨이 북동부에서 항모를 대기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미군 함대를 찾으려고 수색기를 띄웠으나, 한 수색기가 고장 나 30분 늦게 출발하면서 미군 함대를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미군 함대가 없다는 보고를 받은 나구모 중령은 미드웨이 공격을 위해 항공기에 있던 어뢰를 지상용 폭탄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뒤늦게 출발한 수색기로부터 미군 함대를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고 폭탄을 다시 어뢰로 교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일본 함대는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이때 미군 항모에서 출격하 공격부대가 대대적으로 몰려오고 있었다. 일본군 항모는 어수선한 상황이었기에 호위기를 충분히 출격시킬 수 없었으나, 미군의 뇌격기는 둔하고 느렸던 데다가 항모 예측이 가능했기에 제로센<sup>17)</sup>이나 대공포<sup>對空砲<sup>18)</sup></sup>로 저격하기에 무리가 없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군의 공세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미군의 급강하 폭격기인 ‘던트리스’가 등장하여 일본 항모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당시 일본 항모 갑판은 연료를 가득 채운 항공기와 교체 폭탄 및 어뢰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때문에 급강하 폭격기가 날린 폭탄 한 발로 일본 항모 1척이 침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군은 항모 4척을 잃었고 정예 조종사들이 몰살당하는 큰 피해를 보았다. 반면, 미군의 피해는 항모 1척을 잃는 것에 그쳤다.

---

15. 당시 미드웨이에 투입된 일본군 항모의 전력은 4척, 병사의 전력은 약 5,800명 이상이었다.  
 16. 북태평양에 위치한 섬들로,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러시아의 캄차카반도까지 쭉 걸쳐져 있다.  
 17. A6M, 당시 일본 해군의 주력 비행 전투기.  
 18. 공중의 표적을 공격하려고 개발된 화포.

미드웨이 해전의 영향으로 주요 전력을 잃은 일본은 계속 패전을 겪었다. 그럼에도 일본은 계속 전쟁을 이어갔고 심지어 자살특공대까지 결성하는 무모한 행위까지 저질렀다. 미드웨이 해전을 조사하면서 전쟁의 과정보다도 그 전쟁으로 죽어간 군인들이나 민간인들에게 더 눈길이 갔다. 이로써 태평양을 넘어 대동아공영권을 결성하겠다는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

# 태평양전쟁의 전황을 바꾼 전환점, 과달카날 전투

---

여현정

---

과달카날 전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 전역에서 벌어진 중요한 전투로, 1942년 8월 7일부터 1943년 2월 9일까지 과달카날섬에서 이루어졌다. 이 전투는 미군이 일본제국에 대한 첫 번째 주요 반격을 가한 사건으로, 일본이 우세했던 태평양전쟁의 전황을 바꾼 전환점 중 하나로 여겨진다. 과달카날섬은 솔로몬제도에 위치하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이는 태평양 전역의 항로를 통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미군은 일본군이 건설 중이던 툽가포인트 비행장을 점령하려고 상륙 작전을 개시했다. 1942년 8월 7일, 미 해병대가 과달카날에 상륙하여 비행장을 점령하고, 이를 헨더슨 비행장으로 명명했다. 이후 미군은 일본군의 반격을 방어하며 비행장을 유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일본군은 비행장을 탈환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했으나, 미군의 강력한 방어와 항공 지원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해전과 육상전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특히 사보섬 해전<sup>19)</sup>과 과달카날 해전<sup>20)</sup> 등 여러 해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과달카날 전투는 1943년 2월 9일 미군의 승리로 끝났다. 이 승리는 일본군의 확장을 저지하고, 미군이 태평양 전역에서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일본군은 과달카날 전투에서 많은 병력과 자원을 소모하게 되어 이후 전투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일본군은 사망자 약 1만 9,200명에 다수가 부상을 입었으며, 항공모함 1척, 전함 2척, 순양함 3척, 구축함 11척, 잠수함 6척 등 합정 총 38척과 항공기 약 683대를 잃었다. 연합군은 사망자 약 7,100명에 8,000명의 부상자를 기록했으며, 항공모함 2척, 순양함 6척, 구축함 14척, 잠수함 2척 등 총 29척의 함정과 약 615대의 항공기를 손실했다.

과달카날 전투는 미군의 전술적 승리뿐 아니라 심리적 승리이기도 했는데, 미군은 이 전투로 일본군의 무적 신화를 깨뜨리고, 태평양전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다. 또한 헨더슨 비행장은 이후 연합군의 중요한 기지가 되어 일본군의 남방 작전<sup>21)</sup>을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과달카날 전투는 연합군의 전략적 승리와 태평양전쟁의 전환점을 마련한 사건이다. 이 전투로 미군은 일본군의 진격을 저지했으며 이후 전역에서 공세의 발판을 마련했다. 과달카날 전투는 역사적으로 의미를 크며, 태평양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킨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되고 있다.

2월에 규슈에서 가미카제 특공대를 공부하면서 그들이 처했던 상

황과 배경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과달카날 전투와 가미카제 특공대를 보며 전쟁이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자원을 소모하고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지 깨달았다. 전쟁을 직접 겪어본 적은 없기에 평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전쟁의 참혹함을 알게 되었다.

전쟁은 승패를 떠나서 모두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긴 조사이자 공부였다. 과거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닌,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고 모든 이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평화의 중요성을 배웠다.

- 
- 19\_ 과달카날 전투의 초기 단계에서 벌어진 이 해전은 일본 해군이 미군과 연합군 함대를 기습하여 큰 피해를 준 사건이다. 일본군은 과달카날섬 근처의 해상 통제권을 일시적으로 확보했다.
  - 20\_ 과달카날 전투의 결정적 순간 중 하나로, 미 해군과 일본 해군 간의 대규모 교전이었다. 이 해전에서 미군은 일본군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과달카날섬의 헨더슨 비행장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일본군의 자상 작전을 무력화하고, 결국 과달카날 전투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 21\_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고, 자원을 확보하려고 수행한 군사 작전이다.

---

# 첫 가미카제 작전 시작, 레이테만 해전

---

이영석

---

레이테만 해전은 1944년 10월 23일부터 26일에 걸쳐 벌어진 해전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독립적인 4개 해전<sup>2)</sup>을 통틀어 일컫는다. 더하여, 레이테만 해전은 전장의 규모가 단지 크기만 놓고 본다면 1,000×3,000킬로미터로, 다시는 벌어지기 힘든 역사상 최대 해전이다. 하지만 최대 해전이라고 해도 레이테만 해전은 이미 정해진 승리자가 있었다. 일본이 아닌 미국이 이길 전투였다. 이유는 양국 전력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양국 전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함선, 항모를 소개한다. 정규항모는 정규 항공모함으로, 항공모함은 물 위에서 항공기를 전개하고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해상 항공 기지라고도 불린다. 경항모는 통상적인 항공모함보다 체급이 작은 항공모함을 말한다. 호위 항모는 호위 항공모함으로 태평양 전쟁에선 상륙작전 엄호로 이용되었다. 전함은 군함 중에서 강력한 공



해군 전력 \ 국가	미국	일본
정규항모	8척	1척
경항모	8척	3척
호위 항모	18척	0척
전함	12척	9척
순양함	24척	14척
(호위) 구축함	166척	35척
항공기	1,500대	300대(육상기 포함)

격력과 방어력을 갖추고 함대함 전투를 위주로 설계된 함선이다. 마지막으로 구축함은 크기가 작고 속도가 빠른 군함이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더 큰 군함을 보호한다.

전력 차이로 돌아와서 이러한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봐야 한다. 먼저 1902년 영국과 영일동맹을 체결한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을 지원했다. 그 덕분에 일본은 독일제국의 식민지였던 서태평양의 방대한 섬<sup>23)</sup>들을 점령하게 되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자 그 섬들을 위임통치령<sup>24)</sup>으로 삼아 지배력을 강화했

22. 시부안 해전, 수라 가오해협 전투, 엔 가노 곶 전투, 사마르해전.

23. 캐롤라인제도, 마리아나제도, 마셜제도.

24.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프랑스 등 승전국이 독일, 튀르키예 등 패전국들의 식민지를 나누어 위임 통치라는 명분으로 지배하게 된 영토.

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일본 사이에 건함 경쟁<sup>25)</sup>으로 과다한 군사비를 지출하였고, 이에 군비제한을 위한 국제회담을 열게 된다. 그렇게 1921년 11월부터 1922년 2월까지 열린 국제회의가 바로 워싱턴 회의<sup>26)</sup>이다. 여기서 체결된 조약 중 해군 군비 제한에 관한 5개국 조약<sup>27)</sup>으로 일본은 미군과 전력 차이가 나게 된다. 결국, 워싱턴 회의에서 미국이 정치적으로 큰 승리를 거둠으로써 미국 해군은 영국 해군과 동등한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일본은 미국과 동등한 전력의 전투 함대를 보유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워싱턴 회의에서 체결한 조약이 성립되면서 영일동맹은 폐기되었다. 그렇기에 이렇게 큰 전력 차이로 싸우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레이테만 전투로 미군은 필리핀을 회복했고, 일본 해군의 최후 전력이 소모되었다. 이에 일본은 이 전투에서 처음으로 가미카제 특공대를 등장시킨다.

레이테만 해전을 조사하면서 레이테만 해전에서 처음으로 가미카제가 등장하여 활동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일본과 미군의 해군 전력 차이가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볼 수 있어 정말 흥미로웠다. 이 전투 이후 해군의 최후 전력이 소모된 일본은 가미카제 작전을 계속 진행한다. 그렇게 자살 공격을 하게 된 사람들은 현재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이는 조선인 가미카제가 있던 한국에서도, 작전을 실행시킨 일본에서도 생각해야 할 일이다. 한국에서 그들은 일본을 위해 죽은 친일파로 인식되어 있으며, 일본에서 그들은 일본을 위해 죽은 위대한 청년들로 인식되어 있다. 그렇기에 왜 각국에서 서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옳은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

다. 따라서 가미카제가 처음 시작된 레이테만 해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 25\_ 군비 경쟁의 하나로 서로 대형 함을 경쟁적으로 건조하는 추세를 말한다.
- 26\_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주창으로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 군비 축소 회의. 태평양·극동 문제, 해군 군축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중국,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이 참가하여 중국에 관한 9개국 조약, 태평양에 관한 4개국 조약, 각국의 주력함 보유 비율을 포함한 해군 군축 조약을 체결하였다.
- 27\_ 1만 톤급 이상의 주력함 척수의 비율을 영국 5, 미국 5, 일본 3, 프랑스 1.75, 이탈리아 1.75로 정하고, 이 비율을 초과하는 주력함은 기존의 것이나, 건조 중인 것이나를 불문하고 모두 폐기한다.

---

# 제국 일본의 광기, 오키나와 전투

---

윤상민

---

오키나와<sup>沖繩</sup> 전투는 1945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80일 동안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유일하게 일본 영토에서 일어난 지상전으로, 가미카제 공격과 학도병 동원, 집단 자결, 주민 학살 등 다양한 문제가 거론되는 전투이다. 치열한 전투 끝에 미군은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군수기지를 설치하여 일본 본토로 가는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이로써 오키나와에는 오늘날까지 미군기지가 남아 있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군은 미군보다 열세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은 태평양전쟁을 끝내기 위해 일본 본토를 공격하려 했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던 오키나와를 전초기지로 삼으려 했다. 당시 미군 병력은 54만 8,000여 명에 달한 반면, 일본군은 10만여 명에 불과했다.

오키나와 전투는 1945년 3월, 미군이 오키나와 남서쪽에 위치한

게라마제도(慶良間諸島<sup>28</sup>)에 상륙하면서 전개된다. 게라마제도를 수중에 얻은 미군은 오키나와 본도에 상륙할 준비를 마쳤고, 같은 해 4월 1일, 오키나와 본도 중부에 상륙하면서 전투가 시작된다. 일본군은 미군이 상륙한 지 닷새가 지난 4월 6일, 규슈에서만 약 300대의 특공기를 출격시켜 미국 함선에 자살 공격을 감행했다. 이러한 가미카제 작전은 오키나와 전투 내내 계속되었다.<sup>29</sup>

4월 7일까지 미군은 오키나와 서해안에 위치한 비행장을 점령한 후 남쪽으로 진격했지만, 마에다(前田) 고지<sup>30</sup>와 슈가로프 고지(Sugar Loaf Hill 전투<sup>31</sup>) 등 약 한 달간 공방전이 이어졌다. 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일본군은 5월 말에 남부로 철수를 결정하였고, 사령부는 오키나와 남부에 위치한 마부니(摩文仁<sup>32</sup>)로 후퇴했다. 이후 오키나와 남단에 몰린 일본군은 미군의 공세를 버티지 못했고, 6월 23일 제32군 사령관 우시지마 미쓰루(牛島滿<sup>33</sup>)와 참모장 조 이사무(長勇<sup>34</sup>)가 할복하며 오키나와 전투는 끝나게 된다.

오키나와 전투는 일본군에게 사실상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 일본은 지구전으로 미군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주고,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

28. 일본 오키나와현 서쪽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제도.

29. 정수미, "1945년 오키나와전투에 관한 연구." 국내 석사학위논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9.

30. 1945년 4월 26일에 오키나와 남쪽에 위치한 마에다 고지에서 일어난 전투.

31. 1945년 5월 12일에 오키나와 남부 나하(那覇)시에 위치한 언덕에서 일어난 전투. 슈가로프란 현재 나하시 오모리마치의 구릉지를 말한다. 슈가로프는 미군이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원래 미국 남부지방의 빵과자라고 한다(정수미, "1945년 오키나와전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9).

32. 일본 오키나와현 남부 이토만(糸満)시에 위치한 마을.

33. 우시지마 미쓰루(牛島滿, 1887~1945). 가고시마현 출신의 일본제국 육군 군인으로, 1944년 오키나와현 제32군 사령관으로 부임하였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총지휘를 맡았다.

34. 조 이사무(長勇, 1895~1945). 후쿠오카현 출신의 일본제국 육군 군인으로, 1944년 오키나와현 제32군 참모장으로 부임하였다.

까지 시간을 끌기 위해 가미카제 작전을 실행하고 어린아이와 주민들까지 동원하여 전쟁을 이어갔다. 그로써 미군은 군인,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일본군은 미군에게 포로가 되는 것은 수치이며 그들이 고문과 강간을 일삼을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이 선전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자결하도록 강요했다. 이외에 선전 때문에 미군에 붙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극에 달해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부상과 굶주림으로 생을 마감한 이들도 적지 않다. 그 까닭에 단기간에 사망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오키나와 전투로 인한 사상자 약 20만 명 중 12만 명이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전쟁을 거듭할수록 광기에 가득찬 일본의 군국주의는 이 전투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오키나와 주민들의 아픔은 좀처럼 아물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일본 전 국토 면적의 0.6% 정도인 오키나와현에는 주일 미군 전용 시설의 70%가 집중되어 있다. 이로써 전후에도 주민들과 미군 간의 갈등이 계속되었다.

자의든 타의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국민을 보며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와 개인의 경계는 누가 만들고 우리는 그것을 어디까지 따라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국가가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없다면 국가라는 단어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 당시 일본의 주권은 천황에게 있었다. 천황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천황의 군대는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는 정신을 지키기 위해 일본은 혼돈의 도가니로 빠졌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키나와 전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 두 발

---

김혜진

---

1945년 7월 26일, 미국과 중국, 소련 등 연합국 정부 대표는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포츠담 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스키 간타로의 공식 성명에서 포츠담 공동성명은 카이로 회담<sup>35)</sup>의 재발표라고 생각하며, 일본 정부는 이 회담이 중대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 묵살하고 단호히 전쟁 완수에 매진한다고 했다. 그 결과 연합군 정부는 원자폭탄 투하를 집행하기로 한다.

8월 6일, 서태평양 티니언섬 북쪽의 비행장에서 이륙한 B-29가 히

---

35\_ 1943년 11월 22일부터 5일간 카이로에서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중화민국의 장제스(장루처) 세 연합국의 수뇌가 모여 연 회담이다. 이 회담에서 연합국은 승전하더라도 자국의 영토 확장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후 타국으로부터 약탈한 영토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출처: 카이로 선언. 위키백과. 2024년 6월 10일 접속.

[https://ko.wikipedia.org/wiki/%EC%B9%B4%EC%9D%B4%EB%A1%9C\\_%EC%84%A0%EC%96%B8](https://ko.wikipedia.org/wiki/%EC%B9%B4%EC%9D%B4%EB%A1%9C_%EC%84%A0%EC%96%B8)).

로시마로 향했다. 원폭 투하 한 시간 전, 일본의 조기 경보 레이더는 본토 남쪽 부근에서 일부 미국 비행편대가 오는 걸 발견했고, 히로시마를 포함해 많은 도시에 라디오 방송 등으로 공습경보가 울렸다. 그러나 오전 8시 무렵 히로시마 레이더 관측소에선 본토로 향하는 기체의 수가 몇 안 되는 것을 파악하고 공습경보를 해제했다. 그리고 몇 분 후인 8시 9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리틀 보이’가 투하되었다.

그 결과,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즉사한 사망자는 대략 7만 명이 었다.<sup>36)</sup> 이후 피폭 등의 원자폭탄 투하 후폭풍으로 사망한 사람은 9만 명에서 16만 6,000명에 달한다고 한다.<sup>37)</sup> 이 중에는 한국인 사망자 수만 명도 포함되어 있다.

히로시마를 폭격한 후 미국의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면 원자폭탄 투하를 계속할 것이라 경고했다. 당시 일본 안에서는 본토 결전 주장과 항복이라는 대립이 맞서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8월 9일,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 ‘팻 맨’이 투하되었다. 원래 목표지는 고쿠라였으나 당시 고쿠라 상공에는 구름이 가득해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려웠고 폭격기의 연료마저 부족하여 오키나와로 가는 길목에 있던 또 다른 후보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었다.

두 번째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사망자는 4만 명에서 7만 5,000여 명으로,<sup>38)</sup> 1945년 말까지 총 8만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39)</sup> 여기에는 10명 가까이 되는 전쟁 포로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sup>40)</sup> 두 번째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며칠 후인 8월 15일, 일본은 마침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다.

위에 적었듯 당시 피해자 중에는 조선인도 있었다. 일제강점기였으



니 어찌 보면 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본 조선인이 있다는 사실은 당연한 걸지도 모르지만, 과거의 나는 이 점을 생각하지 못했다. 조선인뿐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난 모두에게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큰 고통을 안겨준 일본 제국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껴도 되는 걸까 하며 혼란스럽기도 했다.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나쁜 행위가 아니지만 그들이 만약 전범이라면? 하지만 모두가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닌데...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끝내 정리되지 못한 생각과 답답함만이 남게 되었다.

- 
- 36\_ U.S. Department of Energy Office of History & Heritage Resources. "The Atomic Bombing of Hiroshima, August 6, 1945." The Manhattan Project: An Interactive History, June 24th, 2024. <https://www.osti.gov/opennet/manhattan-project-history/Events/1945/hiroshima.htm>
- 37\_ Alex Wellerstein. "Counting the dead at Hiroshima and Nagasaki."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August 4th, 2020. <https://thebulletin.org/2020/08/counting-the-dead-at-hiroshima-and-nagasaki/>
- 38\_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Britannica, accessed June 10th, 2024. <https://www.britannica.com/event/atomic-bombings-of-Hiroshima-and-Nagasaki>
- 39\_ Alex Wellerstein. op. cit.
- 40\_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Wikipedia, accessed June 10th, 2024. [https://en.wikipedia.org/wiki/Atomic\\_bombings\\_of\\_Hiroshima\\_and\\_Nagasaki](https://en.wikipedia.org/wiki/Atomic_bombings_of_Hiroshima_and_Nagasaki)

---

# 일본의 항복과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

이하림

---

1945년 7월 26일, 연합국 수뇌들이 모여 전일본 군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 선언을 발표하였다.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항복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일본군의 완전한 괴멸과 일본 본토의 완전한 파괴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회답은 ‘묵살’로 전달되었다. 그 결과 열흘 후인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으며, 이어서 8월 9일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9일 밤, 포츠담 선언 수락 여부를 놓고 개최된 어전회의<sup>41)</sup>에서 히로히토 천황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항전을 원하던 군부도 천황의 결정엔 거스를 수 없었기에 종전 조서 작성은 착착 진행되었고, 8월 14일 오후 11시경 천황과 각료 전원의 서명이 완료되었다. 같은 시간, 외무성은 스위스와 스웨덴 주재 공사를 통하여 포츠담 선언 수락을 정식으로 통고한다. ‘종전’ 결정을 신

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에서 이들의 충격과 동요를 최소화하려면 천황의 권위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8월 15일 오전 7시 20분경부터 일본방송협회(NHK)에서는 정오부터 중대한 방송이 있다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발신하였으며, 정오를 기해 천황이 직접 낭독하는 종전조서 방송을 내보내 포츠담 선언의 수용을 공포한다. 9월 2일 도쿄만 해상에 정박 중이던 미 해군함 미주리 선상에서 일본제국의 전권을 위임받은 시게미쓰 마모루<sup>重光葵</sup> 외무대신<sup>42)</sup>이 연합국이 내민 항복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완전한 종결을 맞는다.

우리나라는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빼앗긴 주권을 일본으로부터 되찾은 것을 기념하고자 매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명하고 국경일로 지정했다. 그런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매년 8월 15일을 기념하고 있다. 바로 ‘종전기념일’이다. 일본 정부는 1952년 각료회의에서 이날을 종전기념일로 지정하고, 1982년 각의 결정으로 ‘전몰자를 추도하고 평화를 기념하는 날’로 명칭을 변경했다. 2023년 8월 15일, 일본의 경제안보상을 비롯해 국회의원 70여명은 종전기념일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에 대거 참배하였으며, 그중 자민당의 정무조사위원장인 하기우다 고이치<sup>萩生田光一</sup>는 “지난 세계대전에서 고귀한 희생을 한 선인들의 영령에 애도한다”라는 뜻을 밝혔다.<sup>43)</sup>

41\_ 메이지 시대부터 태평양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개최된 회의로, 천황과 원로, 주요 각료, 군 수뇌부들이 모여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42\_ 한국의 외교부 장관에 해당한다.

43\_ “自民 萩生田政調会長らが「終戦の日」に靖国神社を参拝.” NHK NEWSWEB, 2023. 8. 15.  
<https://www3.nhk.or.jp/news/html/20230815/k10014163401000.html>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엔 참여하지 않는 대신 대리인을 통해 공물을 바쳤으며, 도쿄 무도관에서 개최된 전몰자 추도식에서 “일본의 평화와 번영은 전몰자들의 고귀한 생명과 고난의 역사 위에 세워진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라는 연설을 진행했다.

광복절과 종전기념일, 두 기념일 모두 같은 날 한 시에 일어난 사건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다르다. 특히, 극동국제군사재판<sup>44)</sup>에서 전쟁을 기획, 주도한 죄로 기소된 A급 전범 14명을 비롯하여 통상적인 전쟁 범죄나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B, C급 전범 1천여 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행위가 곧 평화를 기념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는 건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면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상당히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왜 이들의 평화엔 전쟁을 통해 동아시아를 집어삼키려던 제국 일본의 만행에 대한 반성이 보이지 않을까?

제국 일본의 수탈과 점령 행위 그리고 가미카제 특공대원의 몸체 공격과 같은 수많은 국민의 희생이 모두 천황 폐하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자행되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 천황은 종전 조서에서 “제국의 자존과 동아시아의 안정을 기원했기 때문”이라고 낭독하며 본인들의 선전포고를 대의를 위한 일로 정당화한다. 또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는 이유에 대해선 “타국의 주권을 배척하고 영토를 침범하는 따위는 애초에 짐이 뜻한 바가 아니었다”, “아직도 교전을 계속하고자 함은 결국 우리 민족의 멸망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인류의 문명조차 파괴할 것”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천황의 어진 결단 덕에 더

큰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전쟁을 그만두는 것이지 일본이 결코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모습으로도 보인다. 종전 조서의 낭독을 기점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가해 행위는 원자폭탄으로 인한 일본의 피해 기억으로 반전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더불어, 침략 전쟁의 지도자인 히로히토 천황은 자국 백성들의 무의미한 희생을 막기 위해 전쟁을 멈춘 평화주의자의 이미지로 탈바꿈한다. 지금의 일본 정부가 말하는 평화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지칭한다고 느껴지는 건 바로 이 종전 조서의 내용에 성찰과 반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

44.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동아시아의 전쟁 범죄인을 1946년 5월 3일부터 1948년 11월 12일까지 약 2년 반에 걸쳐 심판한 재판이다.

Chapter  
02



## 우리가 몰랐던 가미카제 특공대 이야기

---

우리는 가미카제 특공대를 조사하면서 다양한 논문과 역사 비평 등의 자료를 읽게 되었는데요. 이때 인상 깊었던 자료를 선택해 팀별로 해당 자료를 읽고 조사한 점 혹은 느낀 점을 작성하며 가미카제 특공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가미카제 특공대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

# ‘경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조선인 특공대원의 ‘특공사’

---

박철웅, 여현정, 윤상민, 이하림

---

조선인 특공대원의 죽음은

과연 대일본제국을 위한 것일까?

역사를 지키는 동포여, 각자가 특공대가 되어 이 역사를 영원히 지켜주세요. 그곳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버님, 어머님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부모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용감히 전쟁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생들이여, 형으로서 오빠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다오. 강하고 건강하게 자라다오. 안녕.<sup>45)</sup>

---

45\_ NHKスペシャル: 遺された声~録音盤が語る太平洋戦争. NHK, 2004-08-14(テレビ番組).

태평양전쟁 당시 숨진 조선인 특공대원 중 가장 나이가 어렸던 박동훈은 1945년 2월, 마지막 출격을 앞두고 특공대 출격에 대한 결의와 가족에게 남기는 마지막 음성을 녹음한다. 당시 그의 나이는 만으로 17세였다. 만주 신경滿洲新京에서 녹취된 음성은 박동훈이 숨진 지 두 달 반이 지난 1945년 6월 12일 경성 중앙방송국을 통해 한반도에 올려 퍼졌다.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의 저자 길윤형 씨는 박동훈의 막내 여동생 박혜옥 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한다. 박동훈은 “왜 특공에 지원했느냐”라고 물어보는 아버지의 말에 “나는 장남이라 못 간다”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당시 박동훈의 집안은 사정이 좋지 못한 편이었다. 박동훈의 특공대 지원 과정에서 부대의 상관들은 “일본이 가족들을 다 책임져주겠다”라는 말로 그를 안심시켰고, 책임감이 강했던 그는 그 말에 설득된 게 아닐까 한다. 박혜옥 씨는 박동훈이 마지막으로 부친에게 “동생들은 절대 군에 보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며 목 놓아 울던 모습을 회상했다.

*○월 ○일은 그리운 졸업이다. 전우들은 모두 그리운 집으로 돌아갔다. 남은 이는 나 한 명. 나는 쓸쓸할까? 아니다. 나에게서 크나큰 어머니가 있다. 천황폐하의 적자다. 나는 황국신민으로 너무나 행복하게 지나왔다. (중략) 경성에 있는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나 혼자 조용히 생각할 수 있어서 나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황민인 것을 알고 기뻐다.<sup>46)</sup>*

오키나와 전투의 마지막 조선인 특공대원 한정실은 소년비행병학



교를 졸업하던 1943년 9월, 어머니가 계시는 경성에 돌아가지 못하는 외로움에 위와 같은 일기를 쓴다. 한정실에게 천황이 어떻게 ‘크나큰 어머니’가 되어 실제로 피가 이어진 어머니를 대체할 수 있었으며, 그에게 황국신민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기에 오직 적을 물리칠 정열에 불타며 용감히 산화<sup>散華</sup>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남는다.

박동훈과 한정실 모두 1945년에 전장으로 출격해 적함에 몸체 공격을 감행하여 죽음을 맞이한다. 과연 우리가 이들의 죽음을 ‘대일본 제국을 위한 죽음’으로 여겨도 될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우리는 조선인이 일본군 특공대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이들이 특공대원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조선인 특공대원에게 ‘특공사<sup>特攻死</sup>’가 어떤 의미였을지 파악해 보려 한다. 이를 토대로, 조선과 일본의 흑백 개념 사이에 존재하는 회색의 지대, 즉 ‘경계’의 관점에서 조선인 특공대원의 ‘특공사’를 바라보고자 한다.

## 조선인 특공대원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

### 1. 특공대의 발생

신풍특별공격대<sup>神風特別攻撃隊</sup>(이하 가미카제)는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진행된 태평양전쟁을 배경으로 주로 활동했다. 태평양전쟁은 1941년 12월 8일(하와이 시간 12월 7일) 일본의 미국 태평양 함대 기지인 진주만 기습으로 발발하였다. 같은 날 일본군은 말레이반도에 상륙하여 당시 미국의 식민지인 필리핀과 괌을 공습해 점령에 성공하는 등

---

46\_ 「매일신보」, 1945년 6월 10일 2면 발췌.

유리한 전황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6개월 후인 1942년 6월, 중부 태평양의 미드웨이 환초에서 발발한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이 대패하며 전황은 뒤집힌다. 1943년 일본의大本營(47)은 제국 일본이 본토 방위 및 전쟁 계속을 위하여 절대로 확보해야 하는 구역인 ‘절대국방권(絶対國防圈)’을 설정하지만, 1944년 절대국방권의 한 축이던 마리아나제도의 사이판을 내주며 일본은 최후의 결전인 ‘쇼고작전(捷号作戰)’을 준비하게 된다.

쇼고작전은 사전에 적의 침공 경로를 예상한 권역을 설정하고, 적이 결전 방면으로 공격해 들어오면 육해공 전력을 극도로 집중해서 반드시 격퇴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적의 침공 경로에 따라 필리핀 방면은 쇼이치고(捷一号), 대만과 오키나와를 포함한 난세이제도(南西諸島)는 쇼니고(捷二号), 일본 본토는 쇼산고(捷三号), 홋카이도(北海道) 방면은 쇼유키고(捷四号)로 구분하였다. 일본은 미군의 다음 목표가 필리핀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1944년 10월 18일 쇼이치고 작전을 발동한다.

쇼이치고 작전의 발동으로 1944년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레이테만 해전이 발발한다. 이 해전의 목적은 일본 본토와 동남아시아 사이의 자원 공급선을 지키기 위해 그 연결 지점인 필리핀을 방어하는 것이었는데, 필리핀을 지키지 못하면 동남아시아의 석유와 다른 자원을 일본 본토로 나르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 해군의 주력이던 ‘구리다 함대(栗田艦隊)’는 아군 항공 전력의 지원을 믿고 레이테만으로 돌입하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레이테만 해전 직전에 진행된 1944년 10월 10일 오키나와 공습과 10월 12~14일 대만 근해 공중전에서 대부분의 항공 전력이 상실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다. 일본의 마지막 희망인 구리다 함대가 레이테만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적 항공모함에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하고 말았다.

구리다 함대가 레이테만에 돌입할 수 있게 하려면 적 항공모함을 무력화해야만 하는데, 당시 일본군에게는 적 항공모함을 물리칠 힘이 없었다. 이에 레이테 해전 직전 필리핀 마닐라에 부임한 제1항공함대 사령관 오니시 다키지로(大西瀧治郎) 중장은 일본 해군의 항공모함 탑재기 제로센<sup>48)</sup>에 폭탄 250kg을 실은 뒤, 적 항공모함의 갑판에 몸체 공격을 감행하는 특공작전을 고안하였고, 이에 가미카제를 편성했다.

세키 유키오(關行男) 대위를 필두로 한 다섯 명으로 구성된 시키시마 대(敷島隊)는 불과 비행기 다섯 대로 항공모함 두 대에 큰 피해, 경순양함 한 대 침몰이라는 믿기 힘든 전과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 해군의 자존심인 구리다 함대 전체가 거둔 전과보다 뛰어난 성과였다. 이로써 당초 미군의 항공모함 전력을 일시적으로 무력화하고자 도입한 특공이 오히려 전세 역전을 위한 필승 전술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특공기를 통한 특공은 오키나와전에서 본격적으로 정착되었는데, 오키나와 작전 시(1945.3.2~8.16) 출격한 특공기의 총수는 해군특공출격기 1,637기, 육군특공출격기 931기로 총 2,568에 달한다.<sup>49)</sup>

인간을 전쟁의 소모품으로 인식하는 특공 정신이 일본 군부에 만연해 있었으며, 이러한 생명 경시 풍조가 일본 군부에 큰 패악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

47\_ 육군과 해군을 지배하여 두는 전시 천황 직속의 최고 통수 기관으로, 천황의 명령을 대본영(해군부) 명령으로 발하는 최고사령부로 기능하는 기관이었다.

48\_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일본의 함상 전투기로, '영식함상전투기'로 불리기도 한다.

49\_ 金子敏夫. 神風特攻の記録: 戦史の空白を埋める體当たり攻撃の眞実. 光人社. 2005, p. 226.

## 2. 비행기 조종사 충원 제도

그렇다면 이들 비행기 조종사와 특공대원들은 어떻게 충원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조선인 청년들은 어떻게 비행기 조종사가 될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해군의 특공대에서 조선인이 전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sup>50)</sup> 일본 육군 비행기 조종사 충원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당시 조선의 시대 상황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조선총독부는 전쟁에 활용할 수 있는 병력을 늘리려고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인의 병력동원을 검토하기 시작한다. 1936년 제8대 조선 총독으로 취임한 미나미 지로<sup>南次郎</sup>는 조선에 징병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조선인을 완전히 황국신민화하기 위해 내선일체를 추진한다.<sup>51)</sup> 일본은 조선인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1937년부터 황국신민서사<sup>皇國臣民誓詞</sup>를 학교나 직장에서 제창하게 하였다. 1938년에는 조선교육령을 개정해 소학교에서 조선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1940년 2월부터는 조선인에게 일본식 성을 강제하는 창씨개명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정책은 조선인들에게 충을 쥐게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감수하고라도 병력을 충원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 1942년 4월 일본은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 시행을 결정했고 1944년 4월 마침내 조선인 징병제가 실시되었다.

### 1) 육군소년비행병<sup>陸軍少年飛行兵</sup>(이하 소비)

일본 육군에 항공작전을 전담하는 항공부를 설립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19년이다. 이후 항공 전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일본은 1925년 육군 항공본부를 설치해 항공병과를 육군 내 독

립 병과로 만들어 그 위상을 강화했다. 강한 항공 전력을 키우려면 조종사, 통신사, 정비사 등 유능한 항공 요원을 양성해야 했다. 이를 위해 일본 육군은 1933년 4월 육군소년비행병 제도를 신설했다. 모집 대상은 만 15~17세 사이의 청소년으로 이들은 1년의 기초교육과 조종, 통신, 정비로 나뉘는 상급교육 2년으로 이루어지는 총 3년의 전문 교육을 마친 뒤 각 분야의 하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었다.

1943년에는 항공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수상 도조 히데키의 뜻으로 이제껏 3년이었던 교육과정이 2년으로 단축되는 단기속성 제도가 만들어졌다.<sup>52)</sup> 이 시기 총독부는 항공 전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목표하에 소년들의 하늘에 대한 '동경'을 적극적으로 선동하였다.<sup>53)</sup> 초등교육과정에 모형비행기 제작을, 중등교육과정에는 글라이더 훈련을 정규 과목으로 설치하는 등 총독부는 항공정책을 시행해 '항공열'을 부추기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대에 살던 조선인 소년들에게 비행기는 성공을 위한 촉매제였을 것이다. 집안 형편상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어려웠던 유망한 소년들도 소년비행학교에 진학하면 학비가 무료인 데다 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매력적인 조건에 이끌렸을 것이다. 실제로 1942년부터 조선인 지원자와 실제 입교자가 현저히 증가했지만<sup>54)</sup> 이들은 졸업하

50\_ 배영미, "조선인 특공대원의 실태와 한일 양국의 인식: 그 현황과 전망에 대해," 한국학연구 no. 28(2012): 5.

51\_ 宮田節子,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 未來社, 1985.

52\_ 少飛會歷史編纂委員會, 陸軍少年飛行兵史, 少飛會, 1983.

53\_ 배영미, "조선인 특공대원의 실태와 한일 양국의 인식: 그 현황과 전망에 대해," 한국학연구 no. 28(2012): 8.

54\_ 배영미, 野木香里, "日帝末期 朝鮮人 特攻隊員의 志願과 '特攻死'," 韓日民族問題研究 no. 13(2007): 300.

고 항공부대에 배속된 이후 사실상 특공대원으로 ‘지원’하기를 거부할 수 없는 환경에 묶이게 되었다.

## 2) 육군특별조종견습사관<sup>特別操縦見習士官</sup>

앞서 언급한 1943년 도조 히데키의 각의결정<sup>閣議決定</sup>에 따라 급히 만들어진 제도인 육군특별조종견습사관(이하 특조)은 조종사를 더 많이 양성하기 위해 신체 건강한 엘리트인 대학 또는 전문학교 졸업(예정)자들에게 1년 반 정도 조종 기술을 가르쳐 전쟁터에 내보내는 일종의 조종사 속성 양성 프로그램이었다. 이들은 교련 교육을 꾸준히 받았기 때문에 기초 군사훈련을 할 필요가 없었고, 고난도 비행 훈련을 쉽게 이수해낼 수 있었다. 조선에서 제1회 모집 때 신체검사에 합격한 총 77명 중 7명이 조선인이었지만 당시 응모는 순수한 지원이 아니었다. 학교에 방문한 조선군 사령부의 참모는 전교생을 강당에 모아놓고 “이 중에 대일본제국의 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는 손을 들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손을 들지 않은 모든 학생에게 지원 용지를 나눠 주었다고 한다. 1942~1944년 육군에서는 각각 세 차례에 걸쳐 특조 3,000여 명을 확보해 약 6개월밖에 안 되는 훈련 끝에 실전에 배치했는데, 특공작전으로 사망한 육·해군 사관은 대부분 이 시기에 동원된 학도병이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직업군인의 소모를 막는 ‘일회용 인간폭탄’으로 사용되고 만 것이다.<sup>55)</sup>

위 조선인 특공대원의 명단<sup>56)</sup>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이 10대

55\_ 大貫恵美子. 学徒兵の精神誌—「与えられた死」と「生」の探求. 岩波書店, 2006.

56\_ 김윤형(2012)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1〉 전쟁 중 사망한 조선인 특공대원 명단

본명	창씨명	생년월일	전사 날짜	출신	부대 이름	전사지
인재웅	마쓰이 히데오 松井秀雄	1924. 2. 29	1944. 11. 29	소비 13기	제4항공군 야스쿠니대	필리핀 레이테만
박동훈	오가와 마사야키 大河正明	1928. 4. 21	1945. 3. 26	소비 15기	제8비행사단 마코토 제41비행대	오키나와 본섬 해역
최정근	다카야마 노보루 高山昇	1921. 1. 11	1945. 4. 2	육사 56기	제5항공군 제66전대	오키나와 주변 해상
김상필	유키 쇼하쓰 結城尙弼	1920. 3. 6	1945. 4. 3	특조 1기	제8항공군 마코토 제32비행대	오키나와 주변 해상
불명	가와히가시 시게루 河東繁	-	1945. 4. 16	소비 14기	제6항공군 제106신부대	오키나와 주변 해상
이윤범	히라키 요시노리 平木義範	-	1945. 4. 22	항양 5기	제6항공군 제80신부대	오키나와 주변 해상
불명	기무라 세이세키 野山在旭	-	1945. 4. 28	소비 15기	제6항공군 제77신부대	오키나와 주변 해상
김광영	가네다 미쓰나가 金田光永	1930. 10. 12	1945. 5. 28	소비 14기	제6항공군 제431신부대	오키나와 주변 해상
노용우	가와타 세이지 河田清治	1922. 12. 23	1945. 5. 29	특조 1기	비행 제5전대	-
불명	이시바시 시로 石橋志郎	1918. 2. 8	1945. 5. 29	특조 1기	제8비행단 비행제20전대	오키나와 주변 해역
한정실	기요하라 데이지쓰 清原鼎貴	1925. 4. 12	1945. 6. 6	소비 15기	제6항공군 제113신부대	오키나와 주변 해역
불명	곤도 하쿠에이 近藤白英	-	1944. 11. 15	항양 10기	제4항공군 반대대	출격 도중 추락사
불명	노야마 사이코쿠 野山在旭	1924	1945. 1. 30	특조 1기	비행 제15전대	불명
임장수	하야시 나가모리 林長守	1924. 9. 30	1944. 12. 7	소비 12기	제4항공군 긴노우대	상동
불명	이와모토 미츠모리 岩本光守	1925. 3. 25	1945. 3. 26	항양 12기	제8비행사단 독립제23중대	나하 서쪽 해상
탁경현	미쓰야마 후미히로 光山文博	1920. 11. 5	1945. 5. 11	특조 1기	제6항공군 제77신부대	오키나와 주변 해상
윤제문	도쿄쿠 가즈후미 東局一文	1927. 3. 10	1945. 5. 12	소비 15기	제8비행단 마코토 120비행대	오키나와 주변 해상
이헌재	히로오카 겐사이 広岡賢載	1926. 8. 4	1945. 5. 27	소비 14기	제6항공군 제431신부대	오키나와 주변 해상
불명	아마모토 다쓰오 山本辰雄	1926. 7. 1	1945. 8. 8	소비 14기	제62비행전대	사형

중후반~20대 초반의 청년과 학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소비 출신이 10명으로, 이들은 1920년대 초·중반에 태어나 출생과 동시에 일제의 황민화 교육을 받고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들어가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복무했다.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교육은 당시 청년들의 자아정체성과 민족의식을 파괴하고 그들을 전쟁과 죽음의 길로 내모는 원흉이었다.<sup>57)</sup> 오늘날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선망하듯이, 일제의 만들어진 프로파간다 아래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육군 조종사가 되어 일본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선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어쩌면 이들은 단지 본인이 마주한 현실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자아정체성이 온전히 확립될 새 없이 황국신민으로서 사상을 주입받아 제국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친일파’라는 돌을 던지는 게 과연 온당할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욱 구체화하려면 조선인 특공대원에게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순국’과 ‘의미 없는 죽음’, ‘구국영웅’과 ‘친일파’

당시 군부가 규정하는 ‘특공사’는 적의 항공기나 군함에 자신의 항공기를 부딪쳐 자폭하는 ‘몸체 공격’에 따른 전사를 의미한다. 일본 남부 가고시마현에 위치한 지란특공평화회관(知覽特攻平和會館)에 기록된 ‘특공사’한 조선인 특공대원 수는 16명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특공사에 한정된 죽음만 가리키며, 다른 이유로 전사하거나 혹은 생존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반세 제66비행전대(萬世飛行第66戰隊) 소속 가네야마 쇼키치(金山常吉) 특공대원은 특공 출격이 아닌 모기지(母基地)로 이동 중



적기의 공격을 받아 전사하여<sup>58)</sup> 특공사로 인정되지 못했다. 또한 원인 미상의 비행기 화재에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방화범으로 몰려 총살당한 아마모토 다쓰오<sup>山本辰雄</sup> 특공대원의 죽음<sup>59)</sup>은 더욱 인정받을 여지가 없다.

‘의미 없는 죽음’을 맞이한 두 특공대원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특공사에 성공한’ 특공대원의 죽음은 ‘순국<sup>殉國</sup>’으로 여겨졌다. 결전을 눈앞에 둔 조선 총독부에 조선인 특공대원의 전사는 놓칠 수 없는 선전 도구였다.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서는 전사한 조선인 특공대원을 군신으로 추앙해 그들의 죽음을 조선인 징병에 적극 활용하려 하였다.<sup>60)</sup>

*위대한 아들을 낳아 기른 가미와시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대면. 전  
번에는 개성 출신 마쓰이 소위의 생가를 방문하고 간곡히 위문 격  
려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방금 가렬을 극한 오키나와 결전장으  
로 달려 적의 함선을 핑침시키고 스스로 한 몸을 나라에 바쳐 유구  
한 대의에 산 함남도 흥남부 서호진이 난 가미와시 오가와 오장의  
생가를 방문한 것이다. (중략) 고 오장의 영전에 경건한 묵도를 드린  
다음 유가족을 간곡히 위문 격려한 다음 함흥으로 돌아와, (후략)*<sup>61)</sup>

57\_ 박균섭. "조선의 청년학도와 가미카제특공대-구로다 후쿠미의 탁경현을 기념하는 방식-." 일본근대학연구 57(2017): 228.

58\_ 万世特攻慰靈碑奉贊會. よろずよに語り継がん—万世陸軍航空基地概要. 2008.

59\_ 権学俊. 「植民地朝鮮における飛行機表象と朝鮮総督府の航空政策(下)」. 『機表象と朝鮮総督府』 58(2022): 127.

60\_ 이형식. "태평양전쟁시기 제국일본의 군신만들기-『매일신보』의 조선인특공대(神鷲) 보도를 중심으로-." 日本學研究 37(2012): 204.

61\_ 『매일신보』 1945년 5월 9일 2면 발췌.

위 기사는 박동훈(일본명 오가와 마사아키<sup>大河正明</sup>)의 전사에 대한 총독 부인의 위문을 보도한 내용이다. 박동훈의 위문 및 일본식으로 치러진 장례식은 대일본부인회<sup>大日本婦人會</sup> 조선본부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장례식이 끝난 이후 박동훈의 유족들은 본격적으로 조선총독부의 프로파간다로 동원되기도 하였다.

박동훈이 숨을 거둔 지 넉 달 만에 전쟁이 끝나 광복을 맞이하지만, 유족들의 지위는 ‘반도의 영웅’을 길러낸 애국자 가족에서 ‘매국노 집안’으로 전락하고 만다. 한반도 북측을 소련이 점령하자 박동훈의 아버지는 “훌륭한 아들을 먼저 보냈다. 아들이 비겁하게 행동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해 죽었다. 지금 도망가면 친일파였기 때문에 도망갔다는 말을 듣는다. 자식들의 기분도 우리의 기분도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피난길에 오르는 것을 거부하지만, 박동훈의 가족은 6·25전쟁이 일어나자 어쩔 수 없이 남하하게 된다. 박동훈의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으로 격하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유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조선인 특공대원의 역사를 조사해 보면서 일제의 프로파간다에 동원된 박동훈과 그의 유족들을 단순히 ‘가미카제’라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선인 특공대원 박동훈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슴 한구석을 답답하게 했다. 그들을 야스쿠니 신사에서 기리는 전범들과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것이 옳은지, 당시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었을지 등 끊임없는 의문이 들었다.

그들은 가족, 연인,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자 출격했다. 일제는 황민화 교육으로 사람들을 세뇌했고, “일본이 가족들을 다 책임져주겠다”라는 말로 특공대에 지원하도록 구슬렸다. 게다가 특공사로서 군신

이 된다는 점은 그 영광이 남은 가족들의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인 특공대원들에게 특공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다. 그러나 광복 후 그들의 가족은 매국노로 전락하게 되어 가족을 지키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조선인 특공대원의 특공사를 이해하려면 가미카제의 역사적 맥락을 주도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 특공사, 산화(散華)인가?

: 왜 일본은 특공대원의 죽음을  
산화로 인식하는가?

---

박종후, 여현정, 윤상민, 이영석

---

## 산화란 무엇을 뜻하는가?

‘산화(散華).’ 이 단어는 ‘흩어질 산, 꽃 화’로, 주로 일본에서 전쟁이나 전투에서 명예롭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다. 불교에서는 꽃이 흩어져 떨어지는 걸 의미하며, 아름다운 희생이나 숭고한 죽음을 상징한다. 일본은 전쟁 중 희생된 군인들을 산화했다고 표현하며 그들의 죽음을 미화하고 있다.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의 죽음을 산화로 묘사하며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었다. 당시 일본 군부는 꽃의 이미지를 이용해 국민들의 희생을 유도하고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려고 애를 썼다. 일보에서 ‘산화’라는 표현을 아직도 사용하는 것은 일본이 아직 제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당시의 일본, 즉 국가에 의해, 강요에 떠밀려 꽃다운 나이에 희생당했다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산화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내용을 왜곡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 여념이 없다.<sup>62)</sup>

### 가미카제와 난사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죽음을 전제로 전장에 나섰다. 또한 출격 명령을 받고 남자로 태어난 기쁨을 이제야 느끼며, 자신이 죽어 그 기쁨과 고마움을 죽음으로 승화해 나라에 갚겠다고 했던 유서들도 남아 있다. 이는 일본 군부의 세뇌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은 ‘내면화’와 ‘강제’로 죽음을 앞두고도 작전에 임했다. 일본군은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에게 국가와 천황에 대한 충성을 최고 미덕으로 내세우는 프로파간다로 이러한 이념을 내면화했다. 이로써 대원들은 자기 죽음을 국가와 천황을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받아들이도록 세뇌되었다.

이토록 국가가 주도하여 죽음을 낭만화하고 서사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일본의 제국주의는 “아시아 민족이 서양 세력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려면 일본을 중심으로 대동아공영권을 결성하여 서양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sup>63)</sup> 라며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형태로 나타났고, 끝내 태평양전쟁은 도발과 자살 특공대 공격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낳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의 죽음은 국가의 잘못된 전쟁 정책에 따른 강제적이고 무의미한 희생이었다. 즉, 전쟁에서 목숨을 잃는 것은 ‘영웅인 행동’도 아니거니와 ‘산화’도 아닌, 그저 개죽

62. 이영진. “산화(散華)와 난사(難死): 전후 일본의 특공의 기억과 재현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45권 no. 3(2012): 63-104.

63. 1940년 8월 1일 마쓰오가 요스케(松岡洋四) 외상의 담화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그는 이 담화에서 처음으로 대동아공영권을 주창했다.

음과 같이 무의미한 죽음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난사<sup>難死</sup>’라는 표현은 ‘산화’, ‘숭고한 희생’으로 대표되는 전쟁을 기억하는 일본의 태도와 반대되는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난사는 일본의 반전주의 작가 오다 마코토<sup>小田実</sup>가 한 말로 그들의 죽음이 헛되었음을, 전쟁의 무의미함과 잔인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로써 이들의 죽음은 국가의 잘못된 전쟁 정책에 따른 강제적이고 무의미한 희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제국주의가 몰락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숭고한 죽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특공 대원들의 죽음을 ‘난사’가 아닌 ‘산화’로 규정하여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프로파간다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 전후 일본 군국주의와 전사자 미화와 정당화

현대의 일본은 미군에 전사한 모든 일본군 장병을 순교자로 여기며, 그들의 죽음을 정당화하고 있다. 제국주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사자들은 야스쿠니에서 영원한 극락을 누릴 것이라고 아름답게 포장하여 희생을 강요했다. 현대의 일본과 제국 일본은 그들의 죽음을 ‘의로운 죽음’으로 미화했고, 현대의 일본은 프로파간다로 적극 활용하여 죄를 회피하고 피해자로서 면모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 일본 사회 내부와 국제사회에서는 ‘산화’라는 용어와 그것이 내포하는 전쟁 미화, 개인 희생의 정당화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전쟁의 실상과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며,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미카제 특공대가 개인의 생명을 도구화하여 전

쟁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희생을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했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죽음을 숭고하게 미화함으로써 전쟁의 비인간성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후대에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대표적인 우익인사로 통하는 요미우리 신문의 ‘와타나베 쓰네오’ 전 회장마저 이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남겼다. 그는 실제로 태평양전쟁 말기에 이등병으로 입대했던 인물로 특공사의 미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와타나베 전 회장은 “그들이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며 용기 있게, 기쁘게 떠났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그들은 마치 도살장의 양들과 같았고,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서 기간병들에게 실려서 강제로 비행기 안으로 밀어 넣어졌다’라며 드러나지 않았던 가미카제 특공대의 실상을 밝히며 비판했다.<sup>64)</sup>

일본이 특공대원들의 죽음을 ‘산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적 선택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가치와 이념을 반영하는 복잡한 역사적 배경이 깊게 얽혀 있다. 이러한 배경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주요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는 국가의 확장과 국력의 강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으며, 개인의 희생을 국가의 영광과 직결시켰다. 이러한 가치관에서 ‘산화’는 개인의 죽음을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전쟁 말기에 ‘산화’는 일본이 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결

---

64\_ KBS 역사스페셜. 1. 101. “조선인 가미카제 탁경현의 아리랑.” 공용철. 2012. 3. 15. KBS.

속하고 전쟁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고취하는 역할을 했다. 이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영웅적 희생으로 국민의 단결과 승리를 고취하려는 희망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헛된 희망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65)</sup>

### 특공사란 무엇인가?

특공사(特攻死)는 적의 항공기나 군함에 자신의 항공기를 이용해 ‘몸체 공격’을 하는 전사(戰死)를 말한다. 우리는 주로 특공대를 생각하면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린다. 사람을 무기로 한 ‘몸체 공격’이 너무 엽기적이고 비윤리적인 군사 작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청년들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자신들의 죄의식을 최소화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산화라는 미화의 이면

전술했듯이 가미카제 특공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절박한 상황에서 채택한 자살 공격 부대다. 특공대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적의 항공기나 군함을 공격하도록 훈련받았다.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은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압력과 세뇌에 따라 죽음으로 내몰렸다.<sup>66)</sup>

### 산화라는 표현의 문제점, 군국주의의 재생산

‘산화’라는 표현은 일본 사회 내에서 전쟁에 대한 기억과 해석, 전후 국가정체성을 재형성하는 수단으로써 사용되었다. 이러한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의 전쟁과 그에 따른 희생을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일본이 가미카제 특공대의 죽음을 산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쟁의 비극을 미화하고, 국가의 잘못을 덮으려는 시도다. 그러나 가미카제의 죽음은 국가의 잘못된 전쟁 정책에 따른 강제적이고 무의미한 희생이었다. 이들의 죽음을 난사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며, 이는 전쟁의 무의미함과 잔인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일본은 '산화'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평화가 무엇인지는 물론 이를 이룩하려는 우리의 고민을 희석하고 있다. 하지만 특공대원들이 괴로움 속에서 전하려 했던 소망, 희망, 신념을 등한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특공대원의 죽음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산화'가 국민에게서 전쟁에 대한 지지를 얻고 과거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산화'는 일본 내에서 교육자료와 국가적 기념행사를 통해 영웅적 이야기로 전승되었다. 이는 현대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sup>67)</sup>

전쟁의 참혹함과 무의미한 희생을 직시하고, 이로써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은 전쟁의 역사를 미화하는 대신, 전쟁의 비극과 무의미한 희생을 직시하며, 군국주의의 재생산을 멈추고 평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공부대원의 사진을 보면 그

---

65\_ 박균섭. "조선의 청년·학도와 가미카제특공대-구로다 후쿠미의 탁경현을 기념하는 방식-," 일본근대학연구 57(2017): 227-250.

66\_ 일본전몰학생기념회. *들어라 와다쓰미의 소리를*. 한승동 역. 경기: 서커스출판사회, 2018.

67\_ 권혁태. "옥쇄'와 '난사(難死)' 사이에서-일본의 '전후'와 오다 마코토-," 개념과 소통 30(2022): 49-94.

들이 얼마나 어렸는지 알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들이 이해나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국가가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포장하고 이용할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일본의 전쟁 과오 지우기로 그들의 넋도 여전히 갈 곳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

# ‘특공위령’에 대한 인식

: 「조선인 특공대원」이라는 물음 -  
위령과 기억을 중심으로-, 쟁점논단: 일제 말기  
조선인 특공대원의 지원과 특공사를 읽고

---

김지연, 박철웅, 윤석희

---

## ‘특공위령’ 문제를 파고들다

2024년 2월에 참여한 규슈 현지조사에서 우리는 2023년 12월 위크숍 중 조사한 조선인 가미카제 문제에 이어 귀향지원비와 연결된 ‘특공위령’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 ‘특공위령’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위령’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조사 주제로 삼았다. 한국과 일본의 ‘위령’에 대한 견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리고 ‘위령’에 내재한 내셔널리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물음을 던지고자 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위령’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위령에 대한 한일 양국의 태도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 ‘특공위령’ 문제를 파고들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위령<sup>慰靈</sup>’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함’을, ‘현창<sup>顯彰</sup>’은 ‘밝게 나타나거나 나타냄’을 의미한다.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이영진 교수는 한국에서 위령과 현창이 하나의 세트로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 일본의 위령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옛날에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모범을 보인 관료의 공을 기리기 위해 세운 송덕비<sup>頌德碑</sup>가 있다. 반면 일본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위령비를 세우는 전통이 강하다고 한다.<sup>69)</sup>

일본 사회에서 위령은 죽음의 경위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민속학자 신타니<sup>新谷</sup>에 따르면 일본 사회에서 위령은 비정상적으로 죽은 경우, 즉 이상사<sup>異常死</sup>에 이루어지는 행위로 정의된다. 그러나 사고로 죽은 조난자에 대한 위령은 단순히 위령비를 세우고 희생자의 영을 위로하여 안식을 기원하는 것에 그친다.

일본의 전통적 죽음 관념에서 본다면 특공대원의 죽음은 일반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죽음이 아니므로 ‘이상사’로 간주된다. 이는 그들의 죽음이 극한의 전투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바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렇게 목숨을 잃은 자의 영혼을 달래려면 특별한 위령과 공양이 필요하다고 한다.

### ‘귀향기원비’ 건립 배경과 문제점

“이 석비는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희생되어 일본인은 말할 나위도 없고 같은 동포로부터도 위령받지 못하는 많은 분을 추도하려는 것이다. … 이것은 정치적인 면을 배제하고 어디까지나 인도적 입장에서 희생자를 추도하는 것이다.”(구로다 후쿠미, 2018. 166)

현재 용인시 법륜사에 세워진 ‘귀향기원비’는 건립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았다. ‘귀향기원비’는 영화 <호타루>의 주인공인 조선인 가미카제 탁경현을 비롯한 태평양전쟁에서 죽은 조선인들을 기리는 위령비로, 원래는 탁경현의 고향인 사천시에 세울 예정이었다.

2008년, 지한파 여배우로 알려진 구로다 후쿠미(黒田福美)는 조선인 특공대원의 비를 한국에 세우고자 하였다. 당시 일본 사회의 반응은 한일교류를 위한 양심적인 시민들의 활동이라고 보았다. 위령비 건립지는 영화 <호타루>의 실존 인물이었던 탁경현의 고향인 경상남도 사천시의 한 공원 부지로 결정되었고, 추가로 이 부지를 무상 대여하기로 약속하는 등 제막 전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하였다.

그러나 제막식에 이르러 귀향기념비는 한국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당시 기념비가 사천시에 건립되려 하자 광복회와 사천진보연합 등의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그들은 “일본으로부터 정식으로 사죄도 없는 채 이런 석비를 세우는 것은 의문이다.” “반일 독립운동을 위해 싸운 후예로서는 야스쿠니신사에 안치되어 있는 것 같은 친일파 인물의 석비 따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며 단호한 의견을 표명했다.<sup>68)</sup> 인터넷에서도 반대 서명 운동이 일어났는데, 친일파를 위한 위령비 건립은 안 된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그들도 피해자로 볼 수 있으나, 위령비를 세운다면 독립운동가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나 반성 없이 일본인이

68\_ 이영진. 「조선인 특공대원」이라는 물음-위령과 기억을 중심으로-.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no. 7(2011): 192.

69\_ 구로다 후쿠미.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타임라인, 2018. 191-192.

세우는 위령비는 받아들일 수 없다” 등 다양한 반대의견이 존재했다.

이 해프닝은 한일 간 위령에 대한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에서는 위령이 현창한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탁경현의 ‘특공’ 공적을 알리고 표창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닐까. 김성숙 광복회 사천지회장은 “사천 출신의 애국지사는 2명이 있는데, 그들을 기리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다”라며 “독립운동가들도 제대로 기리지 못하는 판국에 일본 천황을 위해 죽은 사람을 기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주장을 표했다.(윤성호, 2010)

애초에 기념비 건립 사업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조선인 가미카제 위령비가 단순한 문화 소비로 전락하지 않도록 온전한 추모와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념비를 건립하기에 앞서 위령에 대한 상호 인식 차이를 이해하고 조선인 가미카제의 정체성과 같은 민족 문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 ‘아리랑의 비’ 건립 배경과 문제점

*“총리가 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특공기에 탔던 청년들의 마음 가짐과 나 자신을 비교한다. ... 그러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박차고 일어선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일본 총리(이영진, 2014, 41)*

이 말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취임 초 지란특공평화회관을 방문한 후 남긴 소감이다. 그가 남긴 소감 자체에는 애국주의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지란특공평화회관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

특공대원들의 순수한 녀을 기리고 현창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시설이다. 이는 현 일본 사회에서 특공대의 위상을 통해 애국주의를 상상하게 하는 하나의 매개로 작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지란의 '아리랑의 비'는 1999년에 건립되었다. 1984년부터 지란의 위령제에 한국인 유족이 참가하면서 분향대 앞에서 오열하던 한국인 유족들의 모습이 보도되었다. 이는 일본의 위령 행위, 나아가 특공 위령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좋은 소재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지란 공보인 「지란초보」에서는 한국에서 다루기 어려운 육친의 죽음을 매년 위령해 주어서 고맙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처럼 겉보기에 우호적이던 양자 관계는 위령비 건립이 논의되면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한다. 1990년, 유족이 요청한 위령비에 새길 자작시 구절 중 '보답 없는 전쟁'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된다고 지란 측에서 거절하면서 건립이 무산되었다. 1995년에 지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위령비를 건립하려 했으나 위령비 건립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 사회 내 오해와 우려가 걸림돌이 되어 또다시 무산된다. 이러한 논란이 있고 4년 후인 1999년에 한 일본인 독지가가 조선인 특공대원을 위령하는 가비<sup>歌碑</sup><sup>70</sup> 건립을 지란에 요청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아리랑의 비'가 건립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인 유족과 지란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비가 건립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인 유족과 아무런 상의 없이 건립 과정이 진행되었고, 정작 제막식에는 한국

---

70. 그 사람을 기리려고 일본 전통 시인 와카(和歌)를 새긴 비석.

인 유족이 초청되지 않았다. 더구나 조선인 특공대원을 위령하는 비의 제막식은 일본 고유의 민족 종교인 ‘신도(神道)’식으로 거행되었다. 조선인 특공대원이 등장한 것은 일본제국 시기로, 당시 신도는 국교화해 천황 권력을 신력화하는 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리랑의 비’ 제막식을 신도로 진행한 것은 조선인 희생자의 정체성을 왜곡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의 중심인물인 한국인 유족을 존중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리랑 노랫소리(アリランの歌声) 저 멀리 어머니 나라에(とほく母の国に) 그리움을 남기고(念ひ残して) 흩어져간 꽃들(散りし花花).”*

위 문구는 지란 ‘아리랑의 비’에 새겨진 내용이다. 석비에 새겨진 ‘흩어져간 꽃들’은 ‘벚꽃’을 의미한다. 이 꽃은 전쟁을 거치며 가미카제 특공대를 포함한 병사들의 희생을 정당화·미화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일본인들이 이 석비를 통해 조선인으로서 전사한 비애를 제대로 느낄지 의문이 든다. 전쟁 미화와 국가주의 선동은 특공평화회 관 관람객들에게 슬픔과 안타까움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러나 희망적인 점은 일부 관람객들이 평화를 지키려다 전사한 이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하는 방문 소감을 남겼다는 것이다. 다음은 2013년 8월 5일에 M이라는 방문객이 적은 소감이다.

*“전쟁의 진실(조선, 중국,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을 모르고 전장에 내몰린 병사의 비극은 정말 슬프다. 상층부 사람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전후에도 살아남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전쟁의 최*



고책임자인 천황도 아무런 처벌을 안 받고 전후 태평하게 살고 태평하게 죽은 것을 용서할 수 없다. 특공대원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배극인, 2013)

## 한일 위령제 비교

앞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위령은 사전적으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함’을 뜻한다. 그렇다면 위령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위령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위령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위령제가 있는지 조사해 보고자 했다.

먼저 한국에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현충일이 있다.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힘쓴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날이다. 그 외에 제주 4·3사건 희생자를 위로하는 4·3위령제, 임진왜란 때 전사한 신립·김여물 장군과 8천여 의군의 넋을 위로하고자 충주 탄금대에서 열리는 팔천고혼위령제, 고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고려 최영장군위령제, 일제강점기에 강제 동원되거나 그 영향으로 고국을 떠난 이들의 귀향을 염원하는 망향의동산 합동위령제 등이 있다.

이러한 위령제들을 보면, 한국은 전란 때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이거나 어떤 사건의 희생자들을 위령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위령제의 목적은 그들을 위로하면서 동시에 기억하고, 감사와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위령제가 열리면서 사회에 널리 알리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한다. 대표적 예로 고위 공직자가 위령제에 참석한 소식이 언론에 실리면서 사회에 알려지는 일이 있다.

일본에서는 매년 6월 23일 오키나와 위령의 날,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의 날, 8월 9일 나가사키 원폭의 날, 8월 15일 종전기념일에 전몰자를 위령한다. 이 외에 과거 대지진과 전쟁 중 대공습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위령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 시설로는 도쿄도 위령당(東京都慰靈堂)이 있다.

일본의 위령을 살펴보면, 주로 재해와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전몰자가 위령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위령제도 희생자와 전몰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며 그들을 기억하는 의도가 있다. 한국과 다른 점은 굿이나 제사 같은 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위령 문화를 알아보며 느낀 공통점은 두 국가 모두 망자를 기억하고 위로하며 비석을 세운다는 사실이다. 또한 전쟁과 같은 큰 사건에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위령제가 열리며, 위령제에서 묵도하고 헌화하는 방식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이점은 위령제의 종류와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희생자뿐 아니라 영웅적인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위령제가 열리며, 영을 위로하기 위해 굿을 하거나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스님이 경을 읽거나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종교적·문화적 차이가 위령 방식의 차이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한일 양국의 위령은 망자를 기리고 위로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역사적 사건과 종교적·문화적 차이에서 위령 방식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우리가 느낀 ‘특공위령’

“애도의 정치가 항상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산

자가 죽은 자를 위로한다는 ‘위령’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주체의 의도적 책략에 따라 위령의 성격이 변질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인 것이다.”(이영진, 2016, 213)

죽은 자를 애도하는 방식은 기독교·불교 등 종교적 방식, 유교사상에 따른 제사, 무속적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제사를 통해 기리는 방식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한다. 죽은 자를 선조로 모시고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가 있다. 일본 사회는 개인 단위로 위령비를 세우는 전통이 강하다. 집에 위패가 있는 불단을 두지만 제사를 매년 지내는 것은 아니다.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선조로 모시고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원 파악조차 어려운, 셀 수 없이 많은 전쟁에서 발생한 죽음이다. 태평양전쟁에서 수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지만 후손이 없는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기억에서 사라질 운명이었다. 이러한 제안은 어쩌면 죽음과 전쟁을 확실하게 기억하는 방법 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일본 사회에서는 추도식이나 여러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전사자들을 위한 일본의 위령과 현창에 정치적 의미가 들어간다는 점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란특공평화회관이나 야스쿠니 신

---

71\_ 도쿄 스미다구 요코야미초 공원에 위치하며 1923년 관동대지진과 1945년 도쿄 대공습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유골을 안치한 위령시설이다. 시설 한쪽에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가 세워져 있다.

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한 사람들을 기리는 곳이다. 가족을 위한 개인의 발걸음은 특별한 의도가 없는 자연스러운 행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특공사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죽음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다.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고, 전쟁을 벌인 사실과 평화의 의미가 흐려진 채 후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일본이 말하는 ‘평화’가 어떤 의미인지 의문이 들게 만든다. 전쟁에 대한 슬픔과 전사자들을 향한 감사라는 감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으나, 그것이 정치에 따른 결과라면 상당히 미묘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게 한다. 오늘날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넋을 기리는 행위에 정치적 목소리가 들어가면서 추모의 본질이 흐려진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저자는 의도에 따라 ‘위령’이라는 말 자체의 성격이 변질될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위령’이라는 말이 단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한다는 의미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sup>72)</sup> 그렇기에 저자가 말하는 위험성에 주의하면서 한국과 일본 사회에 깃든 ‘위령’의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위령과 현창을 전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위령’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우리가 위령이라는 문제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흑백논리 속에서 단편적으로만 바라본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의 대상인 조선인 특공대원은 조선과 일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회색지대의 인물로, 그들을 온전히 애도하는 사회가 형성되려면 앞으로 더욱 많은 소통과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귀향기원비’ 건립 과정은 한국에서 ‘친일파’로 인식되는 조선인 가미카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다. 과거 차별과 억압이 만연했던 시기, 독립운동가라는 ‘영웅’은 찬양받았지만 꿈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일반인은 주목받지 못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의 평범한 국민이다. 그들은 가족, 연인, 친구를 지키고자 노력했고, 일제는 그들을 학도병으로 끌어들이었다. 갈 곳을 잃은 일부 젊은이들은 특공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조선은 대일본제국의 식민지였고, 그곳에서 꿈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젊은 청년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악착같이 살아간 그들의 행적이 모두 ‘친일’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까. 출격 전 아리랑을 불렀던 탁경현의 정체성은 어디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다루려면 민족중심적 사고를 넘어 그들이 처한 상황과 과정을 바라보아야 한다.

지란 ‘아리랑의 비’ 건립 과정을 보면 일본인이 우리와 많이 다른 위령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 유족들이 여러 차례 위령비 건립을 요청했을 때는 무산되었으나, 한 ‘일본인 독지가’의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이는 한국인 유족들이 요청한 바가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며, 그들이 전쟁 책임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한국인 유족이 요청했던 자작시와 달리 ‘아리랑의 비’에 적혀 있는 비문은 무척 감상적이다. 한국인이 볼 때 ‘아리랑의 비’가 과거 잘못을 반성한다는 의미로 세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국인 한국에서 볼 때 일본과 얽힌 위령비, 기념비 건립은

---

72\_ 이영진. "근대성과 유령." *아세아연구* 59, no. 3(2016): 211.

‘일본이 과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위 두 사례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자본적·정치적 요소가 개입되어 온전한 추모와 거리가 떨어진 현실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로써 위령을 다루는 한일 사회를 알려주면서 죽음을 바라보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린 소년병들의 비극적 죽음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진정한 위령, 현장을 하려면 국가적 감정을 배제하고 조선인 가미카제를 둘러싼 문제를 비판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성숙한 사회적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다. 이 책을 계기로 위령과 민족에 의문을 던지는 좀 더 논리적인 사고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

# 조선인 가미카제 특공대원 탁경현, 그와 위령비를 쫓아서

: 책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를 읽고

---

김지연, 박종후, 이영석

---

##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에 대해

“저는 말이죠, 여기서 죽었습니다. 자위대 조종사였지요. 천황 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 억울하지는 않지만 말이죠, 단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건 나는 조선 사람인데 일본 사람으로, ‘일본 이름’인 채 죽었다는 사실입니다.”<sup>73)</sup>

이 내용은 지한파<sup>知韓派</sup> 구로다 후쿠미가 꿈에서 본 한 남자의 이야기다. 구로다 후쿠미는 이 남자가 조선인 특공대원 미쓰야마 후미히로<sup>光山文博</sup>라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꿈에서 처음 그를 본 1991년 7월부터 후쿠미가 직접 제작을 요청하고 세우려 했던 귀향기원비의 제막

---

73\_ 구로다 후쿠미,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조양옥 역, 타임라인, 2018, p. 16.

식 날인 2008년 5월 10일까지, 그녀는 후미히로(본명 탁경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하지만 ‘진보연대’와 ‘광복회’의 제막식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면서 원래 제막식이 열리기로 했던 탁경현의 고향 경남 사천에 귀향기원비도 세워지지 못했다. 귀향기원비는 시간이 흐른 뒤인 2009년, 용인시 법륜사 주지 스님의 수락으로 법륜사에 세워진다. 그러나 2012년 3월 15일 <조선인 가미카제 탁경현의 아리랑>이 방영되면서 동시에 귀향기원비가 법륜사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 이에 광복회는 2012년 4월 5일 위령비 철거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공문서’로 각지에 보낸다. 결국 귀향기원비는 법륜사에 파묻혔고, 귀향기원비와 같이 있던 삼족오 조각만이 현재 문헌 귀향기원비 옆에 서 있다.

또한 책은 구로다 후쿠미의 여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탁경현을 소개한다.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조선인 가미카제 탁경현은 1920년에 경상남도 사천군 서포면에서 태어나 어릴 때 부모, 여동생과 함께 일본으로 이주한다. 이후 교토 약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고요(伍陽)제약회사에 입사해 반년간량 근무하다 1943년 다치아라이(大刀洗) 육군 비행학교 지란분교에 입대, 육군 특별조종사 견습사관 제1기로 들어간다. 이후 그는 출격 전날인 1945년 5월 10일, 자주 가던 도미야 식당에서 아리랑을 불렀으며, 도미야 여관을 복원해 놓은 호타루관에 그의 큰 사진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그렇게 그는 5월 11일에 지란의 비행장에서 출격해 오키나와 서쪽 바다 위에서 전사하였다.

### 탁경현의 흔적을 쫓아서

저자는 꿈을 끝 이후 탁경현의 흔적을 계속 쫓기 시작한다. 그녀는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의 ‘유슈킨<sup>遊就館</sup>’에서 합상 폭격기와 태평양전쟁 당시 군가, 특별 공격대로 산화<sup>散華</sup>한 병사들의 약력과 유품 등을 확인하며 탁경현을 소개받는다. 탁경현과 같은 조선인 특공대원들은 충성심에 의한 것보다 지원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탁경현도 제약회사에서 일하던 도중 강요당했다. 모두가 지원을 ‘당한 것’인지는 전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출생과 동시에 식민지 교육받았다는 사실이다. 식민지 교육에 따른 자아정체성과 민족의식의 파괴는 다음의 윤치호와 현상윤의 외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74)</sup> 당시 시대상을 반영했을 때 천황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이라 짐작된다.

*1944년 윤치호, 2,600만이 가미카제 특공대가 되어 젊은 충혼을 따르자고 외침.*

*1944년 현상윤, 승리는 정신력에 있음을 강조. 반도 청년을 향해 가미카제 특공대의 길을 따르자고 외침.*

저자는 탁경현의 흔적을 따라 여러 장소를 방문한다. 먼저 도리하마 도메 씨의 둘째 딸인 아카바 레이코 씨에게서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다. 쓸쓸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홀로 있을 때가 많았다는 등의 탁경현을 향한 묘사에 저자는 “조선인이면서 온갖 갈등을 뛰어넘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 몸 바치겠다는 그 심경을 떠올리면, 도메 씨 역

74. 박균섭. “조선의 청년·학도와 가미카제특공대-구로다 후쿠미의 탁경현을 기념하는 방식-.” 일본근대학연구 57(2017): 227-250.

시 번민이 늘어갔을 것임이 틀림없다”라고 의견을 표했다. 출격 직전 아리랑을 부른 그의 군복 상의 주머니에 가족사진을 넣어주었다. 탁경현은 아리랑을 부른 후 죽으면 반딧불이가 되어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아리랑이 조선인으로서 이념화-주체화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반딧불이가 되어 돌아오겠다는 것은 일본인의 죽음관을 담고 있다. 탁경현의 정신세계에는 조선인의 세계관과 일본인의 세계관이 함께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sup>75)</sup> 여기서 갈등을 뛰어넘었다는 표현이 맞는지, 정말 일본을 위해 뛰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고민했음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가족을 따라 일본으로 주거지를 이동했고 일본에서 산 세월이 더 길었음에도 아리랑을 부른, 조선인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았던 마음을 전부 헤아릴 수는 없다.

또 저자는 해마다 지란에서 거행되는 지란 특공기지 전몰자 위령제에도 참석한다. 지란 정류소에서 평화 관음까지 가는 길가에는 기증되어 세워진 석등롱이 길게 늘어서 있다. 석등을 기증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아도, 이제는 설치 장소가 부족해 더 받지 않고 있다. 참배길 입구에는 조선인 특공대원을 기리는 석비가 건립되어 있는데 비문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아리랑의 노랫소리 멀리 어머니 나라에 / 미련 남기고 흩어지는 꽃잎, 꽃잎”

꽃잎은 사쿠라꽃(벚꽃)을 말한다. 특공대가 출격하기까지 그들을

위해 청소, 식사 등을 봉사했던 ‘나테시코대’도 출격할 때 벚꽃 가지를 흔들며 배웅했다. 이 꽃은 전쟁을 거치면서 병사들의 희생을 정당화·미화하는 대표적 꽃이 되었다고 한다. 석비에 이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새겨져 있다. 전쟁의 참혹함, 병사들이 세상에 남겼을 미련은 차치하고 희생을 정당화하는 그 당당한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 희생을 기리는 마음

오키나와의 평화기념공원에서는 평화의 초석을 볼 수 있다. 오키나와 전투 종결 50주년을 기념하여 건설하였고 비참한 전쟁의 교훈, 평화 창조의 이념을 일본과 세계를 향해 퍼트려 가자는 취지가 있다.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타계한 모든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석비이며, 이름 표기는 모국어룰 따른다. 대한민국 측 희생자 이름 표기는 한국의 홍종필 교수가 후생성 명부에 기재된 본적지에서 한국 호적을 훑어 찾아내는 작업을 해주었다. 작업은 일본어를 이해하고 한자를 해독할 수 있어야 했다. 현대에는 한자를 일본 문화의 잔재로 여겨 전부 한글 표기로 바꾼 탓에, 자료에 한자가 섞여 있다면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몇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또한 힘겹게 한국 호적부를 발굴해 유족을 찾아도 평화의 초석에 각명하자고 하면 거절하는 예도 있다. 일본 군인으로서 일본을 위해 목숨 바친 친일파로 간주하고, 나아가 매국노 취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

75\_ 박균섭. “조선의 청년·학도와 가미카제특공대-구로다 후쿠미의 탁경현을 기념하는 방식-.” 일본근대학연구 57(2017): 227-250.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 어떤 식으로 해서 국민에 대해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호소할까. 한일 두 나라의 평화, 나아가 아시아의 평화,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고 공연하는 것이 학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전쟁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만, 그로써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행동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sup>76)</sup>

저자 구로다 후쿠미 또한 전쟁 희생자를 기리는 마음으로 위령비를 세우길 희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특공대원 중 특히 조선인 가미카제 특공대는 위의 문장과 같이 양국에서 진정으로 추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일본(천황)을 위해 뛰어든 자로, 일본에서는 자국을 지키기 위해 이루어진 희생으로 하나의 정치적 수단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추모하는 마음으로 세우길 원했던 위령비는 어째서 반일의 표적이 되었을까.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저자가 위로하고자 하는 방식이 기형적이라는 것이었다. 위령비를 세우고자 했던 당시 일본 언론은 후쿠미의 선의가 한국의 고집스러운 과거 집착으로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이 전쟁 범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평화를 말하는 건 오히려 역사를 지우는 일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에서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개인이 추모 의식을 가지고 석비를 건립하려 했다면, 한국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귀향 기원비 건립 반대 측은 기리고자 하는 인물이 조선인이

아닌 일본을 위해 희생한 가미카제 특공대원이라 여겨지고, 가해 사실에 대한 사과 없이 모두가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목숨 바친 이들의 행동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천황을 위해 죽은 이를 위한 석비를 세울 수 없다. 양측 모두 이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 감정을 앞세우기에는 지나온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고, 사실에 따르면 결국 조선인 가미카제 특공대는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러한 생각이 책을 읽는 내내 멈추지 않았다.

### 탁경현, 그의 삶을 돌아보며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탁경현이라는 인물의 삶과 죽음에서 일제강점기와 태평양전쟁 속에서 조선인이 겪었던 고난과 갈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삶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많은 조선인이 겪었던 억압과 고통을 대변하는 중요한 사례로 다가왔다. 탁경현이 일본으로 이주하고, 일본 이름을 사용하며 살아간 과정은 당시 조선인이 겪었던 차별과 동화의 압박을 잘 보여준다. 일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숨겨야 했던 그의 모습은 일제강점기의 잔혹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는데, 특히 가족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길이 결국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연민을 느끼게도 되었다.

그가 자발적으로 특공대원이 되었는지, 아니면 강요와 세뇌로 선택했는지를 두고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의 복잡한

---

76\_ 구로다 후쿠미.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조양옥 역. 타임라인, 2018.

사회적·역사적 맥락을 잘 보여주므로 그 당시 시대상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과 행위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 그 시대의 구조적 강압과 압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탁경현의 이름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것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일본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야스쿠니 신사에 그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은, 그가 단지 일본 제국주의의 도구로 이용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체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했던 조선인들의 복잡한 현실을 현대에 전해주고 있었다.

### 탁경현과 얽힌 역사적 사건

탁경현의 위령비 건립을 둘러싼 논란도 마음 아팠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를 친일파로 볼지, 아니면 일본 제국주의의 희생자로 볼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점은, 그의 선택이 자발적인 것인지 강요된 것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강압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결국, 탁경현이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복잡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조선인들이 겪었던 현실과 그들의 강요된 선택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그의 삶과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당시 수많은 조선인이 겪어야 했던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잔혹함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갈등을 이해할 수 있다.

탁경현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영향을 주며, 단순한 친일과 반일의 이분법을 넘어서 복잡한 인간적·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봐야 함을 일깨워주었다. 나는 특히나 탁경현, 조선인 가미카제 특공대원들 모두 친일 성향이라고 단정 짓고 있었기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었다. 탁경현의 삶이 단순한 개인적 비극을 넘어서 당시 조선인들이 겪었던 억압과 고통을 대변하는 중요한 사례로 작용했으며, 그가 일본으로 이주하여 일본 이름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했던 어려움에 그를 연민하기도 했고, 그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갈등이 많았는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

### 그의 고향에 세워질 수 없었던 귀향기원비

이러한 생각 뒤에 문득 탁경현의 귀향기원비 제막식이 취소된 이후를 생각해 보았다. 과연 귀향기원비를 위한 제막식이 취소되고 석비가 철거될 정도로 탁경현이라는 인물이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석비를 철거하자는 사람들은 그를 친일파로 바라보아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이 심했고, 이러한 차별을 극복하려고 일본군이 되어 싸운 사람도 있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고려해 행동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후 사천시에 있던 귀향기원비는 구로다 후쿠미가 용인시 법륜사에 세울 수 있게 법륜사 주지 스님에게 허락을 받았다. 그렇게 용인시에 다시 석비가 세워질 수 있었다. 석비를 세우면서, 음력 2009년 9월 9일<sup>77)</sup>을 귀향기원비의 재건 날짜로 지정해 방문하기로 한다. 그렇게 구구절 당일 법륜사에 모여 엄숙하게 의식을 거행한 이후 구로다 후쿠

---

77. 음력 9월 9일은 9.9절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비명횡사한 이를 모시는 의미가 있다.

미는 구구절 때마다 귀향기원비로 왔고, 코로나 시기에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등 꾸준한 행보를 보였다.

### 용인으로 넘어온 석비 다시 넘어지다

귀향기원비가 용인에 세워진 이후인 2012년 3월 15일 <조선인 가미카제 탁경현의 아리랑>이 방영되었다. 특공작전에 대한 해설부터 특공이라는 특별한 임무를 맡지 않을 수 없었던 조선인 병사의 고뇌와 배경이 된 개인사가 담겨 있었다. 또한 이 영상을 통해 귀향기원비가 용인시 법륜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복회는 이 다큐를 보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항의문과 석비 철거에 대한 공문을 각지에 보냈다. 결국 2012년 여름, 광복회의 영향으로 석비는 법륜사 구석에 묻혔고, 그 옆에 삼족오 조각만 남았다. 이를 보며 구로다 후쿠미는 ‘석비는 서 있는 편이 낫지만 서 있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마무리된다.

결과적으로 탁경현의 위령비는 제막식도 거행되지 못하고 법륜사로 옮겨졌다. 법륜사로 옮겨진 이후에도 지속적인 항의와 압력이 들어오자,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굴착기를 불러 사실상 해체 작업에 돌입했다. 기원비의 제막식이 무산된 상황을 바라보면서 처음엔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선인 가미카제, 그들을 알아보면서 친일파로 바라보는 시선 또한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제막식을 거의 당일 취소하고, 용인에 온 비석조차 묻을 정도의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짧게나마 조선인 가미카제를 조사하여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고민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가슴 한쪽에 남아 있을 뿐이었다.



## 결론

지금까지 탁경현과 조선인 가미카제 특공대, 구로다 후쿠미가 건립하고자 했던 위령비 그리고 한국에서 조선인 특공대와 위령비의 인식 등을 다양하게 알아보았다. 구로다 후쿠미는 일본의 지한파 배우로 불리는 사람이었고, 꿈이라는 허무맹랑한 시작이었음에도 귀향기원비 건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이 있다. 우리는 탁경현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구로다 후쿠미의 마음과 탁경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국 단체 측을 모두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쪽의 처지에만 동의하기에는 그 안에 숨겨진 수많은 상황을 이해하고 생각해야 했다.

모두가 생각했던 건 당시 시대상을 반영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점이었다. 위령비 자체는 일본 정부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충분히 반일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탁경현처럼 조선인 특공대원을 향한 시선은 넓고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귀향기원비 건립에 실패한 것이 과연 탁경현 한 사람 뿐일까. 모두가 비슷한 대우를 받았을, 지금도 그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한일 양국 사이에 있을 탁경현과 조선인 특공대원들을 추모한다. 또 일본의 뉘우침과 한국의 인식 변화를 조금이나마 기대해 본다.

---

# 일본에서의 평화교육과 왜곡되는 전쟁 역사

: 가미카제 특공대와 지란특공평화회관을 읽는 법-  
일본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sup>78)</sup>을 읽고

---

김혜진, 신현주, 이하림

---

## 지란에서 ‘평화’는 무엇이 다를까

지란특공평화회관은 수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 인기 관광지로, 일본 전국 620개 초·중·고등학생이 방문하는 평화교육의 장으로 정착했다(木村正人, 2014).<sup>79)</sup> 하지만 지란특공평화회관의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전시는 평화교육의 장이라는 칭호를 무색하게 한다. 1945년 봄(1945. 3. 26~7. 19)이라는 시점에서 시작되는 전시에는 태평양전쟁이라는 역사적 맥락이 소거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처음부터 역사의 왜곡이 내재했다고 저자는 말한다.

실제 지란특공평화회관에서 제공하는 팸플릿을 살펴보더라도 가미카제 특공대가 출현한 배경이나 전쟁 책임 등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사진 1). 지란특공평화회관 팸플릿을 살펴보면 “일본은 최후의 수단으로 특공작전을 시작했다”, “인류사상 유례없이 폭탄을 실은

비행기로 적함에 몸체 공격을 한” 등의 표현으로 특공작전이 있었다는 사실 정도만 기재하고 있다. 지란특공평화회관 공식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서야 ‘특공작전에 도달한 경위’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사진 2), “압도적인 물적 전투력을 앞세운 미국의 진공을 막기 위해 일본군으로서 는 병사 한 명 한 명의 정신력을 무기로 삼은 특공작전밖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일본 군인이 목숨을 건 특공을 거듭해 미군에 큰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험전기운(雄戰氣運)<sup>80</sup>이 확산되어”,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을 테니 머지않아 휴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정부는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라고 표현하며 특공작전의 실행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공작전은 군국주의라는 이념하에 인간을 전쟁의 소모품으로 인식하는 생명 경시 풍조의 집약체였으며 수많은 개인의 인생을 비극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 분명한, ‘필승 작전’이라 여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자행해서는 안 되었던 수단이었다. 한데 팸플릿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특공작전밖에 방법이 없었으며, 특공작전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평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기술한다. 마치 평화가 깨지면 특공작전이 다시 자행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이와 같은 서술은 일본제국의 가해 역사와 전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평화라는 가면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들게 한다.

78\_ 박군섭. “神風特攻隊と知覽特攻平和會館の講法-日本の戦争と平和に對する誤った教え-.” 일본근대학연구 no. 49(2015):

79\_ 293-310. 木村正人. “「知覽からの手紙」(特攻隊員の遺書)は世界に伝わるか.” BLOGOS. 2014年 2月 27日.

80\_ 전쟁을 싫어하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

가미카제 특공대에 대해 진한 노스텔지어로 치장된 감상주의를 전 시하고 있다는 특징 또한 커다란 문제점이다. 특공작전으로 사망한 특 공대원이 지금의 고등학생~대학생들과 같은 나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서술하지만(사진 3), 일본의 젊은이들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몬 지도 부의 폭력성·몰인간성을 지적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사진 4). 지란 특공평화회관에서 온라인 피디에프 파일로 제공하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사전학습자료」의 서문에서도 몸체 공격을 진행한 특공대원에 대 해 “현재의 고등학생·대학생과 같은 세대의 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잃 었다”라고 강조하는 동시에, “전쟁이 끝난 이후로도 아픔은 계속되었 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은 언제까지라도 사라지지 않습니 다.” “전쟁은 정말로 아프고 슬픈 것입니다”라고 부가적으로 서술하여 평화회관 방문 전 사전교육자의 동정심을 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정말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전쟁에선 특공뿐 아니라 공습이나 원자폭탄 등으로도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라는 문구이다. 지란특공평 화회관에서는 특공을 공습, 원자폭탄과 동일선상에 나열하여 서술한 다. 특공이 자국 방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젊은이를 희생해야 했던 피 해 기억으로 적나라하게 둔갑하는 것이다. 특공은 ‘피해’의 기억인 공 습, 원자폭탄과 같은 맥락에서 비교되어선 안 된다. 왜냐하면 특공은 제국 일본의 연합국 함대에 대한, 또 국가의 자국민에 대한 ‘가해’의 기 억이기 때문이다. 가해의 기억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피해자 흉내 내 기에 급급한 지란특공평화회관의 편향된 서술은 결코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관람객에게 전달할 수 없다.

지란특공평화회관 공식 홈페이지 「관람객의 목소리」에 올라와 있 는 한 고등학생의 감상문에는 “매우 귀중한 유품, 그중에서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젊은 남성의 유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 국가를 믿었던 한 줄기 남자다운 모습은, … 한 명의 인간으로서 부여받은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은 (지금의 일본 중학생과는) 비교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이런 병사들의 생각을 더 이해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사진 5). 얼핏 보면 어머니의 존재를 가슴에 품고 특공작전에 나간 이들을 보며 감명받은 내용으로 보인다. 하지만 젊은 청년의 죽음이 국가의 강압에 따른 것인지 본인 마음에서 우러난 헌신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국가의 강압에 따른 특공대원의 죽음이 어떻게 전시되어 있기에 국가를 믿어 죽으러 나갈 수 있었던 한 줄기 남자다운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무엇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배운다는 것일까? 지란특공평화회관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특공작전이라는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특공작전에 출격하는 마음가짐을 배워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슬픔이라는 감정의 극대화를 유발하는 특공 기억의 편향적 서술은 관람객으로 하여금 과거에 대한 비판의식을 무디게 할 뿐 아니라 전쟁 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러한 왜곡된 구성 아래에서는 “공포·불안·광기·혼란 등의 감정에 휩싸인 표정이 아닌 특공대원의 ‘명경지수 같은 모습’에 감동하는 일본인”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박균섭, 2015). 지란특공평화회관의 전시가 감상주의에 편향된 전시로 남아 있는 한, 전쟁은 체험이 아닌 기념의 영역으로 변화하며 ‘평화’의 의미에 대한 성찰과 비판 또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와 평화교육

박근섭의 『가미카제 특공대와 지란특공평화회관을 읽는 법-일본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서는 ‘일본이 말하는 평화’가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평화와 다르다고 말한다. 논문을 끝까지 읽은 시점에서 이 말이 ‘중고등학생 정도 나이의 아이들이 희생된 끔찍한 일’이라는 점을 부각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평화를 논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이해했다. 그렇다면 이 잘못된 ‘평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나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평화주의<sup>81)</sup>에 주목했다. 일본이 전몰자의 영혼을 위로하며 그로부터 평화를 다짐한 건 시간을 거슬러 1950년, 과거 ‘반군’ 평화주의에서 ‘반전’ 평화운동으로 옮겨가던 시기였다.

먼저 반군 평화주의가 일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시기는 바로 전쟁 직후였다.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원류와 전개, 그리고 현재』(남기정 저)라는 역사비평에 따르면, 일본의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sup>和田春樹</sup><sup>82)</sup>는 전쟁 당시 수차례 있었던 공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일본군에서 비롯한 불신이 국민의 마음에 피어났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또한 전후 일본의 기틀을 닦았다고 평가되는 재상 요시다 시게루<sup>吉田茂</sup><sup>83)</sup>는 패전 직후 군부에 대한 악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군이라는 정치의 암을 절개하여 제거’하는 것을 전후 일본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로 꼽았다.<sup>84)</sup> 이러한 반군 감정은 1949년 『들어라, 와다쓰미의 소리를 きけ わだつみのこえ』(이하 『들어라』)의 출판 이후 더욱 커졌다고 한다.<sup>85)</sup>

『들어라』에는 전몰학도 75명의 수기가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 수기와 유고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군국주의와 전쟁에 대한

위화감 그리고 평화에 대한 희구의 감정을 숨김없이 토로했다는 사실이라고 한다. 특히 가해 명령에 대한 반감에서 반군 감정이 싹튼 예를 다수 볼 수 있다.<sup>86)</sup> 『들어라』는 1950년 일본 베스트셀러 4위에 올랐고, 이를 원작으로 한 동명의 영화는 2,015만 엔이라는 당시로는 경이적인 수입 기록을 올렸다. 이것은 많은 일반인에게 그들의 반군 감정을 전달하는 데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이미 잠잠히 이야기되지 않는 이 친구들의 고뇌와 무념을 회상하고 추도하는 것만으로 살아남은 우리 책임을 다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야스다 다케시의 투고문<sup>87)</sup>*

이후 1953년 11월 5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실린 생환 학도병 야스다 다케시(安田武)의 투고문을 계기로 전몰학도들의 군대 체험을 평화하지 말고 이를 부전의 서약으로 승화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한다. 나는 이것이 일본이 말하는 ‘평화교육’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일본의 평화교육을 보면 지란특공평화회관과 같은 곳에 방문해

81\_ 종교적인 사랑이나 자비의 입장 또는 인문주의의 입장에서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고,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전쟁에 양심적 병역거부, 반전운동, 대체복무제 등의 방법으로 반대하며, 무저항, 불복종운동 실천 등의 비폭력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인도의 사상가 간디의 비폭력사상 등이 평화주의에 해당한다.

82\_ 일본의 역사학자로 소련사와 한국의 현대사를 연구했다.

83\_ 일본의 제45, 48-51대 내각총리대신.

84\_ 남기정.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역사비평(2014): 102-103.

85\_ 남기정.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역사비평(2014): 104.

86\_ 남기정.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역사비평(2014): 105.

87\_ “(社説) 戦後79年に問う・戦争の犠牲にどう向き合うか.” 朝日新聞DIGITAL. 2024.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6011901.html>

전시를 보고 아픔을 되새기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국가에 의해 정해진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의 수명을 살지 못하고(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에 제 수명을 살지 못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전략적 죽음에 내몰렸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영혼은 사람으로서 동정해 마땅하다. 그러나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들이 몸체 공격이라는 전략에 동원된 당시 책임자는 ‘누구’인가이다. 처음에는 분명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으니 이 점을 잊은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죽은 사람이 강조되어 서서히 그 이유인 가해의 기억에서 시선이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가해의 기억이 점점 그 모습을 감추기 시작한 건 어떠한 경로로 일어난 것일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모하는 사람들 뒤에 서서 그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역사수정주의자들과 현재의 일본 정부가 이루어낸 합작품 아닐까.

### 특공/평화 이미지가 어떻게 정치계에서 이용되고 있는가?

지란특공평화회관을 비롯한 일본의 평화교육은 전쟁의 비참함과 허무함을 배우고 평화를 기원하자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전범 사실은 묵인하고 자국민이 전쟁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교육은 일본 우익 세력의 정치 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2023년 10월, 교도통신에 따르면 초당파<sup>超</sup> 黨派 의원 모임인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sup>88)</sup> 소속 의원들은 추계예대제<sup>秋季例大祭</sup> <sup>89)</sup> 이틀째 날에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집단 참배했다.<sup>90)</sup> 야스쿠니 신사는 A급 전범들을 포함하여 태



평양전쟁을 주도하고 참여했던 이들을 합사하여 추모하는 곳이다. 해당 장소에 참배하면서 전쟁의 비참함과 앞으로의 평화를 기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과거 일본이 행했던 전범 행위는 묵인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일본의 정신과 안보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평화헌법 개정, 역사 교과서 수정 등 전범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행각들을 보이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1) 가미카제 특공대 이미지의 왜곡

고이즈미 준이치로<sup>小泉純一郎</sup>는 수상 취임을 앞둔 2001년 2월 9일에 지란특공평화기념관을 방문하여 어느 소년 비행병의 편지 앞에 양손을 짚고 눈물을 흘리는 정치적 퍼포먼스를 벌였다. 그리고 2001년 5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입장 답변에서 태평양전쟁 당시 비행기에 몸을 실은 채 군함을 향해 돌진했던 가미카제 특공대를 거론했다. 야스쿠니 참배가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전쟁 희생자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총리로서 참배할 생각이라고 거듭 야스쿠니 공식참배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특공대원 우상화는 특공에 대한 본질적 문제점을 흐리게 만든다. 그 당시 일본제국은 최첨단 항공 기술에 대한 소년들의 동경심을 이용해서 자원입대를 유도하거나, 학도병 징집을 위해 징집 유예 연

---

88. 집권 자민당을 비롯해 일본유신회 등이 소속되어 있다.

89. 1년에 1회 또는 2회 그 신사에서 정해진 날에 행해지는 행사.

90. 신형철. "변하지 않는 일본...야스쿠니 집단 참배에 외교부 "깊은 실망"." 한겨레, 2023. 10. 18.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112566.html>.

령대를 낮추는 등 소년 비행병 인력을 다수 배출하도록 했다. 그 결과 10~20대 소년병들을 자폭 작전에 투입해 죽게 만들었다. 심지어 이들의 죽음을 이상화하여 프로파간다화했다. 국가를 위해 개개인의 목숨을 단순히 도구로 삼은 특공을 결코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명예로운 청년들의 모습으로 소비할 수는 없다.

## 2) 역사수정주의

1982년, 일본의 초·중·고교 역사 교과서에서 과도한 역사 왜곡 흔적이 보였다. 당시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16종 중 24개 항목, 167군데가 심각하게 왜곡된 것으로 나타났다.<sup>91)</sup> 일본의 한국 ‘침략’을 ‘진출’로, 외교권 박탈과 내정 장악을 ‘접수’로, 토지 약탈을 ‘토지소유권 확인, 관유지로 접수’로, 독립운동 탄압을 ‘치안유지 도모’ 등으로 왜곡하였다. 이외에 조선어 말살 정책을 ‘조선어와 일본어가 공용어로 사용’, 신사참배 강요를 ‘신사참배 장려’ 등으로 왜곡 기술하였다.<sup>92)</sup>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는 교과서 내용 수정을 요구했으나 1997년, 일본 우익단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출범하면서 2000년대 들어 역사 왜곡 교과서 8종이 검정에 통과되었다. 이렇듯 의도적으로 역사 교과서를 수정하는 시도를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 사실을 교육하려고 한다. 이런 왜곡된 역사교육을 받은 세대는 과거 일본이 저지른 전범 행위에 경각심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전범 행위를 반성하는 자세를 갖추지 못하게 된다.

이기용(2018)은 일본 우경화의 원인으로 장기불황을 지적하며, 장기불황이 일본인의 내면에 민족주의 정서를 심어주었다고 말한다.<sup>93)</sup>

일본 경제의 오랜 침체는 스스로를 피해자로 생각하고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 타국을 정복할 정도로 강한 자신감에 넘치던 자신을 상기하는 ‘회고적 민족주의’가 대두하게 만들었다. 우익인사들이 경제적 위기 상황을 타파하려고 ‘일본적인 것’, ‘일본다움’에 대한 자부과 긍지를 찾고자 하는 회고적 민족주의를 추구하였다는 것이다.<sup>94)</sup>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역사수정주의 또한 일본 내 국민에게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불어넣어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자 하는 보수세력의 의도로 보인다. 과거 일본이 저지른 전범 행위로 피해를 본 국가나 사람들의 고통은 무시한 채 자국민들에 대한 일본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마음가짐은 결코 일본을 발전시킬 수 없는 행보이다.

### 3) 평화헌법 개정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3년 현행 평화헌법 제9조를 개정하여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 자위대를 동원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평화헌법은 1946년 연합군사령부(GHQ)의 일본 점령 당시 천황제를 존속시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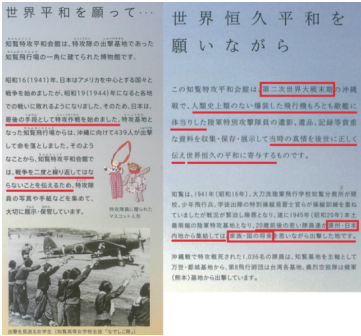
91\_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 국가기록원. 2006. 12. 1.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859&pageFlag=C&sitePage=1-2-2>.

92\_ 윤정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日本 歴史教科書 歪曲事件).”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4. 8. 18. 접속.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3858>

93\_ 이기용. “아베의 역사수정주의와 새 한일 관계의 정립모색-일본 역사인식의 본질과 해법으로서의 독일 역사 인식.” 日本思想 34호(2018): 217.

94\_ 이기용. “아베의 역사수정주의와 새 한일 관계의 정립모색-일본 역사인식의 본질과 해법으로서의 독일 역사 인식.” 日本思想 34호(2018): 217.

는 대신 군국주의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하려는 수단으로 제정되었다. 그중 제9조 제1항에는 일본이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써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제2항엔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이 들어선 후 2014년 7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에게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라는 새 헌법 해석을 도입하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sup>95)</sup> 아베 신조는 피폭 74주년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위령 평화기념식에서 원폭 희생자를 애도하고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실현하고자 하며 앞으로 평화를 기원한다는 연설을 한 적이 있다. 원폭 투하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나아가 일본 내 집단적 자위권 형성의 발판을 세운 것은 전혀 평화를 기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렇듯 평화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가해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다시 군국주의적 모습으로 뒷걸음질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사진 1〉 知覽特攻平和會館リーフレット  
(좌 이린이용, 우 일반)

特攻作戦では、パイロットは必ず死ぬことになりました。特攻隊員の多くが、今の高校生や大学生と同じ年ごろの人たちでした。

21.6歳	陸軍の沖繩戦における特攻作戦で亡くなった人の平均年齢。
17歳	特攻作戦で亡くなった若い人々の年齢。
約4,000人	第二次世界大戦中に行われたこの作戦によって、陸軍・海軍あわせて約4,000人が命を落しました。

〈사진 3〉  
「知覽特攻平和會館リーフレット(子供用)」  
p. 4

日本の子どもたちの感想

高校生

本館で行われた展覧会を見た。広巻を中心に、平和記念館を見た経験はありますが、ここが展覧会特攻隊員の「最後の帰郷」であったことを知りませんでした。大規模な展覧会、中でも最も大切な家ではない若い男性の遺物が数多くありました。母上と少年たちは母を待んでいます。そして「泣いてはくだけるな」と思い切っています。母の存在が兵士たちの命を助けてくれたこと、強く信じていました。母を待たないでほしいです。今日日本で、中学生が死ねば、自分中の人生を送ることに死んで、国を離れた。一般の男性らしい家は、今から探すといい経験ではありますが、一人の人間として必要なことへの思い入れはすべてにありません。平和を望むためには、このように兵士たちの命を助ける。二度と戦争が起きないための学習が必要だと思います。家族を最後まで思い続けたい。若い青年の死を犠牲にしたくないと思います。生きていることへの責任を再び考えたい。

〈사진 5〉 知覽特攻平和會館, 「來館者の声」

特攻作戦に至る経緯

第二次世界大戦は、1941年(昭和16年)12月8日、ハワイのオアフ島真珠湾にあるアメリカ海軍基地への奇襲攻撃によって開始されました。日本の陸・海軍主力は、真珠湾攻撃の後、東南アジアに進軍しました。戦況が佳く、また、当時東南アジアのほとんどの国が欧米列強の植民地となっており、現地守備隊しか現れていなかったこともあり、奇襲攻撃が成功し戦況は瞬時にオーストラリア支那の端まで進展しました。

ところが、1942年(昭和17年)8月になるとアメリカを中心とする連合軍が優勢を回復し反撃に転じました。その後の日本軍は連合軍の強大な戦力に押され自衛戦一方になり、開戦から3年後の1945年(昭和20年)初期になると、沖縄戦も含む日本本土を攻撃されるようになり、戦況は、特に1945年(昭和20年)5月7日、広島で投下された原子爆弾によって、日本の敗戦はほぼ決定するようになり、日本本土が戦線から引かれていくようになりました。

当時、日本政府は自衛戦の本意を隠蔽部と考えていたもので、その隠蔽部を守るために探られたのが、特攻作戦でした。

この段階では、経済的な困難から日本アメリカの敗戦を阻止する本意として、日本人一人の犠牲力を犠牲にした他に方法がないとの結論に達していた。

つまり、日本の軍人が犠牲になった犠牲者から見て、アメリカ軍にも水も油も不足を感ずるや、そうなるかと推測(戦争を感ずる気持ち)が広がって、お互いに特攻隊を出したくはなかった、そのうち敗戦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という勘繰を、政府はしていた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사진 2〉 知覽特攻平和會館  
「特攻作戦に至る経緯」

はじめに

約75年前、日本はアメリカをはじめとした国々と戦争を行いました。戦争末期には、戦に体当たりする特攻隊が作られ、現在の高校生・大学生と同じ世代の多くの若者が命を失うことになりました。

戦争では、特攻だけでなく、空襲や原子爆弾などで多くの人が亡くなり、傷つきました。また、戦争が終わっても悲しみは続き、大切な人を亡くした悲しみはいつまでも癒えることがないまま残ります。戦争は本当に辛いものです。

知覧特攻平和会館は、戦争の歴史と、平和の大切さを伝えることを目的として、沖縄で行われた特攻隊特攻戦で亡くなった特攻隊員の犠牲や苦しみなどを展示しています。それは多くは、特攻隊員が出す直前に、愛する家族や友人、友人に宛てて書き残したものです。それは、戦争の記憶を風化させないという連帯や悲しみの願いによって、知覧特攻平和会館に託されました。

会館では、今も戦争や平和が語られています。世界の平和のために私たちは何をすべきか、知覧特攻平和会館を訪れて、考える機会を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

〈사진 4〉 知覽特攻平和會館,  
「高中生向け事前学習資料」 p. 1



〈사진 6〉 特攻隊員(時枝宏少尉)の遺骸への手紙  
모 소학생이 특공작전에서 전사한 時枝宏少尉의 유족에게 보낸 손편지(출처: 知覽特攻平和會館  
온라인뮤 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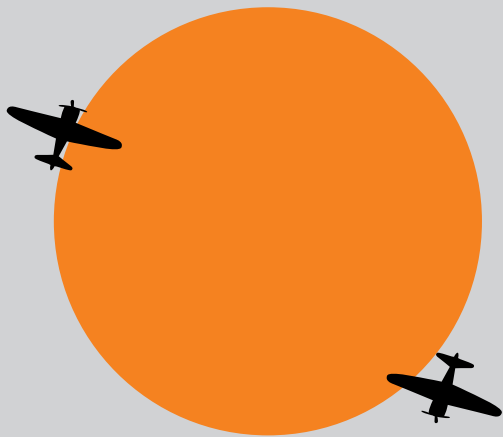
95\_pmg 지식엔지니어스. "일본 헌법 제9조." 네이버 지식백과, 2017. 12. 28.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40322&cid=43667&categoryId=43667.



## 제2부

# 천리길의 두 걸음, 현지교육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 현지교육 ③



Chapter  
01



# 우리가 분석한 가미카제 특공대

---

2024년 2월, 우리는 가미카제 특공대에 대해  
직접 보고 경험하려고 규슈로 향했습니다.

이때 방문한 지란특공평화회관,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  
반세특공평화기념관에서 대원들의 유서와 유품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장은 이때 우리가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토대로 나름대로  
가미카제 특공대를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 가미카제 특공대와 만화 〈진격의 거인〉 속 유사성과 딜레마

---

여현정

---

이번 규슈 현지조사는 ‘가미카제 특공’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3박 4일에 걸쳐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 반세특공평화기념관 그리고 지란특공평화회관을 방문했다. 특공대에 대한 사전 공부를 거쳐 직접 체험한 현지조사는 많은 생각과 감정이 새롭게 일어나는 깊이 있는 경험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미카제 특공대원과 만화 〈진격의 거인〉의 주인공 ‘에렌 예거’ 사이에서 유사성을 느꼈고, 만화를 즐겨보는 나에게 큰 충격과 신선함을 안겨주었다. 지금부터 가미카제 특공대원과 에렌이 어떤 면에서 유사하다고 느꼈는지, 그리고 이로써 느낀 딜레마를 상세히 설명해 보고자 한다.

*만화 〈진격의 거인〉은 인류가 거인이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위협에 직면한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 거인들은 사람을 먹는 것이 특징이*

며, 인류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인 안전한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주인공 '에렌 예거'는 어느 날 갑자기 벽이 붕괴되면서 거인들로부터 고향과 평화를 빼앗기게 된다. 에렌이 인류를 거인의 위협으로부터 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벽 밖을 탐험하며 거인과 맞서 싸우는 '조사병단'이라는 군대에 합류하면서 '에렌(조사병단) 대 거인'의 이야기가 진행된다.〈줄거리 1〉

먼저, 성격적 측면에서 가미카제 특공대원과 〈진격의 거인〉의 에렌 사이의 유사성을 들여다보면, 두 주체 모두 강한 의지와 희생정신이라는 공통된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희생과 헌신

가미카제 특공작전은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려고 시행했던 자살 공격으로, 특공대원들은 전쟁에서 일본을 지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하여 적함을 공격했다. 이들은 높은 사명감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일본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다.

〈진격의 거인〉의 에렌 또한 유사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한다. 인류가 거인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했고, 거인과 맞서 싸우며 필요한 경우 자기 삶과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는 인류의 생존과 해방을 위해 서슴없이 나서거나 자신을 미끼로 사용하는 등 여러 차례 위협에 빠졌고, 결국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큰 희생을 감수한다.

## 강한 의지와 결단력

특공대원과 에렌의 희생은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바탕으로 눈에 띄는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동료들의 죽음,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심리적 고통 그리고 가족과 이별 등 어려운 상황에도 특공대원들은 일본의 승리를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전진했다. 이들의 굳은 결심은 특공기념관에 보관된 유서와 혈서에서 엿볼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에렌 역시 자신의 의지와 믿는 길을 따라 고향과 친구들 그리고 인류의 안녕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행동했다.

에렌과 조사병단은 벽 밖의 세계를 탐험하고 거인들과 싸움을 이어가면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벽으로 둘러싸인 이들의 세계가 거인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마지막 피난처라고 믿어왔지만, 실상은 벽 밖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마지막 남은 인류라는 믿음 속에 고립된 채 살아왔다. 벽으로 둘러싸인 곳은 세계로부터 '파라디섬'이라고 불렸으며, 세계는 그들을 적으로 여기고 있었다. 파라디섬의 주민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인류의 마지막 생존자라고 믿으며 고립된 삶을 살아왔지만, 실제로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복잡한 역사적·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이 외부 세계가 파라디섬의 존재를 위협으로 인식하며, 에렌과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의 삶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더욱 어려운 싸움에 직면하게 된다. <줄거리 2>

앞서 서술한 에렌과 거인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파라디섬의 에렌

과 세계의 관계 그리고 특공대원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또 다른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사이의 연결 고리는 싸움의 목적 그리고 그 싸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 신념과 정의

에렌은 파라디섬의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해방을 사명으로 여겼다. 그의 싸움은 단순한 거인 퇴치를 넘어 자신들을 고립시키고 억압하는 외부 세계에 맞서는 것을 포함한다. 에렌은 이러한 싸움은 불가피하며 때로는 평화를 넘어서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파라디섬을 제외한 외부 세계에 대해 거대한 거인들이 짓밟는 ‘땅울림<sup>96)</sup> 97)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선택하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었다.

마찬가지로, 특공대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직면한 군사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자살 공격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하는 선택을 했다. 그들의 선택은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었으며, 이는 신념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에렌과 특공대원들의 결정은 그들이 믿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의 행동은 개인의 희생이 더 큰 이상과 목표를 위한 필수 요소임을 보여준다.

### 공동체에 미친 영향

에렌과 파라디섬 그리고 특공대와 일본 사회의 관계는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에렌은 고향과 동료들 그리고 파라디섬을 지키려고 자신을 미끼로 하여 벽 밖의 사람들을 학살

했다. 그리고 이것이 파라디섬의 미래와 진정한 자유를 얻는 필수 경로이자 필요악이라고 믿었다. 또한 자신이 악을 자처함으로써 파라디섬의 평화를 위하고 거인의 힘을 없애려고 동료이자 소꿉친구 ‘미카샤’가 자신을 죽이도록 설계했다. 결과적으로 에렌을 죽인 파라디섬의 ‘조사병단’은 영웅이 되었고 파라디섬은 거인과 세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진격의 거인>의 독자 시선에서 볼 때 에렌의 희생은 영웅적 면모를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특공대원들은 자신의 몸을 던진 희생으로 적함을 파괴함으로써 연합군의 많은 군인이 사망하고 다쳤지만, 자신들의 행동과 선택이 일본이 승리한다는 미래를 보장하고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믿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들의 선택은 일본 사회에 충성과 희생을 상징하는 존재로 강한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일본인에게 영웅적인 인물로 회자되고 있다.

에렌과 특공대원들의 행동은 개인이 자신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큰 목적을 위해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렇듯 현지조사에서 찾은 가미카제 특공대원과 에렌 사이의 유사성은 단순한 행동의 유사성을 넘어, 그들이 지닌 신념의 깊이와 그에

---

96\_ 파라디 섬 내의 방벽 안에 잠들어있던 수십만의 방벽 내부의 거인들이 고열의 증기를 내면서 빠른 속도로 진격해 주위의 모든 걸 짓밟아 학살하고 파괴하는 기술로, 세상을 싹 다 깨끗하게 밀어버리는 전무후무한 대 학살극을 일으킬 수도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땅울림." 나무위키. 2024년 8월 11일 접속. <https://namu.wiki/w/%EB%95%85%EC%9A%B8%EB%A6%BC>.)

97\_ 파라디섬 내의 방벽 안에 잠들어 있던 수십만의 방벽 내부의 거인들이 고열의 증기를 내면서 빠른 속도로 진격해 주위의 모든 걸 짓밟아 학살하고 파괴하는 기술로, 세상을 싹 다 깨끗하게 밀어버리는 전무후무한 대 학살극을 일으킬 수도 있는 기술이다("땅울림." 나무위키. 2024년 8월 11일 접속. <https://namu.wiki/w/%EB%95%85%EC%9A%B8%EB%A6%BC>).

따른 행동의 의미와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선택과 행동은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목숨 건 희생에 대한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를 제기함으로써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 가미카제 특공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른 딜레마

현지조사를 다녀온 후, 가미카제 특공대와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오히려 현지 경험은 찝찝함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남겼다. 이전에 조선인 특공대원을 주제로 목포 현지 조사를 다녀왔을 당시 내가 느꼈던 감정은 ‘안타까움’이었다. 반면, 규슈 현지조사는 복잡한 마음이 드는 스스로에게 위화감이 들었다. 이러한 혼란스러움은 아마도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 한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특공사<sup>特功死</sup>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 반세특공평화기념관, 지란특공평화회관에 들어서면 첫눈에 특공사한 특공대원들의 사진이 보인다. 그들의 사진과 모습을 보는 순간, 마치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안타까우면서도 불편했다. 유언장과 혈서, 일기들로 가득한 기념관들의 전체 분위기는 ‘일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안타까운 영웅들’을 기리는 장소 같았다. 그중 기념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은 강아지를 안고 웃고 있는 특공대원들이 담긴 사진이었다. 이 사진의 설명에 따르면 ‘출격 전 강아지와 놀았던 특공대원들의 일상적 순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위화감이 들었던 기억이 있다. 특공대원들이 출격 전, 강아지라는 한 생명을 웃으며 바라보고 안고 있는 모습과 그 뒤에 숨겨진 명예로운 희생이라는 이름의 비극이 대조되면서 복잡한 감정을 일으켰다. 이 사진이 일본 내에서 특공대

이미지를 미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하려는 의도는 아닌지에 의문이 들었다.

지란특공평화회관에서 인상 깊었던 그림이 있다. ‘지란 진혼의 부  
知覽鎮魂の賦’라는 작품으로, 불에 타고 있는 전투기에서 특공대원의 영혼  
을 선녀 6명이 구해 승천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 평화회관 내 전시  
관에 들어서기 직전에 전시해서 눈길을 끌었고, 특공대원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과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특공대원들의 결단력과 희생  
정신이 숭고한 행위로 여겨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쟁의 비극 그리고  
무의미한 희생을 상징하는 듯했다. 하지만 ‘목숨을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안타까움을 자아  
내며 묘한 감정이 들게 한 작품이었다.

앞서 설명했듯이, 현지조사에서 특공대원을 바라보며 <진격의 거  
인>의 에렌과 유사함을 느꼈다. 하지만 특공대원에 대해 현지에서 느  
꼈던 이상하고 불편한 감정은 <진격의 거인>을 감상하면서 에렌에게  
서 느낀 감정과 달랐다. 내가 느꼈던 에렌에 대한 감정은 ‘안타까움’  
과 ‘슬픔’이었다. 에렌이 벽 밖의 세계에서 저지른 수많은 잘못된 짓  
은 채 파라디섬과 동료들을 위해 희생한 에렌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장 크게 여운이 남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에렌  
이야기가 주인공 관점에서 진행되면서 그의 고통과 선택이 극대화되  
고 정당화되는 전개 방식이 이러한 감정 차이를 만든 것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관점에서 특공대원의 죽음이 안타까워 보이는 것  
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되기 시작했고, 이것을 문제라고 쉽게 비판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나 역시 일본인이었다면 객관적  
으로 바라보기 어려웠을 것 같다.

## 〈진격의 거인〉의 작가는 특공대를 미화했을까?

그렇다면 작가는 ‘특공’에 어떠한 입장일까. 특공대원을 에렌에게 투사해 영웅적 면모를 강조하여 미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진격의 거인〉에도 특공대원들처럼 자살 공격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수많은 거인을 앞에 두고 조사병단은 죽을 각오로 계속 앞만 보고 나아가는 장면이 있다. 그들은 죽을 걸 알면서 죽을 각오로 진격했다. 자살 돌격 전, 조사병단 단장 엘빈은 병장 라바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린 거의 다 죽을 거야. 아니 전멸할 가능성이 높겠지. (중략) 그러면 저 젊은이들에게 죽어달라고, 최고의 사기꾼처럼 뻔뻔한 소리를 늘어놓아야 해.” 이 대사로 알 수 있는 점은 작가는 자살 돌격에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저 젊은이들에게 죽어달라고 최고의 사기꾼처럼 뻔뻔한 소리를 늘어놓아야 해”라는 말이 특공대원들에게 출격 명령을 내린 고위 간부들을 비판하는 의견임을 알 수 있다. 〈진격의 거인〉에서 ‘엘빈’이라는 캐릭터는 아군이자 최고의 인재로 평가받는 인물로 묘사되는데, 그의 입에서 자살 돌격에 대해 비판적인 말이 나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결국엔 벽 안의 모든 늙은이와 어린아이까지 자살 돌격을 시키겠지. 보나 마나 명예로운 죽음이니 뭐니 떠들어 대면서, 발상 자체가 원 패턴인 빈곤한 놈들. 웃기고 자빠졌어.” 당시 적군이었던 ‘지크’라는 인물이 자살 돌격을 바라보며 한 대사이다. 아군과 적군 캐릭터에게서 동시에 이러한 대사가 나온 점을 빗대어 보았을 때, 작가는 가미카제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문이 생겨났다. 작가는 왜 조사병단의 자살 돌격 장면을 넣었을까. 작중 조사병단이 자살 돌격을 실행한 이유는 당시



자살 돌격 말고는 거인으로부터 인류가 살아남을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미카제 특공 또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 “거인을 멸망시킬 수 있는 건 악마야!” 조사병단의 자살 돌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프록’이라는 인물이 살아남은 직후 한 대사이다. 프록이 말하는 ‘악마’는 무모하고 극단적인 자살 돌격을 진행한 단장 ‘엘빈’을 의미한다. 그는 거인을 멸망시키려면 악마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가미카제 특공과 빗대어 보았을 때, 특공대원을 출격시킨 고위 간부는 일본의 관점에서는 악마임에도 필요했던 인물이었을까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진격의 거인〉에는 자살 돌격 외에도 가미카제를 연상시키는, 자살 전술 장면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들을 그려냈다는 이유로 가미카제를 미화했다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독자로서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그들을 정당화하는 대사도 없었다. 작가는 가미카제 특공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며 자살 돌격·전술 장면을 어떤 마음으로 그렸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 의문이 들고 혼란스러웠다.

이번 현지조사에서 가미카제 특공대원과 〈진격의 거인〉 속 설정과 인물 사이의 유사성을 탐구함으로써 그들로부터 느낀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지만, 특공대원들의 죽음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의 해답은 여전히 찾지 못했다. 그만큼 간단히 판단할 수 없고 어려운 주제 같다. 이러한 모순적인 감정을 경험하며 가미카제 특공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이번 규슈 현지조사는 더 객관적이고 다면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발전시켜준 귀중한 경험이었다.

---

# 특공대의 이미지와 그 활용에 대한 고찰

: 매체에서 다뤄지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

신현주

---

## 특공대원을 통해 평화를 기원하자?

가미카제<sup>神風</sup>는 1944년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 군부가 시행했던 자폭 공격이자 이를 위해 조직된 특공대를 말한다. 군부는 지속된 전쟁으로 인력이 부족해지자 육군 소년비행 학교의 훈련 기간을 줄이거나 입대 연령을 10대까지 낮췄다. 그렇게 모집된 대원들은 제로센을 타고 적진에 돌진하여 자폭하였다. 가미카제 특공대를 편성한 이래 특공대원 약 1만 명이 전사했는데, 그중에 조선인 특공대원이 18명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 규슈 지역에는 태평양전쟁 시기 가미카제 특공작전을 펼친 장소가 여럿 존재한다. 그중에 다치아라이 육군비행학교, 반세비행장, 지란특공기지 등이 있다. 전쟁이 끝난 이후 특공작전으로 목숨을 잃은 청년들을 애도하려고 이 장소들을 중심으로 기념관이 세워졌다. 그중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특공영화 <호타

루)의 로케이션 장소인 지란특공평화회관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전시관은 당시 사용했던 전투 병기와 특공대원의 유품 및 사연, 지란 마을에 살던 주민들의 삶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대원 각각의 이야기를 가이드 태블릿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대원들의 사연은 다양했는데, 그중 후지이 하지메<sup>藤井一</sup> 소령의 이야기는 여러 의미로 인상 깊었다. 자신이 가르치던 훈련병들이 차례차례 작전에 투입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그 뒤를 따르기를 바랐지만, 자격이 되지 않아 여러 번 기각되었다. 그러나 그는 굳은 의지로 계속 지원을 희망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자신이 남편의 발을 붙잡지 않으려고 먼저 저승에서 기다리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녀와 함께 자살했다.<sup>98)</sup> 이후 후지이 소령도 가미카제 작전에 투입되어 전사했다. 자신과 가족의 목숨까지 내던지면서도 나라를 지키고 싶었던 그 생각을 내가 과연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당시 일본 대본영은 ‘일억육쇄<sup>億玉碎</sup>’<sup>99)</sup> 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민 전체가 목숨을 다해 나라를 지키자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었다. 그만큼 대본영에는 국민의 목숨보다 전쟁의 승리가 중요했다. 전시관에 들어가면 특공작전을 펼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글이 있다. 태평양전쟁으로 미군과 전투를 벌이던 때, 일본은 방어전을 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특공작전을 실행했다고 적혀 있다. 전후 과정이 드러나지 않아 마치 미군이 지속적으로 일본을 공격하여 이를 막으려고 특공작전을 세운 것처럼 느껴졌다.

98. “資料名：遺書・手紙類(掛軸).” 知覧特攻平和会館 홈페이지. 2024년 3월 29일 접속. [https://www.chiran-tokkou.jp/digital\\_archive/25](https://www.chiran-tokkou.jp/digital_archive/25)

99. 태평양전쟁 중 일본군들이 내세운 슬로건 중 하나. 여기서 육쇄는 육처럼 깨져 흩어진다는 뜻으로 대의와 명예를 위해 목숨을 버쳐 깨끗하게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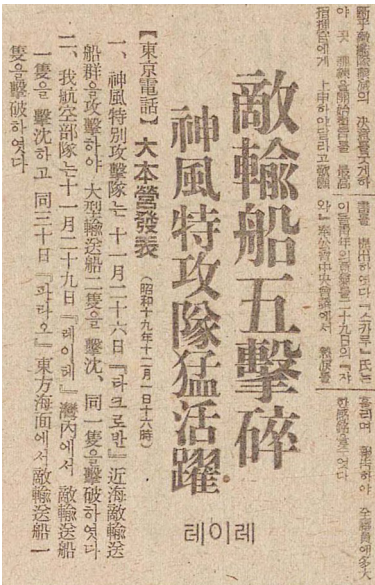
그러나 태평양전쟁은 1941년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 미군 기지에 공격을 가한 것이 시발점이다. 이후 일본은 계속 패전을 겪으며 인력과 물자가 부족해져 항복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특공작전을 펼쳐 청년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전쟁을 끌고 나아갔다. 만약 이런 과정을 공부하지 않고 전시관을 관람했다면 특공대원을 단순히 ‘죽을 각오를 하고 자국을 지키려고 했던 일본 청년들’이라고 인식했을 것 같았다. 실제로 지란특공평화회관 구글 지도 방문객 후기를 보면 그들의 희생이 있어서 지금의 일본이 있을 수 있었다, 그들을 기억하여 현재의 평화에 감사하며 살겠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전시된 대원들의 사연이나 유언장들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느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특공대원은 가미카제 공격으로 살상 피해를 일으키고 대일본제국의 침략행위에 가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을 통해 과연 ‘평화’를 기원해도 되는 것일까? 언제부터 그들은 평화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책이나 신문, 인터넷이라는 대중매체에서 정보를 찾는다. ‘매체’가 이미지를 만들고 그에 대한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준다. 나는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해, 특공대원의 이미지가 매체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조사해 보고자 한다. 또한 그 이미지가 일본 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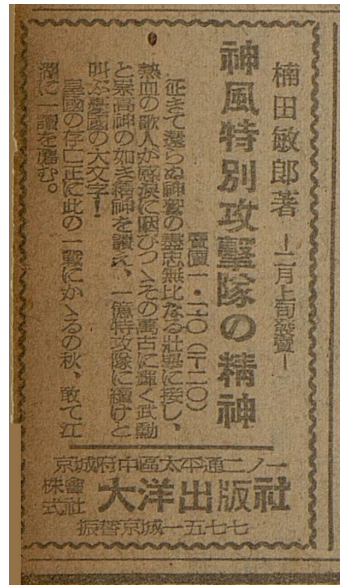
### 태평양전쟁과 패전 그 직후 특공에 대한 이미지

태평양전쟁 당시에는 가미카제 특공대원은 군신으로 불렸다. 그 시초는 이렇다. 진주만 공격 3개월 후인 1942년 3월 6일大本영은 진주만 공격에 참가한 특수잠항정 다섯 대의 승무원 아홉 명의 죽음을 발표했다. 그에 맞춰 신문들은 승무원 아홉 명을 구군신(九軍神)으로 추

양하고 구군신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이를 시점으로 육군에서 1942년 5월 22일 벙골만 상공에서 자폭한 가토 야스오<sup>加藤建夫</sup> 육군중좌를 2계급 특진해 소장으로 진급시켰다. 이후 7월 23일부터 신문들은 일제히 ‘하늘의 군신’, ‘하늘의 미야모토 무사시<sup>宮本武藏</sup>’로 보도하기 시작했다.<sup>100)</sup> 이전부터 일본군은 전투 중 전사한 군인들을 군신이라는 지위로 높이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가미카제 특공대한테도 적용됐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당시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7〉 「적선 5척을 격파하다, 가미카제 특공대 맹활약」



〈사진 8〉 책 『가미카제 특공대의 정신』 광고

100\_ 이형식, “태평양전쟁시기 제국 일본의 군신만들기-『매일신보』의 조선인특공대(神鷲) 보도를 중심으로-.” *日本學研究* 37(2012): 193-217.

레이테만 해전에서 특공대가 적군의 수송선을 돌격해 자폭한 기사를 써서 특공대원의 활약상을 보여주고 대일본제국을 위해 출격하는 그들의 희생정신을 책으로 쓰기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진 9>와 같이 그들이 적진에 돌격하는 모습을 영상화하여 전국적으로 상영해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sup>101)102)103)</sup>



<사진 9> 「가미카제 특공대의 전투 모습 영화화」

이처럼 당시 언론에서는 특공대원을 이른바 국가 영웅으로 칭송하였다. 자폭행위를 숭고한 정신으로 포장해 보여줬으니 사람들이 그들을 우상의 대상으로 삼았던 게 당연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패전 이후 특공대 기사 투고는 잠잠해져 매체 속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이후 1949년 일본전몰학생기념회에서 『들어라, 와다쓰미의 소리를』이라는 학도병 유고집을 발행한 뒤로 다시 대중 위로 떠올랐다. 책은 출격을 앞두고 밀려오는 공포와 고뇌, 군부에 대한 의문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위를 바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특공대원의 인간적인 면에 집중하게 된다. 이후 특

공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등장하는데, 위기에 빠진 일본을 지키기 위한 순국을 표현하거나 특공이 전략적·역사적으로 무의미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강조해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찰을 표현하는 등 여론이 갈라지곤 했다.<sup>104)</sup>

### 패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특공대원의 이미지

시간이 흐르면서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의 수는 줄어들고 이후 세대는 타인의 언어로 전쟁을 기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공에 대한 인식과 매체가 그 전과 다른 모습을 띠게 되는데 예시로 2001년 영화 <호타루>를 들 수 있다.

이 영화에는 조선인 특공대원 ‘김선재’가 등장한다. 영화에서 김선재는 같은 특공대원인 ‘야마오카’에게 자신은 대일본제국을 위해 출격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에 있는 가족과 자신의 일본인 약혼자를 위해 적함을 격침할 것이라는 유언을 한다. 야마모토는 그의 유언을 한국의 유족들에게 전해주고 이후 한국인 유족들은 그들을 집에 맞이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과거의 슬픔을 억누르며 현재를 살아

- 
- 101\_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敵輸船 五擊碎-神風特攻隊猛活躍-레이티"(1944).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5226891&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5226891&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
- 102\_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광고, 神風特別攻撃隊の精神"(1945).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130749697&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130749697&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
- 103\_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神風攻撃隊 奮戰映畫化"(1944).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5225407&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5225407&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
- 104\_ 이영진. "광신과 애국 사이: 전후 일본 영화에 비춰진 특공의 표상." 일본연구논총 no. 40(2014): 39-72.



〈철도원〉이후 2년, 다시 찾아온 눈물과 감동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사진 10〉 영화 〈호타루〉 포스터

가는 전 특공대원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후반부는 ‘조선인 특공대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식민지 조선의 입장을 조명해 이전 특공 영화와 다른 서사구조를 다뤘다. 이는 마치 식민 지배를 당한 조선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 화해의 손길을 건네고 싶다는 것처럼 느껴졌다.

〈호타루〉를 비롯한 오늘날의 일본 매체에서 그려지는 특공대원은 한 가정의 자식이나 연인 등 우리 일상에 있는 평범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위와 평화를 기원하며 출격에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구조가 자주 나타나며, 더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반전<sup>反戰</sup> 메시지를 담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일본 내에서 특공대원을 평화의 이미지로 바라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주체는 누구였는가? 전쟁 피해와 희생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작 자국의 전범 책임에 대한 반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특공대원의 이런 평화 이미지를 이용하여 일본 정부는 전범 행위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sup>小泉純一郎</sup>는 2001년 5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견해를 묻자 가미카제 특공대를 거론했다.<sup>105)</sup>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전쟁 희생자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총리로서 참배할 생각이라고 거듭 야스쿠니 공식 참배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1869년 메이지 천황이 건설한 신사로 전쟁에 참여했다 죽은 이들을 기리고 애도하는 장소이다. 이 중에는 A급 전범들을 포함해 태평양전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이들이 합사되어 있다. 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인 병사들도 이곳에 같이 합사되어 있는데, 일본 정부는 한국의 유족들에게 이들의 합사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유족들에 대한 보상 또한 없었다고 한다.<sup>106)</sup> 고이즈미를 포함한 일본 내 보수세력은 해당 장소에 참배하면서 전쟁의 허무함과 앞으로의 평화를 기원한다고 하지만, 과거 일본이 행했던 전범 행위는 묵인하고 있다. 아울러 당시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으니 이 ‘평화’에 더욱 모순을 느꼈다.

---

105\_ “고이즈미, “힘들 때 가미카제 생각.” 연합뉴스 2001년 5월 22일. <https://www.yna.co.kr/view/AKR20010522000300073>

106\_ “2. 역사문제: 야스쿠니 신사 문제.” 동북아역사넷. 2024년 8월 23일 접속. [http://contents.nahf.or.kr/item/level.do?levelId=eadeah.d\\_0006\\_0050\\_0020\\_0020](http://contents.nahf.or.kr/item/level.do?levelId=eadeah.d_0006_0050_0020_0020)

## ‘평화’의 이미지로 이용된 가미카제 특공대

진주만 공격을 시점으로 태평양전쟁 시기, 가미카제 특공대의 행보가 각종 신문과 라디오 매체를 통해 선전되었다. 제로센을 타고 용감하게 적진에 돌격하는 희생정신을 드높였고 사회 내에서 그들은 군신으로 불렸다. 패전 이후 유고집을 통해 소년 학도병들이 출격 전에 짊어지고 있던 감정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들의 인간상을 그리는 매체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에 이어져 특공대원들을 ‘소중한 이들과 미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청년들’로 탈바꿈하여 평화를 기원하자는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런 이미지를 통해 대일본제국이 저지른 학살과 침략의 역사를 망각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당시 대본영과 천황에 대한 비판의식이 결여되고 그들 때문에 피해받은 식민지 민족들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결코 그때 특공대원에 지원했던 청년들이 바라던 평화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그 당시 가미카제 특공대원은 시대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였지만 일본제국이 대동아공영권<sup>10)</sup>을 결성하기 위해 저지른 전쟁 범죄 행위에 이바지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 안 된다. 그렇기에 일본은 그때의 군부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그 당시 일본 정부에 지배당하고 착취당한 피해국에 원죄를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한국인인 나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2023년 12월에 있었던 목포 워크숍을 시작으로 가미카제 특공대원에 관해 공부해 왔다. 일본제국을 위해 전쟁에 참여했지만, 당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나 상관의 압박으로 반강제적으로 입대했을지도 모른다. 그 시대 상황이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고 생각한다. 특공대원에

는 일본인뿐 아니라 조선인도 있었는데, 이들 몇몇은 생계를 위해서 혹은 강제로 징집되어 특공대원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일본제국을 위해 작전에 나섰다는 점은 비록 좋게 바라볼 수 없지만, 당시 죽어서도 조선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해방 이후 조국에서도 그들과 유가족들이 친일파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씁쓸한 감정이 들었다. 현재까지도 특공대원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단순히 흑백논리로 접근하기에는 복잡한 문제인 것을 느꼈다. 그저 당시 시대에 휘말려 목숨을 잃은 젊은 청년들의 영혼을 위해 묵념할 뿐이다.

---

107\_ 종일 전쟁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일제가 아시아 대륙 침략을 합리화하려고 내세운 정치 구호.

Chapter  
02



## 우리가 생각한 일본과 평화 그리고 가미카제

---

우리는 가미카제 특공대와 관련된 사료를 직접 보고 나니  
무언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이번 장은 답답함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 감정,  
의문을 우리의 언어로 차근차근 풀어낸 과정을 담았습니다.

---

# 가미카제가 이런 식으로 소비되어도 될까

---

김혜진

---

## ‘평화’의 이미지로 이용된 가미카제 특공대

2020년, 인기리에 방영된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당시 방영이 끝나지 않은 것을 매주 한 편씩 꼭 챙겨본 기억이 있다. 〈주술회전〉의 뛰어난 작화와 대중을 사로잡은 스토리는 사람들이 시즌 2를 기다리게 했다. 나 또한 그랬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2022년 2월에는 극장판 〈주술회전 0〉가 상영되었고 엄청난 흥행에 더불어 시즌 2를 향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술회전〉 시즌 2는 2023년 7월 방영을 시작했다.

시즌 2를 매주 즐겁게 감상하던 중 14화를 보고 알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 이는 바로 등장인물 중 한 명이 쓰는 공격 기술 때문이었는데, 해당 공격의 이름은 ‘バドストライク(Bird Strike)’로, 기술 시전자의 힘을 이용해 까마귀를 적에게 돌진하게 해서 공격하는 기술이었

다. 즉, 자폭 공격인 것이다. 이 장면을 보자마자 문득 가미카제 특공대가 떠오르며 묘한 갑갑함을 느꼈다. 해당 장면 이후 ‘까마귀에게 자살을 강요하고…’라는 설명 격 대사를 덧붙인 데다 심지어 원작 만화에서는 무려 기술명을 ‘神風’이라 적고 ‘バドストライク’라고 읽기까지 했다. ‘神風’을 ‘신평’ 혹은 ‘가미카제’로 읽는 점을 생각하면 분명 가미카제 특공대를 모티브로 한 기술임을 알 수 있다.

혹시 ‘나만 이런 불편함을 느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해당 회차의 반응을 살펴보니 애니메이션이 방영되기 전에 원작 만화를 읽던 사람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해당 부분을 불편해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나는 같은 생각을 품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그 불편함을 애써 무시한 채 애니메이션을 끝까지 시청했다. 이때 느꼈던 불편함의 정체에 접근하게 된 건 그로부터 약 두 달 후, ‘2023 일본학연구소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면서부터이다.

### 가미카제 특공대란

가미카제는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본군이 연합국 함대에 시도한 비행기 자폭 전술을 뜻한다. 일명 특공이라고 하는 이 전술의 조종사들을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한다.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전에 이 정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러나 그저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전술이었다’ 정도로 기억하고 넘겼던 가미카제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게 된 건 워크숍 덕분이었다.

워크숍에 참여한 우리는 한국에 남아 있는 일제강점기의 흔적을 찾아다녔다. 목적지는 목포, 군산, 용인 세 곳으로, 이 중 용인 법륜사

에는 조선인 가미카제 특공대원 탁경현의 위령비가 있었다. 일본인 배우 구로다 후쿠미 씨는 탁경현의 고향인 경남 사천에 위령비를 건립하려 하였으나 사천시의회를 비롯해 광복회 경남지부, 사천진보연합 등 시민단체와 여론의 반발로 결국 용인 법륜사에 안치하게 되었다.

용인 법륜사에서는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주신 주지 스님께 위령비를 세운 당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주지 스님께서서는 탁경현이 일본군에 입대했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넋을 기리고자 위령비를 안치했다고 한다. 2023년 12월 방문 당시, 위령비 상단의 삼족오는 따로 세워져 있고 비신은 반쯤 묻혀 있어 그 뒷모습은 볼 수 없었다.

주지 스님의 말씀은 이전까지 가미카제가 그저 일본군의 반인륜적 공격 전술이라고만 생각했던 내게 많은 생각이 들게 했다. 조선인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은 일본군 소속으로 자살 공격을 명령받아 폭탄을 실은 항공기에 몸을 실었다. 이것은 총을 들고 전선에 나서는 여타 군인들과는 다르다.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죽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죽기 위해 출격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이 작전을 명령받았다면 어땠을까. 반드시 죽음이 뒤따라온다는 공포에 아무것도 못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감히 그들의 감정을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탁경현이 그저 일본군이라는 사실 때문에 넋을 기리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워크숍 이후 약 두 달이 지난 뒤 참여한 현지교육에서는 서정완 연구소장님께서 이런 내 생각을 듣고 그들은 ‘군인’이기에 그저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 그렇다, 그들

은 군인이었다. 상명하복, 명령에 공포감을 느껴서 아무것도 할 수 없  
어선 안 됐다. 이를 다르게 해석하면, 그들은 일반인처럼 그 공포감을  
내비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공포로 속이 문드러져도 한탄할 수조차  
없는 심정은 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 가미카제가 평화의 초석이라고?

현지교육 프로그램으로 간 규슈에서는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 반  
세특공평화기념관, 지란특공평화회관(이하 각각을 ‘다치아라이’, ‘반  
세’, ‘지란’으로 칭함) 총 세 군데 평화기념관을 방문했다. 이 세 곳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평화와 특공을 함께 언급한다는 점이다. 나는  
이에 의문을 느꼈다. 과연 가미카제가 평화와 나란히 있을 수 있는 단  
어가 맞는가? 상술한 세 기념관은 모두 특공에 사용된 전투기를 자랑  
스러워하고 가미카제 특공대원을 아름답게 꽃피고 지는 사쿠라(벚꽃)  
에 비유하는 등 그들의 죽음을 더욱 숭고한 무언가로 대했다. 가미카  
제 특공대원의 죽음이 있었기에 평화가 올 수 있었다고 말이다.

세 평화기념관 중 ‘다치아라이’의 경우 평화기념관이라고 하기엔  
비행기와 그 역사 이야기가 많아 처음엔 이곳이 평화기념관인지, 비  
행기 역사박물관인지 헷갈렸으나 기념관에서 서술하고 있는 제로센  
108)과 특공대원의 이야기를 보자 그 말은 곧 자취를 감추었다.

당시 전시관에서 상영하던 영상물이 있었다. 초반에는 다치아라이  
에 생겨난 비행장으로 주변 마을이 활성화되고 철도가 깔리는 등 발  
전이 있었으나 이내 그 비행장 때문에 폭격을 맞았다는 내용에 희생  
된 민간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솟았다. 그러나 이 슬픔은 오래가지  
못했다. 영상 후반부에는 전쟁에 따른 수많은 희생 위에 현재의 일본



이 있으며 그런 피해를 준 전쟁은 다신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문장이 나왔고, ‘곧 영상이 끝나겠구나’ 생각하던 와중에 영상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가족과 조국을 생각하는, 평화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특공에 뛰어드는 건 아름다운 죽음이다.’ ‘아름다운 죽음’,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일본 군부의 잘못은 뒤로 묻어두고 특공대원의 죽음에만 집중할, 할 수 있는 최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공대원을 안타까워하는 데만 집중할 나머지 그 전술이 잘못되었음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에 다시금 가미카제 특공대를 자세히 공부하고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슴 깊이 새겼다.

‘반세’에서는 특공대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특정 시간마다 특공대원의 가족, 당시 특공대원에게 숙소를 제공했던 사람 등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물을 상영했는데, 앞선 ‘다치아라이’에서 느꼈던 분노에 가까운 감정과 다르게 그저 착잡했다. 특히 숙소를 제공했던 여성은 당시에는 어려서 그들이 죽음을 앞두고 보인 초연한 모습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야 그 감정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듯했다. 죽음을 목전에 둔 특공대원의 모습을 지켜봤기에 오히려 일본군의 검열 속에서 작성된 유서보다 더 진실한 모습을 엿본 유일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다음 날 방문한 ‘지란’에서는 감사하게도 가타리베(語)部<sup>109</sup>가 귀한 시간을 내서 가미카제 특공, 지란특공기지, 몇몇 특공대원의 유서와

108\_ 영식함상전투기. 가미카제 특공대에 사용된 전투기 중 하나.

109\_ 고대에 문자가 없던 시대에 구전되어 내려온 역사, 민화, 신화 등을 이야기로 전하는 사람. 학예사와 비슷할 수 있으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해 일본어 그대로 사용하였다.

유품 그리고 이곳에서 전하고 싶은 말을 소개해 주셨다. 가타리베의 말씀이 끝난 후 학예사분들이 질의에 응했는데, 이곳에서 꼭 봤으면 하는 부분이 어디냐고 질문하자 역시 특공대원의 유서와 유품을 주로 봐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실제로 유서와 유품을 보러 갔을 때는 다행히 한국어 음성 해설이 있어 그들의 유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전시장 내부를 돌아다니던 중에 질의에 응해준 한 학예사가 한국인 단체 관람객은 처음이기도 하니 직접 한국인의 소감을 듣고 싶다고 했다. 나는 흔쾌히 승낙하고 찬찬히 전시관을 모두 둘러보았다. 유서는 모두 저마다 사연을 담고 있어 보는 내내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관람객을 눈물짓게 만드는 게 이 회관의 목적이라는 생각에 내려던 눈물이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관람 중에는 이렇게 몇 번이고 감정이 차올랐다, 사그라들기를 반복했고 이내 머릿속은 복잡해져만 갔다.

그렇게 어느덧 전시관을 나설 시간이 다가와 출입구 쪽으로 향하자 소감을 듣고 싶었던 학예사가 다가왔다. 그 학예사는 조선인 가미카제 특공대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역시나 우리 대답은 ‘뭐라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였다. 조선인이라는 말에 쉽게 동정을 느끼기엔 그들은 일본군에 가담했고, 자의적으로 가담했다고 하기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들이 각자 어떠한 사연을 갖고 입대했는지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을 모두 차치하고 드는 생각은, 기념관에서 그들을 영웅처럼 묘사하는 이 상황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각 기념관은 ‘가미카제 덕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다. 마치 가미카제가 평화의 초석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세 기념관

의 전시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들은 특공대원을 ‘영웅’, ‘아름답게 지는 사쿠라(벚꽃)’라고 표현했다. 미국의 공격에서 자국을 수호하기 위해 전술적 죽음을 맞이한 가미카제 대원들이라는 의미다. 만약 내가 일본에 사는 일반 시민이었다면 그 말에 현혹되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이 일본의 침략 전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이 먼저 공격했기에 되받아 친 미국에 방어하는 공격이 바로 가미카제다. 그들은 생명의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전술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기에,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넋을 기리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전쟁의 흐름을 알지 못한 채 ‘가미카제 덕분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또한 그들을 ‘영웅’으로 표현하고 자신을 목숨을 버려가며 희생하는 자들을 동경하는 분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전술의 가장 큰 문제점인 ‘생명 경시’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린다. 달리 말하면 가미카제의 ‘영웅화’는 인간의 목숨을 도구로 사용한 군부의 책임으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가미카제를 ‘평화의 초석’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 이어지는 의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자. 우리에게 친숙하고 유명한 애니메이션인 <주술회전> 속 일부 장면이 가미카제 특공대를 연상시키는 문제를 맨 앞에서 언급했다. 그때의 나는 <『주술회전』을 좋아하는 마음에 이 작품에 흠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애써 흐린 눈을 하며 가미카제에 대해 알아보길 주저했고, 차일피일 미루었다. 하

지만 인간의 목숨을 마치 미사일처럼 일회성 공격수단으로 사용하는, 말도 안 되는 전략에 죽어간 사람들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이제 더는 피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미카제에 대해 알아보면 볼수록 그들을 연상시키는 것이 왜 좋지 않은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다. 가미카제 특공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이었다. 매우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희생자가 안타까운 건 물론이고, 그 가족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겪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이를 기억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가미카제가 제국 시절 저지른 충격적 전술이라는 사실을 뒤로한 채 그들의 희생을 숭고한 것으로 추양하며 현재의 평화가 그들의 희생 위에 얻어낸 것임을 강조했다. 그 결과, ‘특공평화기념관’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를 조합한 기념관이 만들어졌다.

전쟁에는 희생이 뒤따른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가미카제 특공은 그 희생과는 동떨어진 다른 성격의 무언가다. 사람의 목숨을 미사일 쏘듯이 던져버리는 이런 전술은 다신 반복되어선 안 된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일본은 도대체 왜 특공전술을 사용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찾아보니 전술을 펼친 초기에는 꽤 유효한 공격이라는 평가<sup>110)</sup>를 발견했다. 하지만 처음 가미카제가 출격한 레이테만 해전 이후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미군은 이에 대응하기 시작했고, 오키나와 전투 당시 가미카제의 파괴력은 현저히 줄어들었다.<sup>111)</sup> 무엇보다 일본이 가미카제 특공을 실시했음에도 결국 불리한 전황을 뒤집지 못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가미카제는 결코 좋은 선택지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장님께 여쭙보았을 때도 한 번 공격할 때마

다 비행기 한 대와 조종사 한 명을 계속 잃는 상황이 결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가미카제 특공이 매우 성공적으로 미국에 피해를 주어 전황이 역전되고 일본이 승리했다면 어땠을까. 그때는 가미카제 특공에 대한 평가가 지금과는 달랐을까 하는 의문을 남긴 채 규슈 현지교육이 마무리되었다.

- 
- 110\_ Walter Topp. "The Kamikaze War—Inside the U.S. Navy's Race to Defeat Japan's Suicide Pilots." *Military History Now*. 12 October, 2021. <https://militaryhistorynow.com/2021/10/12/the-kamikaze-war-inside-the-u-s-navys-race-to-defeat-japans-suicide-pilots/>
- 111\_ Trent Hone. "Countering the Kamikaze." U.S. Naval Institute. October 2020. <https://www.usni.org/magazines/naval-history-magazine/2020/october/countering-kamikaze>

---

# 가미카제를 쫓으며 느낀 ‘의아함’

: 일본이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

---

박종후

---

## 역사를 조명하다: 조선인 가미카제 대원

2023년 12월에 있었던 연구보조원 워크숍을 시작으로 가미카제의 발자취를 쫓는 여정이 시작됐다. 조선인 가미카제 대원들 중심으로 그들은 누구이며, 어쩌다 일본군 소속으로 참전하게 되어 천황을 위해 몸을 던졌는지 의문을 풀려고 그들의 흔적을 쫓는 여정이었다. 그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흥미로웠고, 자료들을 마주할 때마다 많은 생각에 휩싸이게 되었다. 조사를 시작하고 발제를 진행하며 그들을 모두 ‘친일파’라고 재단했던 선부름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는 목포와 군산을 먼저 둘러본 뒤 저마다 느낀 점과 생각 그리고 부푼 마음을 안고 2월 규슈 현지교육 길에 올랐다.

## ‘산화’라는 말이 주는 인상

2월 19일 일본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들른 곳이 ‘다치아라이평화 기념관’이었다. 특공작전에 이르기까지 발단과 사전 배경 설명은 간단하게 안내했으나 출격으로 전사한 대원들에 대한 설명은 무척이나 세세하고, 자세하게 쓰여 있었다. 나는 이런 부분에 위화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대원들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 출격했고,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물론 그들의 유품 등을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특공대원들의 유서 역시 볼 수 있었다. 누구의 유서이며,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았는지까지 자세하게 표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중에서 그들의 죽음을 ‘산화’라고 표기한 것이 눈에 띄었다. ‘昭和 ○年 ○月 ○日 散華.’ 전사, 사망, 폭사가 아닌 산화로 표기되어 있었다. 물론, 전사로 표기된 안내문도 존재했으나 ‘산화’로 표기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럼 ‘산화’라고 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 산화는 무엇인가?

사전에서 ‘산화(散華)’를 찾아보면 ‘어떤 대상이나 목적을 위하여 목숨을 바침’이라는 뜻이 나온다. 익숙한 예로 들면 ‘조국을 위해 장렬히 산화하다’라는 용례로 쓸 수 있다. 조국을 위해, 혹은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값진 희생을 일컫는 셈이다. 원래 산화라는 말은 불교에서 유래했는데, 불전에 꽃(華)을 뿌려(散) 공양하는 것을 ‘산화’라고 했다고 한다.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 해군 소속 비행기를 몰고 미국 군함에 돌격한 특공대, 즉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의 죽음을 일컬어 ‘산화’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벚꽃(華)이 지(散)듯’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해서 그들의 죽음을 미화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일제는 벚꽃을 어떻게 침략전쟁의 상징으로 활용하였을까? 벚꽃은 태평양전쟁 말기에 가미카제 특공대의 상징으로 활용되었다. 청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수많은 청년의 희생이 필요하게 되자 일제는 ‘천황, 즉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징병제에 대한 반발이 있었지만, 군인칙령과 교육칙어 등 국방 사상이 보급되면서 자연스럽게 징병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벚꽃은 ‘천황을 위한 희생’을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그 정점에 가미카제 특공대가 있었다. ‘벚꽃(華)이 지(散)듯’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로 그들의 죽음을 미화하며, 침략전쟁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태평양전쟁이 절정에 달하고, 패색이 짙어지자 일제는 자살특공대인 가미카제들을 ‘피어 있는 벚꽃’을 적극 활용하고 비유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들이 타는 비행기에 벚꽃을 새기거나 출격할 때는 여학생들이 벚나무의 가지를 들고 나와 배웅하기도 했다. 이들이 전사(戰死), 벚꽃이 진다는 뜻에서 ‘산화’라고 하였는데, 이는 당시 군부가 불교 용어의 원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충혼의 상징용어로 변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역사가 담긴 ‘산화’라는 용어를 일본이 지금도 사용하는 데서 일본은 아직도 군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산화’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전쟁의 원인과 책임의 성격보다는 특공대원 개개인의 서사에 눈이 가도록 만들고, 감정에 기대도록 유도해 비판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느껴졌다.

반세특공평화기념관만이 산화라고 표기한 것은 아니다.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 지란특공평화회관 모두 작전 중 사망한 특공대원들의



죽음을 ‘순직’이나 ‘전사’가 아닌 ‘산화’로 표기하고 있었다. ‘산화’라는 표현은 자살 공격을 승고한 희생으로 포장한 프로파간다라고 볼 수 있다. 전쟁을 체험했거나 기억하고 싶어 방문한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접근해 전쟁의 공포, 전쟁을 통해 느낀 교훈 그리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감정호소에 기반한 공감만 일으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 어두운 역사와 과거의 그림자

우리가 방문한 평화기념관 세 곳은 모두 각종 영상매체를 활용해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었다. 그들이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은 전쟁과 관련 없는, 전쟁을 체험하기만 한 평범한 민간인을 주도적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특공대원들은 비행장 근처 민가를 휴식처로 이용해 묵으며 근처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쌓았다고 한다. 주민들은 죽음을 앞둔 특공대원들을 위로하려고 손수 인형을 만들어 선물하기도 하는 등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역할을 했다. 나는 여기서도 ‘인형’이라는 도구로 위로라는 프레임을 씌워 감정에 기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출격 전날 그들의 슬픈 표정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언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전쟁에 나서지 않는 민간인은 그 이상을 느낄 수 없다. 우리가 방문한 평화기념관 모두 그 부분만 취해 이를 적극적으로 내세워 전쟁을 목격하러 온 사람들의 시선과 감상을 특공대원들의 희생, 전쟁의 참상, 평화의 소중함 그리고 자국민 일본의 피해에만 머물게 만들고 있었다.

특히 전사한 오빠를 둔 여동생의 영상이 기억에 남는다. 미군이 가

미카제 대원의 전투기를 추격하는 영상을 보며 우리 오빠가 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눈물을 흘렸다. 출격 당일 역시 ‘運命の日(운명의 날)’, ‘永遠の悲しいお別れ(영원히 슬픈 이별)’ 등 슬픔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감정에 지나치게 기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출격 당시 여고생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힘껏 손을 흔들어 그들의 마지막 비행을 배웅했다. 마을 주민들 모두 대원들의 마지막 표정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평화의 귀중함’을 절실하게 느꼈으며, 여기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려니 특공 대원들에게 면목이 없다(申し訳ない)고, 전쟁은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면목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한참을 생각에 빠졌다. 그들이 사죄하는 대상은 가미카제 대원들이었다. 나는 어딘지 모를 불편함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소외된 것은 전쟁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일 것이다. 회상을 마무리하며 평화의 귀중함, 소중함(平和の尊しき)을 여실히 느꼈으며, 그렇기에 전쟁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 평화기념관은 귀중한 일상을 빼앗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는 물론 언급조차 없다는 것을 새롭게 눈뜨게 해주었다.

제로센 전투기는 폭탄의 무게와 가속도로 일단 급강하하기 시작하면 제어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즉, 미국 군함을 향해 한번 하강하면 그길로 곧 군함에 부딪히거나 바다에 빠져 죽는 길뿐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작전이었기에 승고함이 더해져 ‘산화’라는 말로 불리는 것일까?

그러나 미군을 한순간 두려움에 빠지게 한 작전은 시간이 갈수록

그 명성과 위력이 미미해졌다. 파괴력은 물론이고 특공대원들이 탄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비행기에 실은 폭탄이 너무 무겁거나 속도가 너무 빨라 조준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었다. 또 더러는 마지막 순간에 조종사, 즉 특공대원들이 두려운 나머지 눈을 감아버려 표적을 제대로 맞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패망까지 2,500여 명에 이르는 특공대원이 불길 속으로 뛰어 들었다. 그러나 성공 확률은 겨우 6%에 그쳤다. 즉, 가미카제는 군사작전이라기보다 적에게 두려움을 주는 심리전의 성격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생존자들은 미군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들은 죽음을 눈부신, 화려한 죽음(華々しい死)으로 받아들였다. 특공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죽을 것을 어렵듯이 짐작했고, 자기 나라인 일본을 위해서만 생각했다. 그래서 훈련을 거듭하며 명령이 내려질 때를 기다렸다고 한다. 그 말이 나에게서는 죽음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는 뜻으로 다가왔다.

여기서 지란특공평화회관에서 봤던 특공대원의 유서 내용 일부를 소개한다.

豊が死んでも、死んだあとも楽しくお過ごしください。今ははじめて男と生まれた最大の喜びを感じました。喜んでください。

昭和 20年 5月 11日 水川豊

유타카가 죽더라도 그 후에도 행복하게 지내세요. 지금 남자로서 태어나 최고의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뻐해 주세요.

쇼와 20년 5월 11일 미즈카와 유타카

이 글의 주인공은 19살의 나이로 목숨을 잃은 미즈카와 유타카 소위로, 출격 전날 명령을 받고 부모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다. 그들은 정말 작전을 기다리고 기쁨을 느꼈을까?

### 평화를 찾을 수 없었던 평화기념관

지란특공평화회관 입구에서 우리를 맞아준 것은 선녀 6명이 죽은 특공대원의 혼을 달래 하늘로 승천시키는 그림이었다. 이 그림은 크기가 압도적이었다. 송고하다기보다는 섬뜩한 인상으로 다가왔기에 그저 멍하니 볼 수밖에 없었다.

특공작전에 대해서는 ‘자국 수호’를 위한 작전이었기에 ‘테러’와는 다르다는 안내를 들을 수 있었다. 특공대원을 승천시키는 선녀들. 그리고 이 특공작전은 테러가 아니며, 테러와는 다르다는 주장. 나에게 는 모든 것이 모순으로 다가왔다. 군국주의에 희생된 청년들의 넋을 팔아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며, 이로써 자신들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 자신들의 과오를 뒤덮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사진 11〉 지란특공평화회관 입구에 있는 그림

はかなく散っていく桜, 特攻。

덧없이 저가는 벚꽃 그리고 그들을 닮은 특공

이번 여정에서 방문한 특공평화회관 세 곳이 모두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다. 가미카제 대원들이 희생을 강요받은 점에서 현실과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이곳들은 전쟁의 비참함을 감정적으로 강조하며 평화의 상징으로 역할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적군에 대한 두려움과 적개심을 자극하는 자료들이 많았다. 이로써 방문객들이 전쟁의 진정한 비극을 이해하기보다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고 느꼈다. 평화회관은 과거의 상처를 회복하고 기념하는 역할을 넘어 미래의 평화를 위한 교육과 화해의 장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데도 자국 수호라는 치우친 모습만 볼 수 있었다.

어처구니없는 죽음에 휘말려 희생된 청년들의 닛과 서사를 팔아 걸뿐인 평화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회관의 영어 표기는 어디에서도 평화를 찾아볼 수 없었음에도 'Peace Museum'이었다. 생을 마감하고 나서도 국가 주도에 따라 이용당하는 특공대원들에 대한 생각이 돌아오는 내내 멈추지 않았다. 마치 어딘가에 걸린 것처럼 마음 한편이 답답해질 정도였다.

그들이 특공평화회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大切さ)이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유품 선정이었다. 그러나 지란을 비롯한 다른 특공평화회관 어디에서도 특공작전 및 특공대원들 때문에 목숨을 잃은 민간인과 전쟁을 일으킨 원인과 책임의 소재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렇기에 내게는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 유품 선정과 전시에 만반을 기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 특공평화회관을 나서며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 내내 위화감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내가 느낀 의아함과 답답함일 것이다. 세 곳을 돌아보는 내내 평화회관의 역할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고 물음을 던지게 되었다. 전쟁은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서사 만들기’에 여념 없는 모습은 전쟁의 비참함을 알리는 목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느꼈다.

전쟁으로 가족 일부를 잃고 남겨진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느끼고 슬퍼하며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것, 그것은 분명한 비극이다. 그러나 그 비극을 일으킨 주체는 누구인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욕망으로 여러 나라를 짓밟은 그들 때문에 흘린 피와 목숨은 과연 누구 책임인가? 그들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특공대원들의 희생? 전쟁의 참상? 전쟁 피해를 당한 상대 국가의 피해와 희생자 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로지 일본의 피해만 전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전쟁을 기억하는 일본의 방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전쟁의 어리석음을 비판해야 할까? 마음속으로 어리석음의 주체에서 빠져버린 것은 ‘일본’이 아닐까?

---

# 특공의 위령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하여

---

김지연

---

현지교육을 준비하며 특공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기 시작했다. 특공의 정의부터 조선인은 어떻게 대원이 되었는지, 그들의 결말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위령<sup>112</sup>과 현창<sup>113</sup>이라는 개념을 접하면서 죽음에 주목하게 되었다. 단순히 일제강점기에 전사한 젊은 청년이라는 안타까움에서만 그칠 문제가 아니었다. 특히 조선인 특공대원의 죽음은 한국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어느 나라이든 방식만 다를 뿐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은 동일한데 어째서일까. 이유를 짚어보면, 조선인이면서 천황을 위해 태평양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점과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와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안치되었다는 점

---

112\_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함.

113\_ (숨어 있는 선행을) 밝히어 알림. 두드러지게 나타남. 공적 등을 알려 표창함.

때문일 것이다. 일본에서는 조선인뿐 아니라 모든 특공대원을 천황을 위한 죽음, 나라를 위한 희생으로 높이고 애도한다.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조선인 특공대원을 한국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슬프게만 여기던 죽음에 어떠한 의미가 더 숨겨져 있는지, 일본이 특공을 통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관심을 두게 되었다. 사전 준비 당시에는 조선인 위주로 바라보았으나 현장에서 국적 관계없이 특공대원에 대한 정보와 특공을 이야기하는 여러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민간인, 비극과 평화

특공대원을 말하기에 앞서 태평양전쟁 당시 민간인을 바라보려 한다. 참상에 관해 이야기하는 민간인의 모습을 전시한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로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에서 B29 폭격기로 입은 피해에 대한 짧은 영상을 확인하였다. 학교에 떨어진 폭격으로 죄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한 비극을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특공대원의 죽음을 가족과 조국, 평화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뛰어든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말했으며, 특공대원의 수많은 희생으로 지금의 일본이 있기에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아이들뿐 아니라 민간인으로서 가족을 전쟁터로 보내거나 폭격과 같은 공격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자체는 비극으로 여겨지기에 충분하다. 전쟁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또한 동의한다. 전쟁은 누군가의 죽음이 또 다른 이의 죽음을 불러오고, 그로써 항할 곳 없는 원망이 계속 이어지는 싸움이다. 그렇기에 민간인으로서 서로에



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악몽의 굴레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감정이 들면서도 마냥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일본제국이 인간을 무기로 썼다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함에도 평화기념관은 나라를 위했다는 방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기념관은 왜 전쟁이 일어났고 어째서 이토록 잔인하게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일련의 사건으로 연민과 동정심, 평화를 소중히 여기자는 생각을 하게 할 뿐이었다.

일본은 이제 직접적으로 무력을 이용해 부딪치는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 및 무력행사 영구 포기, 전력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군국주의도 과거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베 정권 당시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 반격할 수 있는 집단 자위권을 허용했다. 기시다 정권도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확보를 결정하며 방위비를 늘리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전쟁 피해를 전시하면서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군국주의를 떨쳐내지 않는 행보를 보인다. 감정에 몰들기 전에 사실을 정면으로 직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특공대원, 숭고한 희생 속 숨겨진 이야기

그렇다면 특공대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시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지 반세특공평화기념관<sup>万世特攻平和纪念馆</sup>과 지란특공평화회관<sup>知覽特攻平和会馆</sup>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반세특공평화기념관은 특공대원의 유품이나 유서, 영정 등을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비행병이라는 꿈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선택받은 엘리트라는 자긍심,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 대동아공영권을 쌓아 올리는 걸음이 되리라 믿고 천황을 위해 나아가는 젊은이들.”

그뿐 아니라 “나는 스스로 전쟁터에 가는 것이다”, “살아서는 충신이며 죽어서는 호국의 신이 된다” 등의 유서를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건 당시 19세였던 한 소년이 몸에 두르고 있었다고 하는 일장기이다. 일장기에는 神力無礙(신력무애)라고 적혀 있는데 無

礙(무애)는 장애물이 없음, 일에 막힘이 없음이라는 뜻이다. 즉 신(=천황)의 힘은 끝이 없으니 패배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문구였다. 미국 전략첩보국에서는 일본 병사들이 자살 공격을 계속한 이유로 일본이라는 국가가 영원할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다.<sup>114)</sup> 대일본제국이 패배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대원들에게 강요하고, 미군(연합군)과 전력 차가 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행동과 생각을 통제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많은 양의 유서도 확인하였다. 당시 유서를 작성하는 데 검열이 진행되었기에 대원들은 본인의 진심을 적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가족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작성한 유서도 있진 않을까 생각한다. 대원들의 유품·유서를 확인하면서 진정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간 자가 몇이나 있을지, 죽음이라는 본능적 공포를 어떻게 견뎌냈을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여러 자료에서도 스스로

무엇 하나 정립할 수 없다는 점이 설명하기 힘든 감정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를 보고 과연 어떤 마음이 들지고 고민했다. 어쩌면 그저 대단하고도 슬픈, 자랑스러운 죽음이라 여기고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그치는 건 아닐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없이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이었음에도 말이다.

지란특공평화회관도 비슷한 내용을 전한다. 소책자에는 “역사를 기억하길 바라며 당시의 유물과 기록을 전시하고, 평화의 중요성·생명의 가치와 존귀를 인식하게 한다”라고 적혀 있다. 이곳에서 만난 많은 인물 중 한 일본인 대위의 “너희들만 믿는다”라는 말이 인상 깊었다. “장관이나 상사를 위해 특공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며, 일본의 장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 너희들만 믿고 간다.” 이 문장을 바라보며 결국 상관을 향한 충성심이라는 것도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한 게 아니었는지 조심스레 생각해 보았다. 출격 전 마지막 순간에 본인이 지키며 나아갔던 신념은 무엇이었을까. 정당화 혹은 자기합리화가 필요했는지, 작전은 이해할 수 없으나 동시에 자신의 나라를 진심으로 위하는 감정이 있던 것일지. 아주 다양한 생각이 들었음에도 당사자도 아닐뿐더러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그 밖에 회관의 학예사에게 조선인이 특공대원으로 죽은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지 않는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한국에는 분명 좋

---

114\_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Research and Analysis Branch. “Japan’s Secret Weapon: Suicide”. July 20, 1945. [https://www.cia.gov/readingroom/docs/DOC\\_0000709802.pdf](https://www.cia.gov/readingroom/docs/DOC_0000709802.pdf)

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어려워하는 이들도 있으나, 개인의 의견은 모두 다르고 나는 확실하게 배신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드렸다. 예로 조선인 특공대원 탁경현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구로다 후쿠미라는 인물이 탁경현을 위한 위령비를 세우려고 할 때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들은 대일본제국을 위해 전사한 이의 위령비를 세우는 걸 이해할 수 없고 그보다는 일본의 사죄가 먼저라고 외쳤다. 그럼에도 내가 배신이라는 단어를 말로 꺼내기 어려웠던 이유는 탁경현이 조선인으로서 식민지 지배로 많은 것에 제약받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이다. 그가 천황을 위해 뛰어들었다고 해도 그 이면에는 강제성이 짙었다. 그리고 죽음 이후마저 전쟁 당시에는 다른 특공대원에게 뒤를 따르게 하는 선전으로 사용되었다. 현대에서는 일본을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공적을 높이고, 일제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유슈칸 전시로 죽음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단어 하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다.

### 평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とこしえに.” 지란특공평화회관 근처 특공대원의 동상과 함께 적혀 있는 문구이다. 특공대원의 희생으로 이루어낸 평화가 계속되길 바란다는 의미이다. 회관과 기념관은 공통적으로 평화를 소중히 하고 앞으로도 평화가 영원하길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말하는 평화의 초석은 잔인하기 그지없다. 이득을 위해 벌인 전쟁에서 사람을 무기로 쓰고 패전을 종전으로 표시하며 현대로 나아가기까지, 평화가 무엇을 기반으로 쌓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게 했다. 마치 사전적 의미를 있는 그대로 전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전쟁으로 일어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마침내 전쟁이 멈춘 뒤 찾아온 평화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예를 들어 반세 특공평화회관에서는 연표로 태평양전쟁에 관해 설명하면서 “만주사변이 일어나다”라고 간결하게 적어놓은 부분이 있다. 만주사변은 만주의 내란과 같은 사건이 아닌 단어 그대로 일본제국이 일으킨 사변이다. 그래서 저 짧은 문장에도 위화감이 들었다. 패전도 길었던 15년 전쟁이 종결되었다고만 적혀 있었다. 이처럼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많다고 느껴졌기에 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평화란 과연 어떤 것인가 생각하게 했다. 특공이라는 어쩔 수 없는 전략을 통한 희생으로 얻은 평화와 끝내 일본의 신이 된 대원들. 위령과 평화라는 겉모습 안에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았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관람하기 힘들었다.

### 특공,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지금까지 특공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 이를 보고 어떤 점을 전달받을 수 있을지 바라보았다. 특히 일본 메이오대학의 친구 두 명이 현지교육에 함께 참여하면서 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 친구들에게 현지교육 기간 틈틈이 감상이 어떤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역사 수업에서도 특공에 대해 자세히 배운 적이 없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훨씬 많았고, 관련 영화를 봤을 때 슬펐으며, 기념관을 통해서도 특공대원에게서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답해주었다. 그리고 지란특공평화회관 근처에는 특공대원을 기리는 특공평화관음당이 있는데 향을 피우고 참배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일본 친구들은 짧은 참배로 특공대원을 향한 마음을 보였다. 친구들을 보며 과연 참배하는 마음이 좋지 못하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도 했다.

여러 평화기념관과 회관을 방문하고 위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면서, 작전에 뛰어든 특공대원들의 행적을 전시하고 기리는 모습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시민들이 전시를 보며 어떤 심정을 느낄지 더욱 고민하게 된 계기였다. 경험을 통해 일본 학교에서 역사를 깊게 배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또 전시관에 수많은 자료가 있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실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나 또한 만약 아무런 사전지식 없이 마주했다면 단편적으로만 지식을 흡수하고 슬퍼하진 않았을지, 이토록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을지 고민이 되었다. 미래 세대인 초·중학교 학생들의 방명록을 보면서 객관적인 정보의 필요성을 더욱 느꼈다. 아주 일부분이지만 “부모님께 감사의 말을 하거나 만나러 와주길 바란다”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매우 애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같은 글이 적혀 있는 걸 확인했다. 방명록을 보면서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은 물론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방향의 전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다. 특공이 단순히 나라를 지키려는 작전에 불과했는지, 그 이면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관람객으로서 대원들을 향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평화의 의미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 일본에서 본 ‘특공(가미카제)’과 ‘평화’ 그 이질적 조합 속에서

---

윤석희

---

## 특공과 평화?

국내 현지교육에서 적산가옥과 조선인 가미카제를 조사하고 알아 가는 시간을 마련했다면, 규슈 현지교육에서는 후쿠오카와 가고시마에 있는 특공평화기념관과 회관을 방문하여 조선인 가미카제의 연장선인 특공(가미카제)에 대해 조사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규슈 현지교육에 참가하면서 국내 현지교육과 다르게 이질적인 부분이 느껴졌다. 특공평화기념관과회관은 특공과 평화라는 단어가 같이 있다는 데서도 이질감을 느꼈는데, 기념관 홈페이지에 등장한 전시물 사진에서 전투기와 군복 등을 보고 이질감이 더 극대화되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나는 이질감을 느꼈을까를 시작으로 특공과 평화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았다.

특공은 특별공격대<sup>115)</sup>를 줄인 말로 사전적 의미는 ‘적을 기습 공격

하기 위하여 특별히 편성하여 훈련한 부대'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특공은 우리에게 '가미카제'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특공은 태평양전쟁 말기, 레이테만 전투에 처음 등장하여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적 함선에 몸체 공격을 하는 자살 공격을 의미한다.

평화<sup>110)</sup>의 사전적 의미는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이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두고 비교해 보았을 때 특공과 평화는 동질적이지 않고 반대되는 성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조적인 두 단어를 연결하면서 특공과 평화를 동시에 강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전적 의미를 차치해두더라도 또 하나의 이질감이 눈에 띄었다.

팸플릿과 홈페이지에 나타난 기념관과 회관의 영문표기를 보면 'Peace Memorial Museum' 혹은 'Peace Museum'이라고 적혀 있을 뿐 특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공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해외에 많이 알려진 가미카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의문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의문은 기념관의 영문명을 작성한 작성자에게 직접 묻지 않으면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특공 평화회관의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전투기와 군복, 대원들의 사진과 그들이 남긴 편지가 차례차례 눈에 들어온다. 여기서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은 말끔히 정비되어 있는 전투기이다. 파손된 채 전시된 전투기도 있지만, 말끔히 정비되어 있는 전투기는 위화감을 불러왔다. 전투기를 통해 어떤 크기의 전투기를 타고 어떤 환경 속에서 특공작전에 나섰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투기 자체에서 이질감을 느낀 것은 아니다. 다만 잘 정비된 전투기와 팸플릿에 그려진 안내



도를 보았을 때 전투기가 넓은 자리를 차지해서 안내도만 따로 본다면 마치 전투기 박물관으로 오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위에서 느낀 이질감이 세 곳의 현장에서 어떻게 느껴졌는지 서술하고자 한다.

### 다치아라이, 반세, 지란에서 발견한 공통점과 차이점

다치아라이, 반세, 지란 세 곳은 모두 육군 비행장이 있었던 곳으로 과거 비행장의 역사와 위치, 연표를 게시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공통으로 전시된 것으로는 특공대가 사용한 전투기, 군복, 전투장비가 있었고, 특공대원들의 사진과 함께 유서와 편지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공통점은 기념관의 존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 같았다. 다른 공통점으로 전쟁에 대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 특공대원의 희생, 전쟁의 비극과 관련된 내용을 앞세워 전쟁에 대한 반성을 생략하고 전쟁의 아픔만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국인으로서 본 역사적 기록은 일본의 시각에 따라 적혀 있다고 느껴졌다. 대표적으로 역사 연표를 보았을 때 중일전쟁을 일화사변(日華事變)으로 간단히 기록한 것과 일본 내에서 공습 공격으로 발생한 사상자 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인상 깊었다. 이로써 가해 사실보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일본의 시각이라고 느꼈다.

---

115\_ “특공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4년 5월 11일 접속.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D%8A%B9%EA%B3%B5%EB%8C%80>

116\_ “평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4년 5월 11일 접속.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D%8F%89%ED%99%94>

세 곳에서 느낀 차이점을 각각 서술해 보면,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은 이름부터 다른 기념관과 다르게 특공이 빠져 있다. 그래서인지 다른 기념관보다 특공대원의 유서와 편지의 수가 적었던 것이 기억에 남았다. 다른 기념관과 다르게 깔끔하게 정비된 전투기의 내부를 볼 수 있었던 것이 인상 깊었지만, 한편으로 비행기 박물관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B29의 공습피해를 받은 자료를 특공대와 함께 엮어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으로 서술해 낸 것이 다른 기념관과의 차이점 중 하나였다.

반세특공평화기념관에서는 특공대원들의 사진이 출격 일자에 맞추어 전시되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특공대원들의 유서와 편지를 파일로 정리해 읽기 쉽게 되어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나 특공대에 관한 서술 관점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대표적으로 역사 연표에서 일본 내 사상자 수는 기록되어 있지만, 중국에서 발생한 전투의 사상자 수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점과 “특공은 화려한 공격이 아닌 방어였다”라는 설명은 일본 시각에 맞춰진 해설이라 느껴졌다.

지란은 영화 <호타루>(2002)와 <나는 당신을 위해 죽으러 갑니다>(2007)가 촬영된 장소로 다치아라이, 반세와 다르게 실외에 남겨진 비행장 시설이 존재했다. 급수탑을 시작으로 탄약고와 유류고, 삼각병사<sup>117)</sup> 등 관광코스 형태의 안내지도도 보고 둘러볼 수 있게 기획되어 있어 다른 기념관과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눈에 띈 것은 영화에서 보았던 석등<sup>118)</sup>이 상당히 많이 나열된 것이었다. 석등은 전몰한 특공대원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세우다가 유족, 관계자 등이 회관에 현상하면서 1,300개 정도로 늘어났다고 한다. 지란특공평화회

관 실내에는 비디오실이 두 곳 있었으며, 특공대원들 사진을 양 벽면에 게시하고 유서와 편지들을 서랍 형식으로 보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유서와 편지는 그 양이 다른 기념관보다 많아 전부 열람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 다치아라이, 반세, 지란에서 본 특공과 평화

특공 세 곳의 전시물은 크게 전투기와 군복 등 전투장비와 대원들의 사진, 편지, 유서, 유품 등 물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공대원들의 물품과 출격하는 특공대원들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는 중요한 자료였다.

그러나 전투기, 군복과 같은 전투장비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전투장비가 특공 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평화와 거리가 멀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투장비는 평화의 소중함보다 전쟁의 비극을 떠올리기 쉽다고 생각한다.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에서 할머니가 손자에게 태평양전쟁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영상은 일본인에게 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데 성공하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특공작전이 생겨난 계기와 역사적 흐름을 빼놓은 채 공습피해와 특공의 희생을 강조하여 나타낸 것이 온전히 특공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

---

117\_ 반지하식 목조 판잣집으로 특공대원들이 출격 전까지 지냈던 막사이다.

118\_ 석등은 묘지를 참배하러 온 사람의 길을 비추려고 설치했지만, 고인(故人)이 헤매지 않게 길을 인도하고 공양하는 역할도 했다고 한다.

요가 있다.

반세특공평화기념관에서 본 특공대원들의 편지, 유서는 그들이 처한 환경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매개체였다. 다만 자주 보이는 단어와 문장을 마주할 때 진심으로 쓴 글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대표적으로 천황을 뜻하는 군(君)과 젊은 특공대원들을 나타내는 벚꽃이 흩어진다는 표현(花, 華, 散る)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든 글이 위와 같은 단어들로 기록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공대원들의 기록을 읽고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특공에 대한 설명과 전쟁에 대한 역사적 해설이 일본의 시각으로 서술되어 있어 내가 알고 있는 역사가 맞는지 혼란을 불러오는 일도 있었다. 예를 들면 중일전쟁의 서술에서 난징대학살에 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고, 단지 난징을 점령하였다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토리하마 토메의 식당도 주변에 위치하여 특공대가 존재했다는 것을 부족함 없이 느낄 수 있었다. 회관 내에 비치된 특공대원들의 사진과 편지, 유서로 전쟁의 비참함과 생명의 소중함, 평화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었다.

### 일본의 특공과 평화

구글 지도에서 살펴본 기념관 방문 후기와 함께 현장에서 느낀 위화감은 “특공대원들의 희생 위에 지금의 평화로운 일본이 있다”라는 것이었다.

특공대원들의 희생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과 전쟁의 비참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에는 일본군 수뇌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등장한 작전이 있었다. 전쟁의 목적 또한 평화와 거리가 멀었고 결과는 항복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특공대원들의 희생을 토대로 지금의 평화가 있다는 이야기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기념관에서 전하는 “특공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로운 일본이 있다”라는 말은 특공작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다음 세대에 평화를 수호하는 수단 중 하나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전달한다고 느껴졌다.

### 특공과 평화라는 조합

앞서 느낀 ‘특공’과 ‘평화’라는 조합의 이질감을 다시 짚고 넘어가면, 대조적인 단어로 ‘특공’과 ‘평화’가 모두 강조되는 느낌을 받았다. 두 단어는 기념관에서 특공대원들의 유서와 유품들로 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소중함으로 연결되면서 이질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에도 특공을 통해 평화를 알리는 기념관이 온전한 평화를 알리는 장소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또 다른 전쟁이나 특공작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시선으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그런데 세 곳 기념관은 모두 역사적 서술이 자신이 가한 가해는 축소하고, 자신이 본 피해는 극대화하는 형식에 맞춰져 있었다.

팸플릿 안내도에서 비행기 박물관 같다고 느낀 이질감은 실제 현장에서 보았을 때 기념관마다 느낌이 달랐다.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의 경우 실내 초입부터 전투기 전시와 함께 항공기술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어 평화기념관과 관련성이 먼 내용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말끔한 전투기 모습이 기념관과 위화감을 더했다.

반세에서 본 전투기는 파손된 채 전시하여 특공을 나타내는 상징물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란에는 정비된 전투기와 파손된 전투기가 공존하면서 회관 내부와 외부에 전시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치아라이를 제외한 두 곳에서는 팸플릿 안내도와 다르게 전투기가 모든 시선을 가져가지 않게 배치되어 있어서 이질감이 적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현지교육을 다녀오면서 이질적이라 느꼈던 특공과 평화라는 조합이 특공대원의 유품을 구심점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특공을 평화의 토대로 바라보는 점과 전쟁에 대한 반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은 아쉽게 다가왔다. 기념관에 객관화된 역사적 서술과 전쟁에 대한 반성이 보충된다면 특공과 평화라는 조합에서 느낀 이질감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

# 특공대원의 죽음을 기억해 줄 사람은 누구인가

---

이하림

---

## 탁경현 귀향기념비를 회상하며

2023년 12월,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워크숍 “경계”에 대한 재고와 모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용인 법륜사에 들릴 기회가 있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가미카제 특공대원으로 사망한 탁경현(일본명 光山文博, 마쓰야마 후미히로)의 위령비를 직접 두 눈으로 보기 위함이었다. 경내로 들어서기 전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꺾으면 세워져 있는 삼족오 조형물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그 오른쪽 밑으로 시선을 내리면 그제야 눕혀져 있는 석비와 거기에 쓰여 있는 귀향기원비(歸鄉祈願碑) 다섯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얼핏 봤을 때 썩 좋지 않았던 석비 상태는 가까이서 보니 더 처참했다. 마른 나뭇잎과 흙으로 덮여 있었으며, 음각 글자 사이사이엔 흙먼지가 잔뜩 끼어 있었다. 오랫동안 비와 눈을 맞으며 수축과 팽창을 거듭한



〈사진 12〉 땅에 파묻혀 있는 귀향기원비

탓인지 비신은 갈라져 금이 가 있었다. 저 석비는 탁경현의 고향인 사천으로도 돌아가지 못하고, 용인에서도 제 있을 자리에 제대로 세워져 있지 못했다. 저 멀리 이국의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 한국에서 묻히지 못하고 야스쿠니에 합사된 제 주인과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탁경현의 죽음을 누가 기억해 줄 것인가? 더 나아가 특공대원의 죽음을 기억해 줄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의문이 생겼다.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들은 그들의 죽음과 가족들까지 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선전용으로 신문과 라디오에 동원되는 양상을 보였다.<sup>119)</sup> 전쟁기에야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영웅으로 치켜세워졌겠지만, 패전 이후 상징천황으로 격하된 와중에 그들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해방된 조선에서 조선인 특공대원의 죽음은 친일파의 죽음이라고 여겨지며 터부시되었다.<sup>120)</sup> 그 예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탁경현 귀향기원비의 처리 문제였다.



한국에서 조선인 특공대원의 죽음은 함부로 기억되거나 언급되어서는 안 될 예민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특공대원이 사회의 영웅으로 여겨지는 일본에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그들의 죽음을 표현하고 애도할까? 그 모습을 두 눈에 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마침 ‘포문동 해외현지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규슈 지방에 위치한 특공기념관을 직접 방문할 기회가 주어져 현지에서 보고 느낀 바를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보고자 한다.

### 강조하는 피해 기억과 은폐되는 가해 기억

3박 4일의 일정 동안 일본 규슈를 종단하며 총 세 곳의 특공기념관(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 반세특공평화기념관, 지란특공평화회관)을 방문하였다. 각 기념관을 방문하기 전 찾아보았던 팸플릿이나 홈페이지 소개 내용에선 공통적으로 語り継ぐ(이야기를 전하다), 恒久の平和を祈念する(영구적 평화를 기념한다)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제시되어 있었다.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며, 이로써 말하고자 하는 평화가 무엇이나를 파악하는 게 이번 현지교육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했다.

119\_ 이형식. “태평양전쟁시기 제국일본의 군신만들기-『매일신보』의 조선인특공대(神鷲) 보도를 중심으로-.” *日本學研究* 37(2012): 193-217.

120\_ 물론 탁경현을 비롯한 조선인 특공대원이 일본군 가미카제 특공대로 일본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이러한 역사적 기록이 분명히 존재하는 한 그들은 친일파라는 논의에서 절대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점엔 동의한다. 하지만 탁경현이 친일파라는 사실이 그가 애도받아선 안 된다는 이유가 될 순 없다.

## 1)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의 전시관에 들어가자마자 실물 크기의 전투기 모형이 눈에 들어왔다. 이름은 ‘신덴<sup>震電</sup>’으로, 미군 폭격기 ‘B29’를 추격하기 위해 제작된 전투기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이에 대비되는 지점으로 전시관 천장에는 B29 제원에 맞춰 전장과 전폭을 그대로 구현한 철판이 고정되어 있었다. 신덴의 제원(전장/전폭)이 9.76m/11.14m<sup>121)</sup>, B29 제원이 30.18m/43.06m<sup>122)</sup>이니 두 기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고개를 올려다봐도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대한 크기에 관람객들은 압도되고 만다. 전시관 입구 쪽 바닥에는 다치아라이비행장 주변을 나타낸 위성지도가 넓은 범위에 걸쳐 부착되어 있는데, 관람객은 지도 위에 올라서서 다치아라이 공습에 대한 가이드의 설명을 듣게 된다. 1945년 3월 27일과 31일 양일간 미군기의 공습을 당해 비행장이 파괴되었으며, 공습으로 기지에서 일하던 사람들과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다.

민간인 희생을 끌어들이며 피해자의 모습을 강조한 연민 내러티브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발생했던 일본의 가해 행위가 실은 정당한 방위 행



〈사진 13〉 모형 비행기 앞에서 촬영한 단체 사진

위는 아니었는지 착각하게끔 만든다. 다치아라이기념관의 구조적 서사 아래에서 전시관 내에 위치한 영식함상전투기 모형은 다치아라이 비행 학교에 입교한 14세 전투기 조종사를 향한 동경의 상징이 된다. 특공대원의 희생이 필리핀-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 4,000명을 전사시켜 공포를 안겼다는 표현은 마치 자랑스러운 공적이라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다치아라이기념관에서 특공은 미군의 공격에 맞서기 위한 어쩔 수 없었던 선택, 즉 피해 기억으로 탈바꿈한다. 동시에 일본의 가해 기억—주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맹목적 희생을 요구했던 과거—은 신국 일본을 지키기 위한 젊은이들의 숭고한 용기로 미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사진 14〉 요로즈요니 위령비

## 2) 반세특공평화기념관

반세특공평화기념관 건물 바로 앞에 비행복을 입은 특공대원이 양각된 위령비가 하나 세워져 있다. 위령비 이름은 ‘요로즈요니<sup>よろずよに</sup>’. 기념관이 위치한 반세 지역명을 혼독한 ‘요로즈요<sup>よろずよ</sup>’에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일본어 조사인 ‘니’를 붙여 평화가 영원한 세월(萬世) 동안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공대원의 시선은 동쪽을 향한다. 자신의 고향 그리고 산화<sup>散華</sup>한

121\_ “震電.” 위키피디아. 2024년 3월 27일 접속. <https://ja.wikipedia.org/wiki/震電>

122\_ “航空機.” 위키피디아. 2024년 3월 27일 접속. [https://ja.wikipedia.org/wiki/B-29\\_\(%E8%88%AA%E7%A9%BA%E6%A9%9F\)](https://ja.wikipedia.org/wiki/B-29_(%E8%88%AA%E7%A9%BA%E6%A9%9F))

후 다 같이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인 야스쿠니를 바라보는 것이다. 기념관 부지에는 요로즈요니 위령비 외에 대여섯 개의 비석과 수많은 석등 그리고 각 단체에서 마음을 담아 보낸 종이학들이 어우러져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기념관 안으로 들어서면 이러한 엄숙함은 더욱 가중된다. 전체적으로 채도가 낮은 어두운 톤의 건물 안에 들어서면 실물 크기의 영식수상 정찰기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다치아라이기념관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반세기기념관의 전투기는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바닷속에서 인양된 것으로, <sup>123)</sup> 반파되어 처참한 몰골 자체로 놓여 있다는 점이다. 입구 바로 왼쪽에는 ‘강아지를 안은 소년병(子犬を抱いた少年兵)’ 사진이 벽면 크게 걸려 조명 두 개가 어슴푸레하게 사진을 비춘다. 육군특별공격대 제72진무대 소속 17세의 소년병 아라키 유키오(荒木幸雄)가 출격 직전임에도 해맑은 표정으로 강아지를 안고 있는 모습이다. 신국 일본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특공대원이 실은 우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평범한 소년이었다는 사실이 사진 속 티 없는 미소로 드러난다. 이 사진이 오늘날 일본 혹은 전 세계 평화가 그들의 피와 눈물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기념관의 주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반세기기념관의 전시에선 당시 가미카제를 가능하게 했던 일본 군부에 대한 비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가미카제에 대한 성찰 없이 젊은 소년병들의 지순한 마음을 강조한 전시가 관람객들로 하여금 어쩌서 가미카제와 같은 비인륜적 작전이 성립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차단하게끔 한다.

전시관 2층으로 올라가면 반세기비행장에서 출격해서 사망한 특공대원 201명의 흑백 영정사진과 그들이 남긴 유서, 유품, 편지들이 함께 전

시되어 있다. 그중 가장 먼저 전시되어 있는 게 반세비행장에서 최초로 전사한 통신병 스키우라 마사토시<sup>杉浦正淑</sup> 병조<sup>兵曹</sup> 124)의 손편지다. 어머니께는 ‘세계 제일의 비행병이 되어 귀축영미<sup>鬼畜英美</sup>를 분쇄하여 대충대효<sup>大忠大孝</sup>를 다하겠다’는 문구가, 동생에게는 ‘남매끼리 싸우지 말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반드시 좋은 국민<sup>125)</sup>이 되어 대일본제국을 지켜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러 떠나는 모습이 부모님께 어떻게 대효<sup>大孝</sup>가 될 수 있었을까. 대일본(제국)이라는 국가와 대일본제국의 국민이라는 단어에 대한 성찰이 결여된 전시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 3) 지란특공평화회관

지란에 도착해서 느낀 것은 마을 자체가 상당히 관광지화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드넓은 버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가면 수많은 석등이 길을 따라 나열되어 있고, 기념품 가게와 카페, 식당 지란차야<sup>知覽茶屋</sup> 126)가 눈에 들어온다. 가미카제 특공대원의 이야기를 우익적 시선으로 그려낸 영화 <나는 당신을 위해 죽으려 갑니다>가 떠오르는 상징물도 이

123\_ 반세특공평화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정찰기는 가고시마현 기세다시(현 미나미사쓰마시)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던 것을 1992년 8월 22일 인양한 것이다. 인양 후 조사한 결과, 동체 내부에는 ‘九飛41116号’라는 제조회사-로트번호가, 기내에 남아 있던 장비에는 ‘隄三〇二’라는 문자가 쓰여 있어 해당 기체가 ‘규슈비행기주식회사’에서 생산된 제302항공대 소속 기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124\_ 일본제국 해군에서 사용하던 계급으로, 현재의 부사관에 해당한다.

125\_ 후리가나로 대일본<sup>だいにっぽん</sup>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 국민=대일본이라는 명제가 성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126\_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 지정식당이었던 도미야식당(富屋食堂)의 주인 ‘도리하마 도메(鳥濱トメ)’의 증손자 ‘도리하마 겐타(鳥濱拳太)’가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호타루관(ホタル館)이라는 자료관의 관광을 겸임한다.

곳저곳에 있었다. 지란특공기지 전투지휘소 터가 위치했던 장소에는 영화의 한 장면과 대본이 새겨져 있는 석비가 세워져 있다. 식당 지란차야 내부에는 해당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의 사인과 함께 영화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다. 지란회관에 들어와서도 건물 앞에 전투기 하야부사<sup>隼</sup>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건물 안 기념품 판매코너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지란의 특공을 다룬 영화<sup>127</sup>가 달리 또 있는데도 왜 지란은 <나는 당신을 위해 죽으려 갑니다>에만 집중하는지 의문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차후 과제로 남겨 두고 싶다.



〈사진 15〉 지란차야에 전시된 영화  
<나는 당신을 위해 죽으려 갑니다>의 기념사진들

지란회관 주변을 둘러보다 시간이 되어 가타리베<sup>語り部 128</sup>의 강연을 듣기 위해 회관 옆에 위치한 뮤지엄지란<sup>ミュージアム知覧</sup>에 입장했다. 강연은 총 네 파트로 나뉘어 있었는데, 대체로 다른 특공기념관에도 적혀 있던 내용이 서술되었다. 강연 내내 상당히 불편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강연을 진행한 가타리베의 설명이 화자 본인의 이해에 기반한 것

이 아니라 달달 외운 대본을 그대로 읊는 것 같다는 감상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마치 무성영화의 번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가타리베는 '전쟁의 비참함, 평화의 소중함, 생명의 존엄성, 가족의 인연'이라는 문구를 몇 번이고 반복하며 되뇌었으며, 삼각병사<sup>129</sup>에서 찍힌 천진한 소년병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출격 전날 침상에서의 대화를 재현했다. 육군 대위 다카시마 순조<sup>高島俊三</sup>의 어머니가 필사한 자식의 유서를 보여주며 '가슴이 먹먹해진다', '어머니는 활발했던 어린 아들의, 20살 아들의 미소를 계속 떠올리며 필사했는지 모른다'는 사족을 달기도 했다. 강연이 진행되는 내내 슬픔에 잠긴 먹먹한 목소리를 연기한다는 감상을 지울 수 없었다.

강의가 끝나고 들어간 전시관에는 육군 특공대원 1,036명의 흑백 사진이 뻑뻑하게 들어 차 있었다. 그들의 유품과 유서, 편지들이 N차 총공격 순으로 정렬되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대개 비슷한 구성을 띠고 있었다.

*아버지는 대동아전쟁<sup>大東亞戰爭</sup><sup>130</sup> 5년째 봄의 명예로운 특별공격대 제 23진무대장으로 산화한다. 어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일본 남자로서, 천황폐하의 자녀로서 멋진 성인이 되어라.(伍井芳夫, 제23진무대 대위)*

127\_ 〈호타루〉.

128\_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직역하면 내레이터나 가이드에 해당한다.

129\_ 특공대원이 기거하던 숙소이다.

130\_ '일본제국 시절 태평양전쟁을 지칭하는 일본 정부의 호칭으로, 패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에 의해 전시 용어로 사용이 금지되었다가 현재는 해제되었다.

하루오는 싱긋 웃으며 죽으려 갑니다. 천황폐하를 위해, 저 증오스러운 귀족들을 황천길 선물로 갖고 가겠습니다. 어머니, 울고 싶어진다면 마음껏 우십시오. 하루오는 미국에 있는 5,000명의 어머니를 울리겠습니다.(袴田治夫, 제106진무대 소위)

지란회관이 보여주는 전시품의 구성은 신국 일본을 지키기 위해 젊은이들이 자진해서 출격했다는 주제 의식으로 치밀하게 짜여 있으며, 국가에 의한 강압의 요소는 일절 보이지 않았다. 태평양전쟁 때 죽은 일본 학도병의 유고를 모은 책 『들어라 와다쓰미의 소리를』에서 나타난 우에하라 료지<sup>上原良司</sup>의 인간 존재에 대한 고뇌<sup>131</sup>)와 죽음을 앞둔 세키 유키오<sup>関行男</sup>의 결의<sup>132</sup>)는 적어도 지란에서 보이지 않았다. 평화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일까. 지란회관의 전시품에선 전쟁에 대한 이해와 반성이 보이지 않았다. 일본제국의 팽창주의와 군국주의가 전부 삭제되고 연합국이 일본에 저지른 행위만 강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과거의 일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진정한 평화는 이룩될 수 없다는 사실이, 세계 영구의 평화를 발신하고자 노력하는 지란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 특공대원의 죽음은 애도되고 있지 않다

특공평화기념관 세 곳 모두 특공대원의 죽음 자체를 애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번에 일본을 방문하며 느낀 감상이다. 특공대원의 희생 덕분에 전쟁 없는 평화 국가 일본이 되었으니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정형화된 패턴 안에서만 특공대원의 죽음이 서술된다. 특공대원 개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체인 유



서와 편지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특공대원의 희생을 강조 하려고 제시하는 단순한 전시 상품이 되어 전후 일본의 희생자 논리를 견고히 하는 데 이용될 뿐이다.

특공평화기념관이 진심으로 특공대원을 기억하고 애도하려면 그들이 남긴 것을 정리하고 전시하는 것에만 그쳐선 안 된다. 특공대원이 어째서 국가의 명령하에 젊은 생을 마감했어야만 했는지, 그 계기에 대한 비판과 성찰 그리고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특공평화 기념관에는 수많은 비행병과 전투기를 하늘로 날려 보냈던 과거에 대한 영광만이 그려져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서술이 지속되는 한, 특공대원의 죽음은 현대 일본에 아무것도 시사하는 바 없는 개죽음과 다를 바 없게 된다.

한국과 일본 모두 특공대원의 죽음 이후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은 죽음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고 제거하고자 하며, 일본은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그들의 희생을 상품화하여 평화 국가 일본의 이미지를 더 견고히 하는 매개체로 이용하고자 한다. 일본의 특공대원을 향한 추모와 애도가 사실은 특공대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공

---

131\_ 하늘의 특공대 파일럿은 하나의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어느 벗이 말했지만, 확실히 그렇습니다. 조종간을 쥔 기계, 인격도 없고 감정도 없고, 물론 이성도 없이 그저 적의 항공모함을 향해 달려 들어가는, 자석 속의 철 분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략) 하나의 기계인 우리는 어떤 말도 할 권리가 없습니다만, 바라건대 사랑하는 일본을 위대하게 만들어 달라고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뿐입니다.

일본전몰학생기념회, 『들여라 외다쓰미의 소리를』, 한승동 역(따주:서커스출판상회, 2018), 10-11.

132\_ 나는 천황폐하를 위해서라도 일본제국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가는 것이다. (중략) 일본이 패전하면 아내가 미국농들에게 강간당할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죽을 것이다. 사랑 하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 어때, 멋지지 않나.

森本忠夫, 特攻 外道の統率と人間の条件(東京:文藝春秋, 1992), 130-133.

대원이 지키고자 했던 제국 일본에 대한 향수를 그리는 방식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어찌 됐든, 한국과 일본 모두 인간의 죽음을 죽음 자체로 추모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진심으로 그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방문했던 현지답사가 더 큰 궁금증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다.

---

# 평화기념관의 그늘과 평화의 길

## : 가해와 피해의 기억

---

윤상민

---

### 목포를 시작으로 규슈로

목포 현지교육을 준비하며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그 책을 통해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서는 주로 어린 청년들로 편성된 ‘특공작전(가미카제)’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작전에는 조선인이 여럿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일본에는 후쿠오카의 지쿠조특공기지의 비,<sup>133)</sup> 지란의 특공용사의 동상<sup>134)</sup> 이바라키

---

133\_ 츠키성 기지에서는 3월 18일 새벽에 대위 장영이 이끄는 5기(15명)가 출격했다. 쇼와 53년 10월 비 건립위원회(위원장 후쿠오카 야스야(福岡靖也))가 기지 내에 설립되어 유족, 관계자, 자원봉사자의 협찬으로 건립이 추진되어 이듬해 3월에 완성되었다. 비는 항공자위대 츠키지 기지 내 활주로를 바라볼 수 있는 베이스 오피레이션 앞에 있다.

134\_ 이 동상의 원형은 유슈칸(遊就館)에 전시되어 있다. 조각가 기타무라 세이보(北村西望)의 ‘해군비행예비생의 상(海軍飛行予備學生之像(雄風))’이다. 현 도쿄예술대학인 도쿄미술학교 교수 시절, 해군 비행예비생으로 지원했다가 산화한 제자에 대한 애도와 진혼의 기원을 담아 제작했다. 이를 제자인 이시구로 코우지(石黒光二)가 확대 제작하여 특공대 전몰자 위령 평화기원협회에서 1999년 3월에 봉납했다.

의 요카렌의 비<sup>予科練之碑 135</sup> 등의 위령비가 있는데, 모두 자체적으로 비에 대한 설명과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존재한다. 반면 한국에 위치한 특공대원의 위령비는 조선인 특공대원 '탁경현'이라는 인물의 것이 유일했는데, 그마저도 일본의 배우 구로다 후쿠미가 계획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목포 현지교육을 통해 탁경현의 위령비가 있는 법륜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직접 보니 마음이 더욱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탁경현의 고향인 사천시에 세워져야 할 위령비가 주민들의 거부로 법륜사에 임시로 두었을 뿐 아니라 관리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진 외로운 역사를 보는 것만 같았다. 아직도 조선인 특공대원이 친일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는 아닐까. 애국과 매국의 경계에 서 있는 조선인 가미카제 특공대원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전쟁이라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규슈로 떠났다.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 반세특공평화기념관, 지란특공평화회관 중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앞의 두 평화기념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가해의 역사는 어디에)

먼저 평화의 메시지를 기대하며 첫 조사지인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을 방문했다. 살상 무기인 그 당시 일본의 전투기들을 전면 배치하고 기념관의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함으로써 방문자로 하여금 그곳에 이목을 집중하게 했다. 천장에는 미군 비행기의 모형 프레임이 우뚝 자리하고 있었다. 전쟁 당시에 하늘을 가르던 기체를 바라보았을

주민들의 공포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 같았다. 또 그곳에서는 “미군의 공습으로 인한 비극이 있었다”라고 서술하며 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상세히 밝힌 반면, 전쟁의 시작점인 진주만 공습은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 연표에서 날짜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일제가 전쟁을 왜 일으켰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쉽지만 찾아볼 수 없었다. 가해의 역사를 마주하지 않는 평화기념관을 바라보며 그곳이 말하는 평화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 반세특공평화기념관(장렬하게 산화하여 평화를 가져온 특공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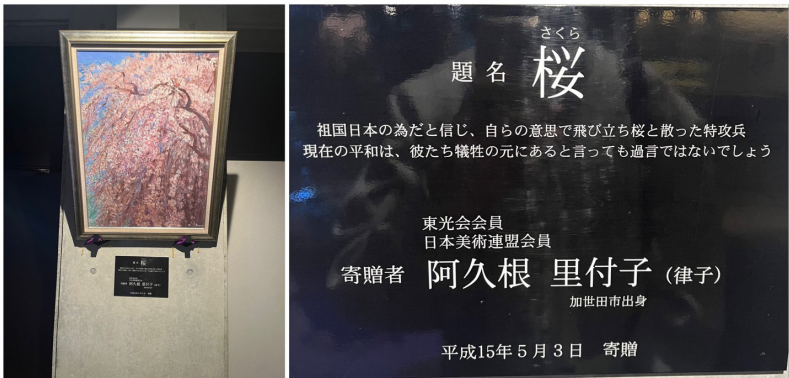
1층에는 부식된 전투기 하나가 기념관의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마치 수고한 기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이곳에 고이 모셔놓은 것만 같았다.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그 기체가 나에게 주는 감정은 전쟁의 끔찍함보다는 자랑스러움의 감정이었다. 그렇게 어느 순간 기체를 붙잡고 여기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이 기체에 자꾸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환하게 웃는 어린 특공병들의 사진이 입구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며 어린 나이에 가족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특공병들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감정이 올라왔다.

---

135\_ 예과련(일어로 '요카렌') 출신들은 1937년 중국 사변의 도양폭격을 시작으로 대동아전쟁에서 해군 항공전력의 핵심이 되어 용전분투했으며, 특히 1944년 특공작전이 시작되자 그 주축이 되어 항공, 수중, 수상 각 특공작전을 감행해 졸업생의 80%가 순국하여 젊은 목숨을 바쳤다. 쇼와 41년에 예과련 출신 생존자들이 쓰치우라 하늘터 한쪽에 유비원을 조성했고, 그 안에 예과련 동상(쓰쓰미 다쓰오(埴達男) 씨 작품)을 얹은 예과련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위령제는 매년 해원회(海原會)에서 거행하고 있다.

사진 촬영이 불가능한 2층에서는 특공대원들의 편지와 유서, 일기 등을 볼 수 있었다. 그곳에 있는 내내 슬픔과 안타까움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이곳에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감정만 느끼고 끝났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전쟁이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는 이야기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많은 희생이 있었기에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전쟁이 발발한 근본적 원인을 바로 알고 앞으로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서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이 바로 기념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사진 속 푯말에서 평화기념관은 특공대원의 죽음을 '산화'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벚나무 그림과 푯말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있었다.



〈사진 16〉 반세특공평화기념관 내부 벚꽃 그림과 그림 설명(촬영 윤상민, 2024)

조국 일본을 위해, 자신의 의사로 날아올라 산화한(꽃이 되어 시들어버린) 특공병. 현재의 평화는 그들의 희생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반세 특공평화기념관에 비치된 벚나무 그림과 그 아래 꽃말의 내용)

여기서 산화를 논하려면 ‘산화’가 무엇인지는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산화<sup>散華</sup>’는 꽃다운 영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일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꽃다운 영’은 젊은이들을 뜻하고 ‘꽃’은 일본에서 벚꽃(사쿠라)으로 통용된다. 태평양전쟁 당시, 특공기에 만개한 사쿠라 문양을 그리거나 특공대원들이 벚나무 가지를 옷에 꽃고 출격하거나 그들을 배웅하는 소녀들도 벚나무 가지를 흔드는 장면이 흔히 연출되었다.<sup>136)</sup>

반세특공평화기념관은 특공대원들을 산화한 영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특공대원들이 장렬히 산화한 영웅이 아니라 그저 비상식적인 작전에 동원된 피해자가 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가해자가 누구인지 캐묻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누구인가. 계속 책임을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가장 꼭대기엔 군의 통수권자인 천황이 있다. 즉, 반세특공평화기념관은 전쟁 당시 천황의 책임을 면책하고, 그의 통치하에 있던 대일본제국의 만행을 감추기 위해서 특공대원을 산화한 영웅으로 미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세특공평화기념관은 대일본제국의 전쟁 책임을 덮기 위해 대본

---

136\_ 박규태. “감정의 야스쿠니: 야스쿠니 가요를 중심으로.” *日本研究* 24(2015): 31-60.

137\_ 전시 중 또는 사변(事變) 중에 설치된 일본제국 육군 및 해군의 최고 통수 기관이다. 천황의 명령을 대본영 명령(대본영 육군부 명령(大陸命), 대본영 해군부 명령(大海命))으로 발하는 최고사령부로 기능하는 기관이었다. (“대본영.” 위키피디아. 2024년 4월 17일 접속.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B%B3%B8%EC%98%81>.)

영<sup>137)</sup>의 주특기였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신화 만들기를 아직 놓지 않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두 평화기념관 모두 태평양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등을 서술하지 않았다. 특공대원의 죽음을 의미 없는 ‘개 죽음’으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산화’라는 말이 특공대원의 죽음을 미화하고, 그로써 가해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방문자에게 방해가 된다면 ‘산화’라는 말은 잠시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 평화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평화를 위해 누구보다도 가해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할 평화기념관이 실상은 피해의 역사만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화기념관을 방문하면서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기보다, 그저 눈앞의 슬픔에 잠겨버리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평화기념관이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특공대원들이 겪은 피해의 역사를 바라볼 뿐 아니라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일제의 만행을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때 비로소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세상에는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닥칠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평화에 이른 상태라고 생각한다. 이에 비취 대학생인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피해의 역사와 가해의 역사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고 내가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번 현지교육에서 얻은 것을 정체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평화기념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 일본이 말하고자 하는 ‘평화’란 무엇일까?

---

박철웅

---

## ‘특공’을 통해 ‘평화’를 이해하다

지난 2월,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현지조사로 일본 규슈에 있는 세 특공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작년 12월에 진행한 국내 워크숍인 ‘경제’에 대한 재고와 모색’에 이어, 규슈 현지조사로 조선인 가미카제와 경계라는 관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다. 이번 활동으로 ‘특공대 特攻隊’가 형성되기까지 대일본제국이 갖고 있던 사상을 이해하고, 현대에서 ‘특공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특공대란 태평양전쟁 중 조직된 ‘자살 공격’ 특별 부대를 일컫는 말이다.

규슈 현지조사 동안 방문한 기념관은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 반세 특공평화기념관, 지란특공평화회관 세 곳이다. 이 세 곳의 이름에는 모두 ‘평화’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나는 이 점에서 ‘평화’란 무엇인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지난 국내 워크숍 동안 조선인 가미카제를 조사

하면서 그들을 단순히 가해자, 피해자라고 나눌 수 없는 ‘경계’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것이 인류가 만들어낸 목표인 평화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이 말하고 싶은 ‘평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했다. 전쟁을 바라지 않고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반성이 담긴 의미인지 혹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이번 현지조사에서 알아보려고 하였다.

## 특공을 기억하는 공간들

### 1)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

규슈에 도착해 처음으로 향한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은 일본 후쿠오카현 지쿠젠정에 있다.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은 과거 전시 상황에서는 특공대 중계 기지<sup>138)</sup>로 사용됐으며, 여러 특공대원을 양성한 훈련 학교였다. 기념관으로 들어서면 머지않아 커다란 영식함상전투기<sup>139)</sup>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에서는 영식함상전투기만 촬영할 수 있었다. 이외에 출격 전 특공대원의 편지, 유서 등을 볼 수 있지만 촬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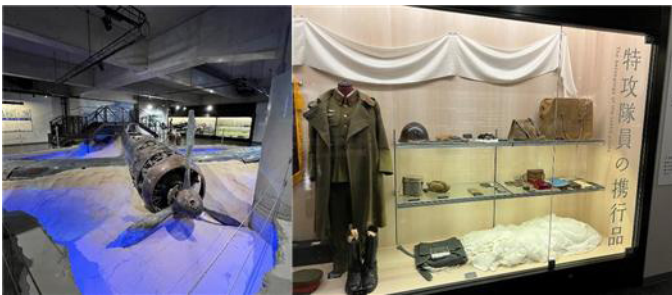


〈사진 17〉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 내부 영식함상전투기(촬영 박철웅, 2024)

불가능했다. 편지나 유서를 보면 특공대원들은 천황에게 글을 올린 자들이 많았다. 죽음을 앞두고 임무 완수와 천황을 위한 충성을 보이는 이념이 형성된 듯 보였다. 기념관에는 전쟁의 흐름도 적혀 있었는데, 생각보다 자세해서 놀랐다. 하지만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起きる(일어남)’라고만 적혀 있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알기 어려웠다. 일본이 일으킨 사건을 ‘일어남’이라고만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가해 책임을 무시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다.

## 2) 반세특공평화기념관

이틀 차에 방문한 반세특공평화기념관은 가고시마현에 있다. 반세특공평화기념관은 첫날 방문했던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보다 규모가 조금 더 컸다.



〈사진 18〉 반세특공평화기념관 내부 제로센 전투기(좌)와 특공대원 휴대품들(우)(촬영 박철웅, 2024)

138\_ 특공대 지휘부와의 연락 및 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지.

139\_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일본의 함상전투기. 주로 제로센(霧戰)이라고 불린다.

대체로 첫날 방문했던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과 비슷한 감상을 느낄 수 있었다. 1층에는 전투기를 비롯해 기관총과 같은 무기, 특공대원의 휴대품 등이 전시되어 있었고 2층에서는 특공대원의 유서 등을 볼 수 있었다.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에서도 들었던 의문이지만, 특공대원의 흔적을 영광스럽게 비추고 있는 점에서 “특공사<sup>特攻死</sup>는 위대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살공격이라는 무모한 작전과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상충해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반세특공평화기념관은 전쟁 무기들과 함께 실제 영식함상전투기를 볼 수 있어 그 시대의 명예를 전시하는 느낌을 주었다. 과거 일본은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미군의 항공모함과 경순양함 등을 침몰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미군이 일본 본토로 진격하지 못하도록 최후의 수단으로 병사들의 목숨을 희생한 것이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비행기 조종사는 당시 귀중한 인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재들을 일회성 무기로 취급했다는 것이 너무 이상했다. 당시 일본은 국민의 목숨보다 국가의 존속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일까. 어찌면 신민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사상이 만연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3) 지란특공평화회관

3일 차에 가게 된 지란특공평화회관은 사흘간 본 기념관 중 가장 규모가 컸다. 그렇기에 다치아라이·반세기념관보다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 태블릿을 대여하면 일부 자료들을 한국어 음성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지란특공평화회관 바깥

에는 오래되어 보이는 급수탑, 착륙 훈련 시설, 탄약고 등 옛 지란비 행장의 모습이 잘 유지되어 있었다.



(사진 19) 지란특공평화회관 외부 급수탑(촬영 박철웅, 2024)

회관에서는 좋은 기회를 얻어 가타리베(語り部 140)의 특강을 들을 수 있었다. 특공과 특공회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는데, 그중 마음 한 편에 남았던 것은 가미카제 지원병들은 대체로 ‘자원’하였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전쟁에 고조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두고 온전히 ‘자원’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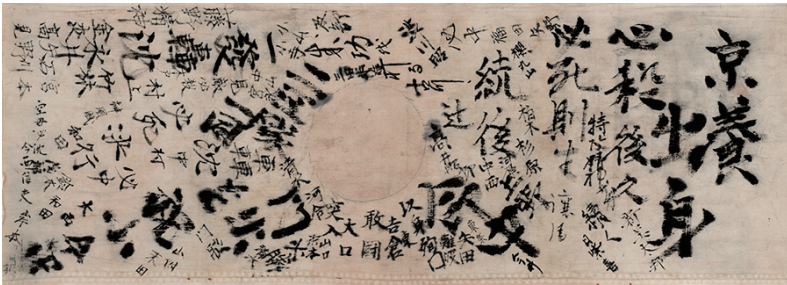
지란특공평화회관에는 수많은 특공대원의 일생과 유서,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지란특공평화회관의 설립 의의에는 이러한 비극을 다시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회고가 담겨 있다. 하지만 그들의 행적을 단순히 기록만으로 남겨놓았을 뿐 정작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고 느꼈다.

---

140\_ 어떤 사건이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로 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 특공대원의 광기를 엿보다

사흘간 기념관 세 곳을 체험하면서 공통적으로 본 것은 특공대원의 유서에 적혀 있던 ‘若桜(젊은 벚꽃)’, ‘散る(흩어지다)’라는 단어였다. 당시 오키나와 전투가 봄에 발발했던 점, 벚꽃이 대일본제국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점과 짧은 기간 피고 지는 벚꽃의 특징이 맞물려 ‘若桜’와 같은 단어가 많이 보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사진 20) 파일럿 양성소 선생님인 특공대원에게 제자들이 적은 요세가키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요세가키<sup>寄書き 141)</sup>와 유서에는 ‘君(군)’, ‘皇(황)’이라는 단어가 많이 적혀 있었다.<sup>142)</sup> 두 단어는 모두 임금을 뜻하는 한자로, 일본에서 보통 천황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출격 전에 남기고자 하는 말이 천황을 향한다는 점에서 천황에 대한 일본군의 감화와 광기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擊沈(격침)’과 ‘轟沈(굉침)’이라는 단어도 많이 볼 수 있었다. 가미카제는 미군함을 격침하겠다는 목표가 있었고, 그 의지가 분명했다. 일본군에게 전쟁의 승패보다 미군함 격침이라는 목표만이 중요해 보였다. 이로써 당시 병사들의 정신 상태가 전쟁의 광기로 물들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 ‘평화’보다는 영광의 흔적이 남아 있던 기념관들

이렇듯 특공의 흔적을 전시하는 기념관에서는 ‘평화’라는 단어보다 특공대원의 광기와 희생이라는 두 단어를 더 많이 떠올릴 수 있었다. 기념관에서 ‘평화’를 떠올리기 어려운 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가미카제 행적을 영광스럽게 비추고 있다는 점이다.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특공대원의 생애, 업적 그리고 유서였다. 대일본제국을 위해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바쳐 일본을 지켜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듯 보였다. 태평양전쟁은 일제의 만주 침략부터 점차 전쟁 규모가 커지며 진주만 공습으로 발발한 사건이다. 하지만 정작 기념관에는 일본이 일으켰다는 사실이 적혀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 또한 가미카제 행적을 미화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조직된 가미카제는 인류 역사상 엽기적이고 무모한 전술인 자살 공격을 감행했다. 일본은 이 사건을 숭고한 희생이 아닌 국가의 치부로 인식하고, 앞으로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 그들이 자발적으로 특공대에 지원했다고 주장하는 점이다. 셋째 날 방문했던 지란특공평화회관에서 가타리베의 도움으로 들었던 음성자료에서는 특공대원 생존자가 자신이 자원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지조사 전에 조선인 가미카제를 다룬 일본

---

141\_ 여러 사람이 함께 하나의 종이나 물건에 각자 메시지를 쓴 깃발을 말한다. 일본제국 시기에는 보통 일본군 병사들이 출격하기 전 가족, 친구, 동료들이 병사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적었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졸업, 은퇴 등의 행사에 친구나 동료들이 축하 메시지를 적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142\_ 지란특공평화회관 홈페이지. “パイロット養成所の先生である特攻隊員へ、教え子たちの寄せ書き.”  
[https://www.chiran-tokkou.jp/museum\\_kids.html](https://www.chiran-tokkou.jp/museum_kids.html)

영화 <호타루>(2002)와 일본인 특공대원의 사연을 그린 영화 <나는 너를 위해 죽으러 간다>(2007)를 보았는데, 두 영화 모두 주인공이 특공대에 자원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두 영화와 지란의 음성자료는 공통적으로 주인공이 과거 '특공대'였음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례가 동고동락했던 전우를 잃을 수 없다는 '전우애'인지 국가를 지키려는 '애국심'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특공대원의 행적을 미화하는 기념관의 모습과 영화가 젊은 청년들이 특공대에 자원했다고 주장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셋째, 당시 상황 속 일제의 매스 프로파간다를 무시한 점이다. 일제는 특공사한 병사들을 군신(전쟁영웅)으로 추앙하며,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를 통해 전쟁 프로파간다로 활용하여 병력을 동원했다.<sup>143)</sup> 또한 일본에서 군신으로 남는다는 것이 특공대원에게 큰 명예를 부여하고 가족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한다고 선전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특공대원이 순수하게 '자원'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기념관이 전쟁 피해와 특공사의 안타까움만 강조하는 듯 보여 아쉬웠다.

### 일본이 말하고자 하는 '평화'란 무엇일까?

현지조사 동안 세 기념관을 다니면서 의문이 든 점은 일본이 말하고자 하는 '평화'의 의미였다. 세 기념관 모두 이름에 '평화'라는 단어가 있지만 전시 내용은 전쟁에 사용된 무기와 전투기들로, 평화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일제가 미군 함대를 격침했던 사진과 일본군이 쓰러진 사진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으나 피해국과 관련된 사진은 보기 어려웠다. 과거 침략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수



많은 목숨을 앗아간 일본은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자국의 역사와 책임을 마주할 수 있는 전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일본 기념관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이 침략전쟁임을 명시하지 않아 방문자들이 해당 사건의 경위를 이해하기 어렵다. ‘평화’라는 단어를 단순히 전쟁을 반대한다는 의미로만 사용한 것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평화’를 논하려면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에 얽힌 복잡한 갈등을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본질적인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곧 동아시아 협력의 길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일본이 말하고자 하는 평화와 특공의 의미를 바라보며, 지난 국내 워크숍에서 다루었던 ‘경계’라는 주제를 되새겼다. 이전 워크숍에서 한일 간 ‘위령’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면서, 사천시의 귀향지원비 건립 반대 사건을 보고 성숙하지 못한 한국의 태도에 실망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위령에 얽힌 한일 간의 인식 차이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위령을 알기 전에 일본이 특공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특공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했다. 일본 특공기념관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전쟁과 평화라는 경계에서 인간의 목숨과 가치에 대한 의문을 더 심화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또한 세 기념관을 다녀오면서 다른 일본 박물관은 근대 일본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을지 궁금증이 생겼다. 추후 박물관을 중심으로 일

---

143\_ 이형식. “태평양전쟁시기 제국일본의 군신만들기-『매일신보』의 조선인특공대(神驚) 보도를 중심으로-.” *日本學研究* 37(2012): 193.

본 여행을 계획하고 자국의 역사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 나아가 포스트 제국의 동아시아라는 주제에서 한일 간 차이점을 바라보고, 새로운 주안점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미래 동아시아의 공존으로 가는 길로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

# 한국과 일본에서 바라본 가미카제

## :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그들

---

이영석

---

### 가미카제, 그들을 처음 바라보았던 순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에 연구보조원으로 다닌 지 1년쯤 되었을 때 한림대학교 홈페이지에 한 공지가 올라왔다.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 현지교육 참가자 모집 안내’였다. 2024년 졸업을 앞둔 상황이었기에 현지교육이라는 단어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특히 더 매력적이었던 점은, 바로 이번 현지교육에서 일본 규슈에 있는 가미카제 평화기념관 두 곳과 평화회관 한 곳을 방문한다는 것이다. 나는 한림대학교에 입학한 2018년부터 가미카제와 관련이 있었다. 학교 강의 시간에 『영원의 제로』<sup>144)</sup>라는 책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면서 책과 관련

---

144\_ <꿈을 파는 남자>, <빛나는 밤>의 작가 하쿠타 나오키 소설. 전쟁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아 돌아가고 싶었던 한 사나이의 처절한 이야기로, 2013년 일본에서 영화화되었다. 미드웨이에서 필리핀 전선까지 디테일한 전쟁 묘사가 인상적인 작품이다.

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행동이 가미카제 특공대였던 것을 알게 되었고 가미카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다. 그렇게 자료를 찾아보던 중 알게 된 책이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sup>145)</sup>였다. 그렇게 관심 가지던 주제를 직접 가서 볼 수 있다는 점에 더욱 매력을 느끼고 신청했다.

###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알아보기

일본 규슈를 방문하기 전, 연구소 소장님께서 참여자들과 함께 두 번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중 소장님께서 “가미카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규슈 현지교육 참여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알기 위해 인원수만큼 팀을 나누어 조사했다. 여기서 내가 조사한 사건은 레이테만 해전이다.

레이테만 해전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전투로 일본의 해군 전력 이 거의 소실되었으며, 이 해전에서 처음으로 가미카제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부분이다. 레이테만 해전 이외에도 다른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벌인 진주만 공습 같은 사건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알게 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가해자로 보이는데 왜 일본에 가미카제로 죽어간 그들을 위령하는 평화회관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러한 의문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이전에 나는 가미카제에 대해 어떤 조사를 했는지 생각해 보았다. 기억에 남는 조사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4학년 1학기에 일본학과 수업 중 근대 일본의 모습이라는 강의를 듣게 되었던 것, 둘째는 4학년 2학기에 일본학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을 다녀온 것이었다.

근대 일본의 모습이라는 강의의 기말과제는 근대 일본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 리포트 주제를 생각하던 중 예전에 관심 있었던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라는 책을 떠올렸고, 주제를 조선인 가미카제로 정하고 관련 논문 등을 찾아보았다. 자료를 찾으며 놀랐던 것은 한국에 조선인 가미카제를 위한 연극<sup>146)</sup>이 있었고, 그들을 위한 귀향기원비가 있었다는 것이었다. 특히나 조선인 가미카제 기원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말 리포트를 작성하였기에 기억에 남아 있었다. 이에 대해 짧게 소개하면, 꿈에서 조선인 가미카제 탁경현을 보고 그의 흔적을 쫓아 한국으로 찾아온 구로다 후쿠미라는 분이 있었다. 그녀는 직접 탁경현의 고향인 경남 사천에 귀향기원비를 세우려는 제막식을 진행하였지만, 무산되었다. 이는 2008년 5월 10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리포트를 쓸 시기에는 거의 15년이 지나 있었다. 하지만 제막식이 무산된 이후 15년이 지나 그 귀향기원비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조사까지는 진행하지 않은 채 리포트를 제출했다.

다음으로 4학년 2학기에 다녀온 워크숍이다. 일본학연구소 연구보조원들은 학기 중에 소장님과 함께 매달 두 번 목요일<sup>147)</sup>을 진행한다. 2학기에 들어서 목요일이 끝나갈 즈음 소장님께서 국내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계획서를 작성할 인원을 모집한다고 하여 지원했다. 추가로 덧붙이신 말씀 중 소장님께서 지난 여름방

145\_ 김윤형,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 경기: 서해문집, 2012.

146\_ 연극 〈가미카제 아리랑〉, 2019년 2월 9일~17일까지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진행된 연극이다.

147\_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책을 한 권 선정하여 다 같이 읽고 궁금한 부분이나 토론하고 싶은 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독서토론회다.

학 기간에 가미카제 평화회관 세 곳을 방문했다고 말씀하셨다. 소장님 이야기를 들으니 지난 학기에 작성한 가미카제 리포트가 떠올랐고, 이와 관련된 계획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계획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가미카제 기원비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하던 중 기원비가 현재 위치한 장소가 경기도 용인인 것을 알고 놀랐다. 20년 가까이 용인에 살면서 귀향기원비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았기에 다행이라 생각하고 용인 법륜사에 가미카제 기원비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를 소장님께 제출했다.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가미카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라는 책을 참고해 가미카제가 어떠한 작전인지, 조선인 가미카제가 몇 명이고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현재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에 가미카제 기원비를 세운 구로다 후쿠미의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sup>148)</sup> 라는 책을 통해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제막식을 열려고 했는지는 물론 기원비가 한국에 남아 있게 된 경위를 알게 되었다. 또한 여러 가미카제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보면서 한국에도 다치아라이육군비행학교라는 가미카제 분교가 서울, 대구, 대전, 전북 등에 있었으며, 현재는 미군기지로 바뀐 곳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많은 자료를 봐왔기에, 가미카제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국내 워크숍은 생각과 다르게 흘러갔다.

## 국내에서 바라본 가미카제

워크숍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팀별로 가미카제 관련 내용이나 목포

와 군산에 있는 적산가옥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우리 팀은 가미카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특히 그동안 바라보지 않았던 가미카제가 시작되기 전 시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가미카제가 시작되기 전, 조선은 항공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당시 조선 상공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대부분 일본인이나 외국인이 몰아서 간접 체험을 할 뿐이었다. 하지만 안창남이라는 사람이 조선의 상공을 나는 고국 방문 비행을 성공했다. 이로써 조선 또한 근대기술에 도달했다고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후 많은 이들이 일본으로 넘어가 비행사 자격을 얻고 조선에 와서 고국 방문 비행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같이 하늘을 나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정말 대단한 일이었으며, 이후 조선인 특공대원이 되는 이들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목포에 가서 발표했다. 이 발표를 한 이후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라는 책을 발제한 다른 팀의 발표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남았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는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발표 중 책에 조선인 가미카제였던 사람들의 이름, 직책,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적혀 있는 표를 소개했다. 거기서 작전에 실패한 사람과 특공기 방화범으로 몰려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일본에서 특공사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여기서 나는 한국과 일본에서 각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이 들었다. 하지만 이 고민은 당장은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

148\_ 구로다 후쿠미.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조양옥 역. 인천: 타임라인, 2018.

일단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든 그들을 기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정리한 채 다음 날 법륜사에 도착하여 먼저 기원비와 삼족오 상을 확인하고 동료 연구보조원들과 같이 와주신 행정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행정 선생님이 특이하다는 눈빛으로 귀향기원비를 보면서 내게 이것저것 물어보셨고,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 귀향기원비를 만든 구로다 후쿠미는 자신이 꿈에서 본 조선인 가미카제 탁경현을 찾아서 한국에 왔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꿈속에서 봤다는 이유만으로 그분이 한국까지 찾아와서 사비로 귀향기원비를 만들어 세운다는 생각이 부자연스럽다고 보였다. 이러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이 기원비를 받아주신 현암 스님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갑작스럽게 부탁드린 인터뷰였으나 다행히 이를 받아주신 현암 스님께 정말 감사했다. 인터뷰에서 나는 구로다 후쿠미의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에서 본 매년 구구절이 되면 한국에 와서 법륜사에 들른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그 귀향기원비를 어쩌다 받아주시게 되었는지 여쭙었다. 이에 현암 스님께서 기원비를 받아준 경위와 이후 그 석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현암 스님과 함께 귀향기원비 앞에서 사진을 찍고 한림대학교로 돌아오면서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 논문으로 미리 다녀와 본 평화회관

다시 현지교육을 가기 전으로 돌아와서, 참여하는 연구보조원들이 가미카제 관련 논문을 찾아 그중 몇 개 논문을 중심으로 각자의 생각을 담은 발표문을 하나 만들었다. 여기서는 팀별로 논문을 1개 혹은 2



게 읽고 논문 내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드는 점을 찾아 조사하게 되었다. 내가 속한 팀에서는 “‘산화(散華)와 ‘난사(難死): 전후 일본의 특공의 기억과 재현에 관한 연구”<sup>149)</sup> 라는 논문을 선정했다. 이 논문은 지란특공평화회관이 생기게 된 계기부터 진입로에 있는 석등, 내부에 있는 벽화 등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했다. 특히 현재 지란특공평화회관은 마을 만들기 특별대책사업으로 개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조출한 유품관에서 10배가 넘는 크기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다. 이 논문의 내용은 이후 규슈에 가서 여러 평화회관을 방문하면서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태평양전쟁에 대한 조사와 가미카제 논문에 대해 연구보조원 한 명, 한 명이 살펴보고, 조사하기 어려운 내용은 여럿이 분량을 나눠 조사한 후 서로의 배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규슈로 출발했다.

### 일본에서 바라본 가미카제

규슈로 출발한 2월 19일, 연구보조원들은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에 도착했다. 기념관 1층에는 특공기에 대한 설명부터 다치아라이비행장 건립 과정, 가미카제의 특공기 제로센에 대한 설명 등이 있었으며 주기적으로 동일한 영상을 볼 수 있게 영상을 틀어놓은 상영관이 있었다.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바닥에 지도<sup>150)</sup>와 제로센 모형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치아라이는 제로센을 찍는 것 이외에 사진

149\_ 이영진, “‘산화(散華)와 ‘난사(難死): 전후 일본의 특공의 기억과 재현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45 no.3(2012): 63-104.

150\_ 다치아라이비행장과 주변 시설의 위치 규모를 알 수 있는 지도다. 다치아라이비행장과 주변의 현재 모습을 담은 항공사진이며 바닥에 있다.

촬영이 금지되어 있었다. 2층에서는 기업전시 코너가 눈에 띄었다. 다양한 기업전시를 하는 곳인데, 여기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일본이 생각하는 가미카제는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평화회관을 방문하였는데, 가미카제와는 관련 없는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층 상영관에 비해선 그다지 큰 충격은 아니었다. 상영관에서는 피해받은 사실을 강조한 모습만 영상에 담겨 있었다. 여기서 왜 이들은 이러한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했고, 군인을 제외한 일본의 국민은 전쟁으로 직접적 피해를 받지 않다가 큰 피해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한 이후 일본은 자기 나라 땅에서 전투를 벌인 적이 없었고, 오키나와 전투가 그들의 첫 본토 전투였기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을 만들고 영상을 본 사람들이 영상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힘냈다. 그들은 웃는 표정이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 영상을 보는 이들에게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강조한다. 영상에는 “목숨을 바쳐 지켰기에 그들의 희생을 잊어선 안된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 문장만 보았을 때, 가미카제 덕분에 일본이 지켜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이 가미카제를 통해 전쟁이 끝날 시기를 미루었기에 오히려 그들의 죽음은 옳바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루를 보낸 다음 날, 반세평화기념관에 도착했다. 반세평화기념관에서 1층은 촬영할 수 있지만 2층은 촬영할 수 없었다. 1층에 평화기념관을 다녀간 일본인 초·중등학생의 감상이 있었다. 초등학생의 감상에서는 전체적으로 전쟁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내용과 특공대의 대단함에 감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중학생의 감상은

1층에 있는 파손된 특공기나 2층에 있는 혈서를 보고 놀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반세평화기념관 1층에는 앞에서 봤던 감상대로 파손된 특공기와 반세비행장이 지어진 과정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이를 확인하면서 2층에 올라가 보니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있었다. “이 평화기념관은 건설 비용의 일부를 기부받아 건설할 수 있었고, 여기에 전시된 사진이나 자료는 전후 유족이 보관하던 중요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안내문을 통해 대부분 기부금이나 유족에게 받은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층에 전시된 자료에서 조선인 2명을 찾아냈다. 이후 가미카제의 유서를 보는데, 유서로는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 있었다. 바로 “良イ国民トナリ大日本帝国ヲマモレ”이다. 번역하면 “훌륭한 국민이 되어 대일본제국을 지켜라”라는 뜻이다. 이는 소장님께서 연구보조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으로, 이러한 내용을 통해 가미카제가 자행되던 시대에 일본인들이 지닌 사상을 알 수 있었다. 혈서 코너라고 하여 그들의 피로 적은 유서도 있었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다음에 한 번 더 와야 한다고 생각한 순간이었다. 반세평화기념관은 이전에 방문한 다치아라이와 달리 유서를 중심으로 전시했으며, 혈서 코너와 같이 다양한 유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반세평화기념관에서는 왜 그들의 전시가 이렇게나 다른 것일까? 하는 고민이 남았다.

### 알면 알수록 멀어지는 그들

두 평화기념관을 다녀오면서 생긴 여러 고민을 안고 다음 날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지란특공평화회관이었다. 이곳은 다른 두 평화가

념관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다른 두 평화기념관은 평화기념관이 있는 장소라는 느낌이면, 지란특공평화회관은 마을 자체가 평화회관에 맞게 꾸며진 듯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살펴본 곳은 지란특공평화회관의 밖이었다. 밖에는 여러 석등이 난잡하게 배치되어 있어 좋지 못한 첫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석등별로 A와 같은 알파벳과 -1 등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 어느 정도 관리하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가미카제를 영화화한 <호타루>의 비를 보면서 가미카제였던 그들을 기린다는 느낌보다는 그들을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이후 특공의 어머니라고 불린 도메라는 분이 운영했던 밥집을 손자가 이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지란특공평화회관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다. 소장님께서 도움을 주신 덕분에 학예사들에게서 특강을 듣고 질의응답을 할 시간이 주어졌다. 여러 질문이 있었지만, 나는 평화회관 밖에 있는 석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석등을 헌납해 주시는지, 석등에 있는 알파벳과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여쭙보았다. 먼저 석등은 고위직 관계자, 견학자들이 대부분 헌납하며, 알파벳은 석등 위치를 구분한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다. 이렇게 석등 위치를 구분해야 헌납해 주신 분이 방문하였을 때, 위치를 안내해 줄 수 있다고 했다. 이후 소년 비행병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관계자가 가미카제에서 엔진 문제로 살아남은 분의 인터뷰를 들려주었다. 이 인터뷰를 들으며 지금까지 가미카제와 관련해 알아보고 정리했던 생각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인터뷰에 따르면, 가미카제는 특공병으로서 뛰어난 사람을 뽑아 진행하는 방식이었으며, 특공병으로 뽑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동안 가미

카제에 대해 억지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인식밖에 없던 큰 충격을 받았다.

지란특공평화회관의 전시를 보려고 했지만 너무 큰 충격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또한 이전 평화기념관보다 커서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렇기에 이번 현지교육 이후 더욱 많은 자료를 조사하여 두 번 정도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지란특공평화회관에서는 조선인을 11명 찾을 수 있었다. 내부에 들어가면 가미카제 특공대였던 사람들의 사진이 벽에 붙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사진 설명에 조선朝鮮 한자가 적혀 있어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인 특공대원을 찾는 과정에서 소장님이 놀라운 말을 해주셨다. 바로 일본 출신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조선인일 가능성을 배제한 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실히 그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 규슈 현지교육을 되돌아보며

이후 평화기념관 두 곳과 평화회관 한 곳을 방문했던 기억을 되새기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규슈를 방문하기 전에 현지교육을 통해 가미카제를 사전 조사해 보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란특공평화회관에서 느낀 그 충격을 떠올리면, 아직 가미카제에 대한 배움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는 생각을 정리할 수 없다. 세 곳을 방문하면서 궁금증이 늘어났을 뿐이다.

반세평화기념관에는 다치아라이와 다르게 방문했던 초등학교, 중학교의 감상문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헬서 코너와 같이 다치아라이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전시가 있었다. 그렇기에 왜 이 두 평화기

념관은 닳아 있지만, 다른 모습인지 궁금해졌다. 마지막으로 지란특  
공평화회관에서는 내부 전시는 제대로 보지 못해 설명하기 힘들지만,  
외부의 석등이 다른 평화기념관에 비해 정말 많았다. 그리고 가미카  
제에 참여했던 특공병 인터뷰에서 생각지도 못한 충격을 받았다. 자  
료를 조사하면서 가미카제는 자살 공격일 뿐이라고 일본인도 부정적  
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으나 꼭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괴리감에 놀라 제대로 전시를 보지 못한 채  
그저 지란평화회관을 둘러보았을 뿐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전부 규슈  
현지교육을 받았기에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현지교육을 통해 이  
런 경험을 얻을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다. 앞으로 계속 조사하면서 그들  
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Chapter  
03



## 일본인이 생각한 일본과 평화 그리고 가미카제

---

우리가 가미카제 특공대를 공부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일본인은 가미카제 특공대와 관련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중에서도 우리 또래의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번 장에는 규슈 현지교육 일정을 함께한  
메이오대학 학생 두 명의 솔직한 심정을 실었습니다.



---

#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의 중요성

: 한일 교류를 다녀와서

---

주권지 아오이<sup>仲元寺</sup>

---

## 일본인(일본인 대학생)으로서 가미카제와 태평양전쟁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일본인으로서 가미카제와 태평양전쟁을 생각할 때면 특공대원을 비롯해 태평양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자, 살아남았어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자들이 떠올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와 동시에 일본을 지키고 전후 부흥을 위해 노력해 준 것에 감사한 마음도 있었다.

나는 평화학습을 적극적으로 하는 초·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평화와 전쟁에 관심을 가지고 자랐다. 그 시절 매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이면 여름방학 중임에도 전교생이 등교하여 원폭 투하 시각에 묵념하고,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의 원폭 희생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또한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평화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각 반에서 평화를 주제로

토론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토론에서는 주로 태평양전쟁으로 피해를 본 일본인들(주로 원폭과 오키나와 전투로 인한 희생자)의 모습이나 특공대와 관련된 주제가 많이 제시되었다. 나를 포함한 학생들은 이 학습을 통해 “다시는 전쟁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배웠다.

이 평화학습에서는 태평양전쟁이 시작된 배경, 원자폭탄이 투하된 배경, 오키나와 전투와 특공대가 출동하게 된 배경 등의 역사를 시간 순으로 나열하여 공부하기도 했다. 이 수업에서는 태평양전쟁의 일련의 흐름을 어디까지나 역사적 사실로 객관적으로 가르쳤고 선생님들도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전쟁으로 피해를 본 일본인의 영상과 사진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태평양전쟁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인으로서 조상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슬픔이 먼저 느껴졌고,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은 전후의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일본을 부흥시킨 당시 일본인들 덕분이라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도 있었다.

또한 특공대에 대해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일본에는 태평양전쟁을 다룬 영화나 소설이 많고, 특공대를 주제로 한 작품도 매우 많다. 해외에서 보면 이 특공작전은 기괴한 행위로 비칠 수 있지만, 일본 영화나 소설에서는 특공대를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가족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적의 일본 본토 상륙을 막기 위해서 싸웠다”라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자 미학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다. 특공대는 모병제로 스스로 입대한 사람도 있었지만, “일본군이라면 중요한 국면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회적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본심과는 반대로 지원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이렇게 갈등하면서도 나라를 위해 싸우

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몸을 던져 공격한 것이다. 특공작전 자체는 적을 죽이는 살육 행위이기 때문에 100% 명예로운 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행한 행위라는 점에서, 나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나는 일본인으로서 태평양전쟁과 특공대에 대해, 전쟁의 참혹함에 가슴 아픈 마음과 함께 당시 일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준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 이번 현지 조사로 새롭게 알게 되고 느낀 점이 있는가

### 현지 조사 전후로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번 ‘규슈 현지교육’은 특공대와 태평양전쟁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회였다.

규슈 현지교육에서는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 반세특공평화기념관, 지란특공평화회관과 같은 많은 특공대 관련 기념관, 자료관을 방문했다. 이들 자료관에는 특공에 사용된 비행기 모형과 특공으로 전사한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명단, 유품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반도 출신과 대만 출신 대원의 명단이였다. 당시 일본은 한반도와 대만을 지배하에 두고 남자는 일본군으로서 싸우게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특공대원 중에 이렇게 많은 한반도와 대만 출신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본군 특공대원으로서 산화했는지에 주목해 보았다. 이번에 방문한 기념관과 자료관에서는 한반도, 대만 출신 대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특공에 나섰는지 그들의 유서

나 기록에 적혀 있었다. 그 자료들에는 “내가 가지 않으면 조국의 사람들이 핍박받는다.” “내가 가서 가족이 더는 일본인으로부터 차별받지 않게 하고 싶다”와 같은 내용이 가득했다. 이는 당시 일본인 중에는 조선인이나 대만인에 대해 차별적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얼마나 많은 일본인이 이런 차별적 감정을 품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 가족과 동포가 더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특공대원까지 되어 목숨을 걸고 싸운 조선인과 대만인이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일본인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번 규슈 현지교육에 참여하기 전 나는 태평양전쟁에 대해 오키나와 전투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등의 역사로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학습으로 가해자 일본의 일면도 깊이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교과서나 역사교육 현장에서는 이를 깊게 다루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가해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문제가 한일 간 역사 인식의 차이를 낳고, 오늘날 한일 문제의 개선을 가로막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느꼈다. 이에 역사 교육 방식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역사 인식 차이를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느낀 것은 전쟁에서 절대적인 ‘피해자’와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점이다. 태평양전쟁에서도 미군과 일본군은 사실 각자의 정의를 가지고 싸웠을 뿐 가해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건 ‘전쟁’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닐까.

이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과 대만 사람들에게 저지른 일

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다. 내 주장은 단지 일본인으로서 일본을 위해 싸워준, 일본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정의를 부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 정의 속에서 행한 일이 조선과 대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이는 후세에 남겨진 일본인이 교훈으로 가슴에 새겨야 할 역사라고 생각한다. 미국도 일본도, 조선과 대만 사람들도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는데 이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킨 점, 지속한 점이 가장 큰 오점이자 반성할 부분이라고 느꼈다. 이러한 역사를 배우는 우리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역사 인식을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문화교류가 활발한 젊은 세대가 이런 역사적·정치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규슈 현지교육으로 깨달았다.

---

# 다각적인 시점에서 바라본 특공대, 그리고 평화란 무엇인가?

---

이케다 우메카 池田梅香

---

## 일본인(일본인 대학생)으로서 가미카제와 태평양전쟁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솔직히 말해, 가미카제나 태평양전쟁에 대해 ‘그런 역사가 있었지’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평화학습은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지만, 역사 속 하나의 사건이라는 인식에 더불어 대학에서도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종전의 날<sup>151)</sup>이나 위령의 날<sup>152)</sup>이 되면 태평양전쟁과 가미카제 특공대에 관한 뉴스가 자주 나오는데, ‘가미카제 특공대는 정말 필요했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목표가 국가를 위해 죽는 것이고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한 전투 방식은 비인도적이고 있어선 안 된다. 폭탄을 실은 채 미국 전함에 돌진하는 공격이라니...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패배를 인정하고 전쟁을 끝냈다면 최후 수단인 가미카

제 특공대가 출격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전쟁 피해도 적었을 것이다.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어 종전을 맞이한 건 정말 순식간이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나서야 전쟁의 무의미함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일까? 참 슬프다. 일본이 전쟁을 하지 않는 지금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태평양전쟁 당시에는 판단할 수 없거나 올바르지 않더라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패배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렸던 당시 일본의 상황이 무섭다.

‘전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지금까지의 역사 공부와 평화학습으로 절실히 느껴왔지만, 이번 규슈 현지교육을 계기로 전쟁의 배경이나 전쟁 중 사람들의 생각 등 지금까지는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도 공부할 수 있었다.

## 이번 현지 조사로 새롭게 알게 되고 느낀 점이 있는가

### 현지 조사 전후로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가

심수관기<sup>沈壽官家</sup> 역대 수장고에 갔을 때, 사쓰마 도자기<sup>薩摩焼 153</sup>의 유래가 조선의 것이고 조선인 기술자가 도래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사쓰마 도자기는 일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선인 기술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 땅에 끌려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배경을 알게 되었다. 또한 에도시대에 사쓰마 번주였던 시마즈 가

151\_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을 종전의 날(終戰の日)이라고 하며, 1945년 8월 15일을 가리킨다.

152\_ 오키나와현이 제정된 날로 매년 6월 23일, 오키나와 전투 등으로 인한 전몰자를 추도한다.

153\_ 가고시마현에서 주로 생산되는 도자기.

문은 조선인 기술자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무사 신분을 주어 문을 세우고 답을 두르게 허락하는 대신, 그 성<sup>性</sup>을 바꾸는 것을 금지하고 조선의 언어와 풍속을 유지하도록 명령하는 독특한 통치 시스템을 만들었다<sup>154</sup>)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마음이 좋지 않았다. 조선인 기술자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그들의 기술을 일본 문화로 취급했기 때문이다.<sup>155</sup>) 사쓰마 도자기가 일본의 문화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일본인으로서 복잡한 감정이 들면서도 사실을 아는 것뿐 아니라 그 배경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하나의 사건이라도 일본뿐 아니라 한국의 시점에서 생각해 봄으로써 보이는 게 크게 달라짐을 느껴 이해가 깊어졌다.

지란특공평화회관에서는 사회 상황에 따라 ‘올바르다’는 의미가 크게 달라짐을 실감했다. 현지교육 전에는 전쟁 당시 왜 사람들이 죽는다는 선택밖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지만, 지란특공평화회관에서 본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전쟁 중 상황과 달랐다. 원해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당시의 ‘올바름’이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상징이 가미카제 특공대였을지도 모른다. 영정사진과 유품, 유서에서 유족과 그 유족의 가족, 친구를 향한 그들의 깊은 감정이 전해져 가슴이 아팠다.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앞길이 창창한 청년들이 특공대원으로 출격한 이야기, 출격 전날에 내일 죽는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과 공포를 느끼면서도 당일에는 곧은 발걸음으로 출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채 각자가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고 있었던 걸까. 각자가 지키고 싶은 것을 가슴에 품고 하늘로 떠나는 것, 그것이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것, 이러한 특공대원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오늘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싶다. 특공대가 미화되지 않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규슈 현지교육에서는 지금까지 역사적 사실로서만 받아들였던 것들의 배경을 알고 가미카제 특공대와 태평양전쟁을 스스로 재인식할 수 있었다. 일본인이면서 모르는 것투성이였기에 이렇게 함께 공부할 기회를 주신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사진 21〉 반세특공평화기념관/  
특공위령비「よろずよに」



〈사진 22〉 심수관가 역대 수장교

154\_ “沈壽官家の歴史.” 沈壽官窯. 2024년 6월 20일 접속.  
<http://www.chin-jukan.co.jp/juddTest/history.html>

155\_ “沈壽官家の歴史.” 위와 같음.

## 참가자 프로필

### 박태규

한림대학교 4학년 융합신소재공학전공.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일본어를 공부해서 전역한 후 나고야시립대학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 간 문화 차이를 발견하고 일본학에 관심이 생겨서 일본학연구소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지연

한림대학교 청각학전공 4학년. 일본학 복수전공으로, 뒤늦게 인문학에 관심이 생겨 일본학연구소에서 연구보조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지식을 가득 쌓고 소중한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즐겁고 기쁩니다!

### 박종후

한림대학교 일본학과 4학년 재학 중 일본과 일본어에 흥미를 느껴 일본학연구소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책을 출판하며 겪은 경험은 저에게 많은 도전과 과제를 주었고 성장을 안겨주었습니다. 때로는 무척 벅차고 괴로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책이 출간된 것을 보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목표와 규슈를 되돌아보았을 때의 기억이 다시금 생생히 떠오릅니다.

### 윤석희

2024년 2월 한림대학교 일본학과 졸업. 1999년생. 남양주 거주. 대학교에 입학하고 학교-집을 반복하기를 3년, 대학교 4학년 마지막 1년을 의미있게 보내고 싶어 일본학연구소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일본학연구소에서 신문 DB 작업을 하면서 현지교육이라는 기회를 얻은 것이 이번 출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지교육 참여자들의 느낀 점과 노력이 담긴 책을 다양한 시각으로 읽고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하림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일본문학·문화전공 석사과정생. 1998년에 경기도에서 나오자랐지만 지금은 대학 시절을 보낸 제2의 고향 춘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2023년 한림대학교 일본학과를 졸업한 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원으로서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박철웅

일본학과 4학년. J-팝과 일본 음식 그리고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일본학 전공 학생이자 일본학연구소의 연구보조원으로서 한일 간 응어리를 탐구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그동안의 현지교육과 한일 대학생 교류 등 다양한 경험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여정이 누군가에게 작은 고민이나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김혜진

한림대학교 일본학과 4학년. 현지교육은 늘 누군가가 제공하는 정보만 생각 없이 받아들이던 세계 직접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여행으로는 잘 가지 않는 곳을 돌아다니며 전쟁의 흔적을 느끼는 것은 슬픔, 안타까움,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포몬통7 교류에서 그 복잡한 감정을 일본인 친구들과 공유한 경험은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끝마치기 전에 이런 좋은 기회를 얻어서 다행이었습니다.

## 신현주

한림대학교 일본학과 주전공 및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복수전공 과정을 거치고 졸업했습니다. 이번 현지교육에서는 가미카제 특공대를 둘러싼 문제를 조사하면서 역사를 되짚어보았습니다. 단순히 결론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각으로 이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매일 영화 한 편씩 보는 취미가 생겼는데, 자료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가미카제 관련 영화들도 언젠가 다 보고 싶습니다.

## 윤상민

한림대학교 일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일본학연구소에서 도서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2003년생이고 태어난 곳은 춘천입니다. 일본학과 학생임에도 한일 간의 역사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학교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학연구소에 들어온 이후 한일 간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하게 접할 기회가 생겼고, 대학생으로서 마땅히 느끼고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 장서윤

한림대학교에서 디지털미디어콘텐츠를 전공했으며 현지교육 당시 4학년이었고 지금은 졸업했습니다. 2001년생 서울 출신입니다. 미세스 그린 애플과 스파이애어 같은 일본 밴드를 좋아하고, 밴드뿐 아니라 J-팝을 좋아해서 블로그에서 간단한 가사 번역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 고현아

한림대학교 일본학과 3학년. 일본어와 일본 문화가 좋아 일본학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본 느낌이 나는 것이라면 뭐든 좋아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J-팝을 좋아합니다. 시이나 링고의 팬입니다.

## 여현정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전공으로 2019년 입학해 일본학과 복수전공 중이며 현재 4학년입니다. 2023년 3월부터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보조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지교육, 대학생 교류 등 대학생으로서 소중한 경험을 이곳에 담았습니다. 연구보조원 활동으로 의미 있는 작업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이영석

한림대학교 일본학과 4학년. 현지교육 이전부터 가미카제에 관심을 두고 조사를 시작하여 여러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는 현장감을 직접 느끼게 해준 현지교육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자료를 살펴보다라도 현지교육 이상의 자료가 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일본인들과 교류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 **세소코 미유·瀬底美佑(せそこ みゆう)**

메이오대학 관광상업전공 졸업. 2002년생 일본 오키나와 출신. 어렸을 때부터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고등학교 2학년과 대학교 2학년 때 한국으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 **이케다 우메카·池田梅香(いけだ うめか)**

당시 국제문화학과 4학년. 에히메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대학 입학의 계기로 오키나와로 왔습니다.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지만 한국 요리를 너무 좋아해서 매운 것도 잊고 먹습니다.

### **미야기 안미·宮城 杏光(みやぎ あんみ)**

메이오대학 국내학부 국제문화전공 4학년. 2003년생으로 오키나와현 출신이며 영화 감상과 베이킹을 좋아합니다. K-팝 아이돌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것을 계기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3학년 때는 대학의 동아시아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으로 이주해 생활하는 게 꿈입니다.

### **히가 세리나·比嘉星利奈(ひが せりな)**

메이오대학 국제문화전공 4학년, 현재(2024년 10월) 1년 휴학 중으로 영어를 배우려고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중입니다. 동물 영상을 보거나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한국 아이돌을 좋아해서 K-팝을 자주 듣습니다. 언어 학습 앱으로 한국어도 공부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 **주겐지 아오이·仲元寺葵(ちゅうげんじ・あおい)**

2024년 메이오대학 국제학부 졸업. 현재 학교 직원 1년 차. 2001년생. 오이타현 출신. 재학 중에는 한국, 대만의 식민지 시대 역사와 동아시아 비교 문화를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저에게 큰 양식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한림대학교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 **히가 스미레·比嘉すみれ(ひが すみれ)**

메이오대학 국제학부 국제문화전공 4학년. 2001년생, 오키나와 출신. 대학에서는 국제학을 중심으로 정치와 사회를 공부했습니다. 현재는 젠더 문제와 정치의 관계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일 교류 프로그램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여행했지만, 이번에는 오키나와와 문화가 비슷하다고 알려진 제주도를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 부록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

7

#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 7

2024년 2월 말, 우리는 규슈 현지교육을 다녀온 직후  
오키나와의 메이오대학 친구들과  
한국에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바로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7>로,  
이번 장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교류 감상문을 담았습니다.

# 국경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고현아

2024년 2월 26일, 포문동7 활동에 참여한 후 내 감상을 되새겨보며, 좀 더 자세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기록하고자 한다. 3박 4일 내내 저녁까지 메이오대학 친구들과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몸이 고단하기도 했지만, 느끼는 것이 많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우선 전체 감상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 제일 좋았던 것은 역시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 그 자체였다. 일본 친구들과 서울을 함께 돌아다니며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뜻깊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모습에 대한 각 나라의 관점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다. 단순히 관광이라는 느낌보다 상호 이해의 시작이라는 느낌이였다.

둘째 날 좌담회에서 우리는 한일 관계에 대해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 친해지고 난 다음이어서인지, 이전 교류회보다 깊

은 이야기가 가능해서 좋았다. 의견을 나누며 각 나라의 역사나 사상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에는 서로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시작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시작은 두 나라가 과거의 갈등을 넘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에 있다. 그러려면 나 먼저 두 나라의 미래를 상상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3박 4일의 활동 중 식민지 역사박물관 관람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박물관 방문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마주하며 함께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다. 잘못된 역사를 되새겨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식민 지배의 역사는 비단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 일본의 역사이기도 하며 반성하고 나아가야 할 역사이다. 공통된 역사를 공유하며 일본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박물관에서 관계자분으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박물관의 기획 의도부터 여러 역사의 포인트들을 짚어서 설명해 주셨다. 특히 박물관에서 출판한 친일 인명사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친일 인명사전 기록을 통해 친일파 청산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감동적이었다. 일본에 대한 문제의식만이 아니라 한국이 내부적으로 식민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적 성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앞으로 한국에 깊게 뿌리내린 친일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포문동7의 활동을 통해 교류에서 중요한 것은 이해와 포용이라 느꼈다. 이번 활동에서 일본과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관점을 쌓아 나갈 수 있었다. 교류 활동에서 일본과 한국은



비슷하지만 새삼 달랐다. 각 나라를 바라보는 태도, 역사를 대하는 관점과 생각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서로 다른 시각과 경험을 존중하며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한국, 일본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아닌 국가를 초월해 대화해야 한다. 부조리한 것에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각자 자리에서 바른 생각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을 넘어 식민 지배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활동을 통한 경험은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었다. 한국과 일본이 지속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미래를 위한 길을 함께 걸어 나갔으면 좋겠다.

# 메이오대학과의 만남을 통해

김지연

시작은 오키나와 현지교육, 그곳에서 만난 메이오대학과 설레고 짧았던 시간을 더 이어나가고 싶어 포문동7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한일 관계와 대학생 교류, 화해와 공존이라는 키워드는 여전히 갈피를 잡기 어려운 주제였지만 일단 직접 부딪쳐보자는 마음이 강했다. 이 마음은 좋은 선택이었고, 함께했던 활동과 대화 가운데서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프로그램 둘째 날, 3시간 정도 온전히 대화만 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벼운 질문부터 오랫동안 생각해 볼 무거운 질문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몇 개 조로 나누었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이 양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생활양식이나 생각 등을 알아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 여성이 본인을 삼인칭으로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라든가 일본도 한국처럼 과 점퍼를 맞추는지 등 궁금했던 것을 마음껏 질

문했다. 사소하지만 한국 대학생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니 무척 새롭고 더 많은 점이 알고 싶어지기도 했다.

반대로 반일/반한, 여성 차별, 위안부 등 다소 예민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이때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준 친구가 있어 감사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펼치는 게 어려울 거라고 짐작했는데, 꾸밈없이 의견을 내준 덕에 나 또한 새로운 시각을 알아갈 수 있었다. 한국인·일본인이어서, 받는 교육이 달라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음을 경험했다. 서로 좋아하는 걸 얼마든지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이지만 정작 마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는 일은 드물다고 생각했기에 이 교류회가 더 의미 있다고 여겨졌다.

셋째 날에는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방문했다. 자료가 매우 많았는데 그에 대한 설명도 꼼꼼히 되어 있어 무리 없이 진행을 따라갔다. 전시에 일본어 해설은 적혀 있지 않아 직원분께서 대신 일본어 책자를 건네주셨다. 둘러보다 전시의 마지막쯤에 한 친구에게 내용이 어땠는지 살짝 물어봤는데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많다고 대답해 주었다. 피해국이 더 자세하고도 사실적으로 역사를 다루고 기억하는 것 같아 내심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 괜히 나뿐만 아니라 메이오대학 친구들도 여러 사실을 더 많이 알아가길 바라기도 했다. 역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말이다.

교류회 기간 내내, 특히 마지막 날 밤에 소소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3박 4일을 마무리했다. 규슈에서 함께한 메이오대학 친구들에게

평소 주로 무엇을 하며 노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이에 대한 답을 이번 교류회에서 느낄 수 있었다. 나라가 다를 뿐 20대 대학생들이 모이는 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말이다. ‘무슨 드라마가 재미있고 어느 연예인이 좋고 이렇게 연애한다’와 같이 별 뜻 없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문화를 교류하고 생활을 공유한다는 건 이런 것 같았다. 좋아하는 걸 나누다 보면 어느새 친해지고 속마음도 말할 수 있게 되는, 나라를 뛰어넘어 사람을 사귄다는 건 이런 게 아닐지 생각하게 되었다. 역사를 잊은 채 문화만을 소비하는 것이 마냥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함께 느낄 수 있었다.

인천공항에서 헤어질 때, 그새 정이 들어 가까운 나라인데도 자주 보진 못한다는 사실에 괜히 아쉽고 묘한 감정이 들었다. 맨 처음 오기 나와에서 만났을 때는 단순히 좋은 경험이었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거의 연락하지 못한 채 반년 만에 다시 만난 건데도 어느새 금방 다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 친구도 있었고, 서로 언어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소통하려 노력하기도 했다. 대화가 오가면서 어쩌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중에 편견을 가지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기도 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진짜 친구를 만들기는 어렵다’ 등의 편견이 나를 따라다녔던 건 아닌지 고민해 보게 된 것이다. 실제 경험을 통해 이러한 생각을 깰 수 있었고 나라에 구애받는 편견이 아님을 크게 깨닫게 되었다. 헤어지면서 나중에 또 보자고 얘기했을 때, 다음에 만나면 지금보다 더 친밀감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말이다.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어갈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불

편한 주제를 꺼내기 어려울 수도 있고, 생각이 많이 부딪쳐 오히려 사이가 틀어질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오키나와에서부터 규슈, 한국에서의 만남까지 함께했던 시간을 돌아보며 적어도 관계가 악화하진 않으리라 감히 생각해 본다. 호텔에서 같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수다 떨었던 일, 언니라고 불리주며 팔짱을 끼는 친구에게 동생이 한 명 더 생겼다며 기뻐한 일. 여러 기억이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생각한다. 메이오대학과의 만남을 통해 ‘교류’라는 단어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한일 교류는 계속 어려운 주제로 남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쌓아갈 지식과 경험을 기대한다.

# 오늘의 기억이 오래오래 남기를

김혜진

2024년 2월,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7’ 프로그램 덕분에 오키나와의 메이오대학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생겼다. 지난해 7월에 현지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오키나와에 방문했을 때 이후로 대략 7개월 만이었다. 오랜만의 만남에 가슴이 두근거리기를 잠시, 한국인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전반을 구성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3박 4일 동안 진행될 프로그램 중 교류회의 주제와 그 내용, 방문할 관광지과 박물관 및 식당까지! 늘 어른들이 정해준 프로그램에 고민 없이 참여했던 지난날과 다르게 직접 ‘포문동7’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고민하게 되었다. 물론 소장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체라는 사실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덕분에 책임감을 기를 수도 있었고 말이다. 이는 ‘포문동7’에 참여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부분 중 하나다.

준비하면서 느낀 점만이 기억에 남는 건 아니다. 프로그램 진행 중 메이오대학 친구들과 한 교류 또한 생각의 폭을 넓히는 데에 정말 큰 도움을 줬다.

둘째 날 춘천에서 진행된 교류회 프로그램 중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중 가미카제를 주제로 나눈 대화가 인상 깊었다. 이때 조금 놀랐던 건, 친구들이 가미카제를 그리 깊게 알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키나와 전투 때 가미카제로 헛되이 목숨을 버린 일본군이 많은데도 가미카제를 상세히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이 적잖이 충격이었다. 물론 나도 가미카제를 한참은 더 공부해야 하는, 아직 배움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 그들의 생각을 들을 수 없었다는 점이 참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배운 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오키나와현 내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화제로 올랐을 때는 언젠가부터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답답함으로도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어찌할 줄 모르겠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냈다. 바로, 오키나와에 미군기지가 있음으로써 한국에 이득이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원산상륙 작전에 동원된 미 해군 구축함과 미 공군 폭격기가 오키나와현 가테나 공군기지에서 차출되었다고 한다. 이를 들은 친구들도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본 손익 문제는 참으로 어렵다며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말했다. 물론 미군이 일으키는 범죄, 미군기지로 오키나와현 내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역이 줄어들어는 문제 등을 생각하면 마냥 한국의 이득을 위해 찬성할 수도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쉽게 답을 낼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

다. 이 문제는 교류가 끝난 지금도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그렇게 교류회가 끝나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 다음 날이 되었다. 셋째 날 오후에 우리는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방문했는데, 조금은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리도 이곳의 존재를 ‘포문동7’을 준비하며 처음 알았다. 1층에선 종종 특별전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방문 당시에는 <간토대학살 100년 은폐된 학살, 기억하는 시민들>이라는 기획전시가 진행 중이었다. 2층은 상설 전시로, 식민지 지배를 당하게 된 배경부터 광복 그리고 이후 반민특위에 의해 작성된 친일인명사전까지 놓칠 것 하나 없는 전시였다. 한편 한국의 전시이다 보니 메이오대학 친구들이 관람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일본어로 적힌 전시 해설집을 대여해 주셔서 모두가 불편함 없이 관람할 수 있었다.

2층을 모두 둘러보고 내려와서 본 1층 특별전시는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다. 우리가 흔히 일본의 3대 대지진으로만 외우고 있는 관동대지진의 이면에 숨어 있는 ‘조선인 학살’에 대한 전시였다. 메이오대학 친구들도 당시 학살을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당시 조선인을 판별하기 위해 말하도록 했던 ‘쥬고엔고깃센(十五円五十銭, 15엔 50전)’ 때문이다. 오키나와의 방언은 본토의 말과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조선인으로 오인을 받아 죽은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이 학살의 끔찍한 참상을 사진으로도 볼 수 있었는데, 정말이지 두 눈 뜨고 못 봐줄 정도였다. 말 그대로 100년 전의 사건임에도 보고 있는 내가 다 가슴이 먹먹하고 코가 시큰했다. 메이오대학 친구들도 우리가 느낄 이 감정을 조금이라도 알았겠지 하며 이날의 기억이 오래오래 남



길 바라는 마음으로 관람을 마쳤다.

마지막 날에는 별다른 일정 없이 친구들을 공항까지 배웅하는 게  
다였다. 매일매일 충실한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이 되  
니 3박 4일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다. 내가 이번 교류회를 통해 얻은  
것만큼 메이오대학 친구들도 많은 생각을 했을까? 꼭 그랬으면 좋겠  
다고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 한일 문화 교류의 씨앗

: 메이오대학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피어난 우정과 연대

박중후

메이오대학 학생들과 만나는 것은 세 번째로, 2022년 9월 온라인 교류, 직접 만날 수 있었던 2023년 7월과 12월 오키나와 방문 그리고 2024년에도 메이오대학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 다르다면 이번에는 한국에서 우리가 맞이한다는 것이다. 메이오대학 학생들과는 인연을 느낀다. 첫 일본 방문, 첫 일본 친구. 온라인이라는 형태였지만 연구소 활동을 통해 2022년 9월부터 만나왔기에 깊은 인연임을 느낀다.

특히 지난 7월 오키나와의 메이오대학에서 만났을 때, 2022년 9월부터 교류를 이어온 학생이 나를 먼저 알아보고 “우리 구면이죠?” 라고 말을 걸어주었을 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일본 학생들과의 만남도, 일본 방문도 처음이었기에 긴장하고 있었으나 그 한마디 덕분에 긴장했던 마음은 어느새 눈 녹듯 사라졌다.

경색된 한일 관계 탓에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무슨 말을 해야 할

까? 어떤 어휘를 골라야 할지 몰라 난감했다. 그러나 실제로 만나본 학생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고, 경색된 한일 관계에 아쉬움을 느끼며, 때로는 화도 내주었다. 일본의 과거 문제에 대해 당혹감을 나타내며 화도 내고 공감도 해주었다. 작지만 우리의 교류가 앞으로를 위한 미래를 이어주는 창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순간이었다. 우리는 진심으로 공감하며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었다.

현지교육이 모두 마무리된 지금도 서로 연락하며 서로를 그리워하고, 앞으로의 만남을 기약하고 있다. 공항에서 서로 마지막임을 직감하며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돌아서며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일본 학생들은 돌아서며 흐를 것만 같은 눈물을 참으며 마지막임을 알면서도 앞으로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고 한다. 이렇듯 서로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었고, 교류가 끝나는 것을 모두가 아쉬워했다. 한일 관계의 긴장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이 나에게서는 특히 더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교류하던 때만큼은, 아니 어쩌면 지금도 한국인과 일본인이라는 서로 다른 배경을 잊고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며 문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있다. 처음이 어려웠을 뿐이지, 수차례 교류로 각국의 현안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기 뜻을 내비칠 수 있었다. 교류를 거듭하며 서로의 입장과 문화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며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간의 교류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문화 간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

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배울 수 있었다.

교류, 문화 나눔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문화, 저마다 갖고 있는 개성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서로의 문화, 역사, 과거가 주는 의미와 의의를 알려주고 배우고 싶다.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많은 이야기와 소통을 기반으로 서로의 입장과 견해 차이에 대해 순수하게 나눌 기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의 활동을 통해 모두 함께 이상적인 교류 형태를 만들어가고 싶다.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 간의 소통은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벽을 넘어서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로써 언어를 넘어서서 마음과 교감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존중함으로써 서로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지난 7월부터 이어진 교류로 우리는 깊은 연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형성된 우정과 연대는 단순히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 간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메이오대학 학생들과의 교류도 일회성으로 그치고 싶지 않다. 우리 모두 앞으로를 기약했으며, 지속적으로 만남과 교류, 연락을 이어가며 양국의 문화 교류를 넘어 새로운 미래 문화의 발전을 모색하고, 문화로 교감하며 양국의 문화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교류는 단순히 서로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즉,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문화 간 연대감과 우정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로써 언어와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우고자 하는 자세와 태도를

기르며 서로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교류에서 성장한 내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교류는 장기적 관계의 씨앗을 심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더욱 경색된 한일 관계 속에서 피어난 우정이기에 더욱 소중히 하며 가꾸고 싶다.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잘 가꾸어 싹을 틔우면, 앞으로 밝은 미래로 이어지는 큰 결실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교류가 주는 메시지

박철웅

올해 2월, 한림대학교×메이오대학 교류 프로그램이 열렸다. 메이오대학은 작년 여름방학, 2학기 온라인 교류와 겨울방학에 이어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대학이다. 이번 교류는 한국 춘천, 서울 주변을 다니며 메이오 학생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화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자리였다. 지난 교류는 모두 오키나와에서 메이오 학생들이 안내해 주었으나, 이번에는 한림 측에서 메이오 학생들을 안내해 주는 기회였기에 더욱 설렘이 가득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함께한 메이오 학생들과의 교류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중 가장 많은 의견을 나누는 활동으로는 사전에 계획했던 빙고 토론이었다. 빙고 토론은 빙고판을 이용한 방식으로 빈칸에 한일 간 궁금한 점을 서로 적어 뽑힌 질문에 대해 대답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본 벤토(도시락) 문화,

한국 급식 문화와 같이 일상적인 주제부터 북한에 대한 생각과 같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토론 중 메이오 학생들이 매우 조심스럽다고 느꼈다. 민감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보다는 대중의 의견을 빌려 말하는 느낌이 들었다.

교류 이틀 차에는 메이오 학생들과 함께 역사적 사실을 배우기 위해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방문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방대한 자료들이 전시된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서 계획했던 시간인 한 시간 반이라는 시간으로는 전부 볼 수 없었다. 또한 일제강점기 시기가 시간 순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전시되어 메이오 친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다. 메이오 친구들은 일본과 달리 사건에 대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몰랐던 부분들을 알 수 있어 어렵지만 유익했다는 의견을 말해 주었다.

이번 교류에서 겨울방학 교류에 이어 또다시 대표를 맡게 되었다. 하지만 전과 달리 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해야 했기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다. 어떻게 하면 외국 친구들이 유익하고 즐거운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을지 팀원들끼리 많이 고민했다. 3일 차 일정한 경복궁, 식민지 역사박물관, 홍대 일정의 경우 아주 빠듯하게 시간 배분을 했기에 예상 시간, 경로를 체계적으로 계획해야 했다. 그 때문에 프로그램 기획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자리였다. 결과적으로 메이오 학생들이 즐거워했고, 역사와 동아시아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고 말해주어 보람차고 뿌듯한 경험으로 남았다.

여러 차례 메이오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앞으로도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같이했던 만큼

돈독한 우정이 생겼다고 느꼈다. 서로 간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  
고자 노력했던 여정 덕에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다고 생각한다.

한일 교류는 긍정적 관계로 나아가게끔 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준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문제를 공유하면서 어떤 점에 주안  
점을 두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교류는 견고한 벽을 허물어주고 화합을 이루어 유대를 갖게 해준  
다. 메이오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즐거워하는 모습이 다양한 영역을  
소개해 주고 싶게 만들었다. 이러한 친목 활동이 협력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다시 말해 교류는 작은 것부터 천천히 서로의 이  
해관계를 넓혀갈 수 있는 사회 활동이다. 우리의 활동이 작은 가교가  
되어 장차 동아시아의 화해, 연대까지 나아가길 바란다.



# 한일 교류와 나

## : 포문동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낀 점과 교류가 주는 의미

박태규

포문동7 프로그램은 내가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의 연구보조원으로 들어온 지 어느덧 1년이 될 때쯤 진행한 프로그램이다. 1년 동안 일본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았다. 그중 2023년 여름에 진행한 2박 3일 오키나와 현지조사를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오키나와 나고시에 있는 ‘메이오대학’과 교류하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2학년 때 6개월간 일본 나고야에 교환학생으로 가본 적이 있었지만, 친한 일본인 친구를 만들지는 못했다.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친해질 계기가 없었다는 점과 일본인 친구들에게는 내가 이방인이라는 점이 원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때 일본인 친구를 만든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메이오대학과 교류하면서 알게 된 친구들은 나에게 매우 소중했고 나고야에서 만났던 일본인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사교적인 일본인은 나

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주었다. 그 친구들은 나쁜 아니라 일본학연구소 친구들과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그 덕분에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날 받은 고마운 감정을 그 친구들에게 다시 보답해 주고자 포문동7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우리는 한림대학교 캠퍼스 투어를 했고 경복궁에서 다 같이 한복을 입고 관광을 했으며 밤에는 홍대 거리를 즐기기도 했다. 3일 동안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진행 중간중간에 내가 처음 생각했던 방향과 조금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건 슬픔이 됩니다』 책을 기반으로 자신이 한일 관계에서 ‘모야모야モヤモヤ’했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서울 용산구에 있는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가서 식민지 시대의 사료를 관람하는 시간도 가졌다. 나는 처음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약간 의구심이 들었다. ‘오кина와에서 한국까지 온 친구들에게 즐거운 시간만을 보내게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진지한 프로그램을 해도 되는 걸까?’, ‘일본학연구소 사람들에게는 분명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 그 친구들도 한일 관계에 관심이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에게 메이오대학 친구들은 손님이니 최대한 좋은 경험만을 남겨주고 싶었기 때문에, 메이오대학 친구들 처지에서만 고려하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 이러한 생각은 내 편협한 사고였던 것 같다. 책 토의 시간에서 메이오대학 친구들은 본인들이 한국에서 또는 한국인에게 겪었던 각자의 ‘모야모야’했던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해 주었고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공감과 조언을 해주고, 각자가 겪었던 이야기들도 공유하며 서로의 ‘모야모야’를 해소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그

리고 사실 내가 가장 우려했던 식민지 역사박물관은 일본학연구소 연구보조원들보다 오히려 메이오대학 학생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집중해서 관람했다. 그 친구들은 “일본에서는 자국이 저지른 역사 가해는 공부하기 어려운데 이곳에서 가감 없이 객관적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하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나는 이번 포문동7 프로그램을 하면서 다시 한번 메이오대학 친구들에 의해 내 가치관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메이오대학 친구들은 한일 관계를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진지한 태도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메이오대학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줘야지’라는 생각을 핑계로, 사실은 나 자신이 한일 관계의 현실을 직접 마주하기 싫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일본의 문화가 좋고 일본 사람들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좋아한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일본을 바라보면, 일본은 한국에 막대한 인명적·재산적 피해를 준 가해국이고 아직 이에 대한 사죄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군대를 가지려 하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일본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일본을 문화적 관점에서는 좋아하지만, 역사적 관점에서는 싫어하기 때문에 이를 직접 마주하려 하지 않는 내가 가장 ‘모야모야’를 품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것을 느꼈고, 이를 직접 마주하는 메이오대학 친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적인 한일 교류’가 되려면 표면적인 우호를 가진 채 서로의 문화를 소비만 하는 교류에서 벗어나 한일이 서로 양국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역사관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기본적인 역사적 지식을 기반으로 올바른 역사관을 만들어야 하고, 한국

의 문화로 한국에 호감을 느낀 일본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문화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한국인의 삶도 알려줌으로써 한국 문화뿐 아니라 한국 자체에 관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로써 서로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인 한일 교류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번 포문동7 프로그램은 한림대학교, 메이오대학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준 유익한 한일 교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한국과 일본이 나눠야 하는 교류란 무엇일까?

신현주

교류회가 시작된 첫째 날, 학우 세 명과 메이오대학 학생들을 마중 하려고 인천공항으로 갔다. 나와 메이오대학의 인연은 2023년 1학기에 시작되었다. 일본 문학의 이해라는 강의에서 한일 관계의 역사와 국제 관계를 공부했었다. 그때 오키나와 나고시에 있는 메이오대학 학생들과 온라인 교류회를 하며 한일 역사에 대한 인식이나 양국 간의 문화, 독도 영토 분쟁권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그 이후로도 인연이 이어졌는데 2023년 7월,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 현지 교육에 참여해 오키나와로 가서 학생들을 만난 적이 있다. 태평양전쟁 당시 유일하게 일본 내에서 지상전이 벌어진 오키나와는 어떤 역사와 차별을 겪었는지 공부하려고 갔는데 그때 일본 학생들도 함께했다. 대중교통 노선이 별로 없어 이동할 때는 대형 버스나 자동차를 타야 했는데, 고맙게도 일본 학생들이 자동차로 오키나와를 안내했

다.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처음으로 일본인 또래 친구들과 대화하며 교류하는 경험이었기에 지금까지도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다.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이 한국에 올 때 보답해 주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 기회가 이번 포문동7 프로그램으로 찾아온 것이다.

춘천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일정이었기에 편도 거리로 3시간 정도 걸리는 긴 시간이었지만, 그때 봤던 친구들을 맞이하는 것이었기에 반갑고 설레는 마음으로 마중하러 갔다. 당시 봤던 학생 중 6명이 한국으로 왔고, 그들과 춘천으로 가서 환영회를 열었다. 이후 메이오 친구들에게 한림대학교 교내를 안내해 주거나 다 같이 한복 체험을 하며 경복궁을 관람하는 등 한국의 문화를 일본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궁금했던 문화나 사회 이슈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교류회 시간을 가지면서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갔다.

3박 4일 동안 메이오대학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같은 대학생으로뿐 아니라 한국인과 일본인으로서 각자 시점에서 한일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

교류회 시간에 ‘반일과 혐한이 심할 때,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메이오 학생 중 한 명이 호텔 프런트에서 일할 때 한국인에게 ‘쪽발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뉴스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서로에게 멸칭을 말하면서 다투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일본 친구가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또한 2019년에 한일 무역분쟁에 관해 이야기할 때 한 친구가 그 당시 한국에서 ‘NO JAPAN’ 불매운동이 왜 일어났는지도 몰랐

다고 답했다. 이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는 상황을 말해 주면서 그 배경으로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일본 친구들은 역사 시간에 근대사를 자세히 배운 적이 없었다고 하며,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했던 상황이나 태평양전쟁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대학교에 와서 처음 배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그래서 무역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떠나, 왜 그런 재판이 일어났는지 이번 설명으로 처음 알게 되었다고 했다.

반일이나 혐한에 대한 경험, 현대 한일 간의 외교 갈등 등 불편해질 수 있는 주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경험은 흔치 않다. 일본학과로서 언어는 물론 역사, 사회, 문화 등을 공부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 계속 배워왔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려면 먼저 국가 간에 맞힌 갈등의 배경을 알고 각각 어떤 견해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고 몰랐던 역사나 상황을 배우면서 이해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이를 이번 교류회에서 실천한 것 같아 기쁘다. 이번 포문동7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문화나 상황, 의견에 대해 나누고 배우면서 앞으로의 한일 관계 발전에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느낀다. 또한 국적이 다른 사람을 만나 즐거운 추억을 쌓으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경험도 했다.

# 역사와 문화를 넘나드는 한일 대학생 교류의 의미

여현정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규슈 현지조사를 마친 후, 바로 다음 주인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 동안 오키나와 메이오대학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규슈 현지조사를 함께한 친구들과 2023년 7월 오키나와에서 만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 반가웠다. 한국과 일본은 가깝지만 먼, 역사적·문화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한일 대학생 간 교류는 서로 보지 못했던 다양한 관점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로써 미래의 한일 관계가 협력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포문동7 프로그램은 양국의 복잡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미래를 건설적으로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춘천에서 보냈다. 일본 친구들에게 한림대학교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캠퍼스 투어에서 각 건물의 역사와



기능을 설명했고,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들을 함께 둘러보았다. 학교를 구석구석 다녀보니 나도 처음 가보는 장소들이 많아 감회가 새로웠다. 졸업을 앞두고 학교를 바라보니 의외로 학교 지리를 잘 몰랐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움이 밀려왔다.

메이오대학 학생들과 한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다. 서로 예민할 수도 있는 심오한 주제였음에도 솔직하게 답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안도감을 느꼈으며, 국가 간의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셋째 날에는 서울에서 역사·문화 체험을 했다. 메이오대학 학생들과 함께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방문했는데, 기분이 묘했다. 식민지 역사는 한일 관계에서 가장 예민하고 심오한 주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솔직히 걱정도 되었고, 일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지 궁금하기도 했다. 나 역시 식민지 역사박물관 방문은 처음이었기에 기대가 컸다. 박물관에 방문하니 일본어로 응대하는 직원과 일본인 관람객들도 있어 신기했다. ‘이런 심오하고 예민한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일본인들도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괜히 덜컥 겁을 먹었던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당연히 알려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역사임에도 일본인 친구들의 눈치를 본 것 같아 부끄러웠다. 박물관 내부는 일본어로도 설명이 잘되어 있어 역사를 올바르게 널리 알리려는 많은 사람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한국인으로서, 일본학연구소의 연구보조원으로서, 일본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를 공부하고 나아가면 좋을지 생각이 많아졌던 박물관 견학이었다. 여담이지만 연구보조원 활동을 하면서 본 일제강점기 신문에 있던 총독들의 이름이 박물관에 적혀 있었는데, 쉽게 내용을 이해하

고 알아볼 수 있어 괜히 신기했다. 연구보조원 활동으로 단순한 대학 시절의 경험만이 아닌, 신문을 보면서 일제강점기 역사도 조금씩 배우게 되는 것 같아 뿌듯했다.

경복궁은 관광 명소답게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했다. 어렸을 때 이후로 오랜만에 예쁜 한복을 입어서 기분이 좋았다. 일본인 관광객들도 많았는데, 문득 ‘일본인들은 경복궁에 대해 어떻게, 얼마나 알고 방문할까’, ‘조선총독부가 경복궁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예쁘다는 이유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느낌이 들었다. 대부분 예쁘게 한복을 입고, 예쁜 배경에서, 예쁜 자신을 찍느라 바빠 보였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경복궁을 구석구석 살펴보며 학습의 일환으로 관람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면 경복궁이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데이트·관광명소로서 역할뿐 아니라, 배움의 의의도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이 들었다. 경복궁이 대부분 데이트와 관광명소로 소비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아쉬웠다. 경복궁 방문과 체험은 즐거웠지만 일본인 대학생과 교류하는 한국인 대학생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새롭고 다양한 생각이 들었다.

포문동7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인 대학생이자 미래 세대로서 아직 부족하고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으며, 반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교류를 통해 한일 관계에 대한 다양한 문제와 생각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면들을 관찰하며 알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다.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것뿐 아니라 직접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독서와 공부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이라도 어릴 때 이러한 깨달음을 얻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일본학연구소 연구보조원으로서 경험은 나에게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

# 주는 것보다 받은 것이 많았던 만남

이영석

2024년 2월,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에서 26일부터 29일까지 교류회를 진행하였다.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메이오대학 학생들과 교수님이 한국으로 왔는데, 이들과 함께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맞이했다. 일본인 친구들한테 한국에 어느 장소를 보여주는 것이 좋을지, 어떤 음식이 입에 맞을지, 많은 고민 끝에 하나의 일정표가 나왔다. 일정표에 나온 대로 친구들을 맞이하고,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같이 먹기도 하였다. 교류가 끝난 지금, 이러한 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교류가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가득했다. 그저 일본인 친구들과 노는 게 필요한지 몰랐다. 그런데 일본인 친구들과 3박 4일을 보내면서 경복궁에서 한복도 입어보고, 다양한 한식을 경험하게 해주고, 한림대학교를 소개해 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일본인 친구들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야말로 교류였다는 것을 말이다. 이러한 경험은 다시 한번 하고 싶어도 어려울 것이다.

현재 일본과 한국의 거리는 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류를 통해 꾸준히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생긴다면, 언젠가는 멀어진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포문동7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놀랐던 점은 한국에 이러한 곳이 있었다는 것을 잘 몰랐다는 것이다. 특히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다녀온 게 기억에 남는다. 처음 입구에 들어설 때부터 일본인 친구들과 여기를 방문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본인 친구들이 역사박물관을 제대로 훑어보면서 알아가는 모습을 보며 괜히 걱정했다고 생각했다.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 포문동7 프로그램이었지만, 교류가 끝난 지금 되돌아보면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경험이 되었다. 교류회 1일 차에 한림대학교로 오는 일본인 친구들에게 미리 준비해 둔 선물을 주었는데, 교류 4일 차에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맛있는 과자들을 나누어 준 일본인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고마웠다. 일본인 친구들을 다시 공항으로 배웅하면서 원래는 비행기 타러 가는 모습까지 보고 갈 생각이었는데, 착오가 생겨서 공항에서 한림대학교로 돌아가야 했었다. 돌아가는 버스를 타면서 제대로 일본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는지 생각했다. 3박 4일 동안 계속 옆에서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아쉬움이 남았다.

이번 포문동7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인 친구들과 한국에서 만나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았고,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는 것이 좋았고,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의 아쉬움조차 좋

왔다. 한림대학교를 졸업해 일본학연구소에는 있을 수 없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없는 것은 아쉽지만, 이번 교류에서 주는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교류를 통하여 다가갈 수 없었던 일본인 친구들과 소통하고, 각자의 생각을 들어보고 말하는 기회가 있었고, 이러한 기회에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면서 일본인 친구들과 과도 공통점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게 교류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 교류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미래

장서운

이번 한림대학교에서 주최한 ‘포문동7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내 또래 학우들과 교류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기회로 일본 메이오대학의 많은 학우와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일본과 관련 있는 역사박물관을 방문하여 함께 관람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 이번 교류회에서 학우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꽤 가까운 이웃 나라임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나 책에서 보았던 것처럼 익히 알고 있던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꽤 많았다는 점에서 놀랐다. 예시로 도시락 문화나 대학교 점퍼 같은 사소한 일상 속 문화 차이를 크게 느꼈다.

또한 이번 교류회에서 다녀온 ‘식민지 역사박물관’이 가장 기억에 인상 깊게 남았다. 한국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처음 방문

한 박물관이었는데, 그 당시 기록이나 자료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자세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 자료가 많다고 느꼈다. 의무 교육으로 역사를 배웠지만,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던 역사를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몰랐던 식민지 시대 당시 상황도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일본 학우들과 함께 박물관을 방문한 점이 더욱 뜻깊게 느꼈다. 함께 가볍지 않은 자세로 역사를 자세히 볼 수 있던 기회를 토대로 앞으로 함께 역사를 올곧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교류에서 서로가 많은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며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 지금까지 궁금했던 부분을 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우리가 이번에 프로그램을 통한 교류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의 발달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하여 교류를 할 수 있다. 많은 교류 수단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가 사소한 학교생활에서부터 역사문제까지 아주 많다. 이런 사소한 교류가 하나씩 쌓인다면 양국 간 남아 있는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교류가 아닌 이번 프로그램과 같이 함께 문화를 체험해 보고, 가볍고 무거운 주제에 관해 토론하는 등의 활동도 서로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세대가 활발히 교류한다면 단순한 문화적 교류가 아닌, 역사적·국가적 차원의 교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양국 간 교류는 미래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특히 앞으로의 미래는 현재 2030 세대인 청년들이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젊은 세대가 더욱 적극적으로 교류



하며 서로 생각을 주고받을 기회가 많아진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한국을 다녀와서 느낀 점과 새로 배운 점

미야키 안미

먼저 이번에 우리 메이오대학 학생들을 한국에 초대해 주어 정말 감사하단 말을 하고 싶다. 작년 여름부터 진행된 온라인 교류회와 오키나와현에서 있었던 대면 교류회를 통해 멋진 관계를 쌓아온 모두와 함께 한국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오감으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굉장히 기뻐다.

교류 프로그램 이틀 차 가장 첫 번째로 진행된 한림대학교 캠퍼스 투어에서는 상상했던 것보다 학교 규모가 크고 카페와 자습실, 큰 운동장 설비, 기숙사 등 메이오대학과 비교해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한림대학교에서 모두와 함께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진행된 국악 강연에서는 실제로 연주자분이 와서 공연을 보여주셨다. 한국의 국악을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아름다운 음색과 연주

자분(강사님)의 기술에 감동했다. 또 환경문제를 고려한 창작 악기에 대한 강연도 있었는데, 다양한 쓰레기를 재활용해 새로운 악기를 만드는 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 실제로 강연 체험도 하게 되어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접근법은 정말 다양함을 깨달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경복궁을 관람할 때는 실제로 한복을 입고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물을 공부할 수 있었다. 일본이나 오키나와의 전통적 건축물과는 또 다른 색감의 건물 그리고 내부 장식과 만듬새에서 한국 특유의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살면서 한 번은 입어보고 싶었던 한복을 이번 교류 프로그램에서 한림대 학생들과 함께 입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뻐다. 이후 식민지 역사박물관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한국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사진과 자료들을 통해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과 사건을 배울 수 있었다. 시설 안에서 본 대부분은 내가 모르는 내용이었고, 역시 일본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모든 역사를 알려주지 않는구나, 일본의 교육은 부족하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렇기에 하루빨리 일본의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줘야만 한다고 깊이 느꼈다.

3박 4일간의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습 중에는 상상 이상으로 다른 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장 먼저,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가장 실감한 부분은 어디를 가도 현금보다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카페와 화장품 가게, 옷 가게 등 쇼핑할 수 있는 곳 어디를 가도 노점 외에는 전부 카드로 결제할 수 있었다. 또 스티커 사진, 랜덤 뽑기를 할 때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가

게가 더 많아 일상적으로 현금을 쓰는 일이 흔해서 한국의 캐시리스 사회에 충격을 받았다. 다음은 식사 문화의 차이다. 첫날 밤 닭갈비를 먹을 때 나는 당연히 가운데에 놓인 철판에서 옮겨 담는 전용 주걱으로 한 사람씩 덜어 먹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들 자기 젓가락으로 철판의 음식을 가져다 각자 페이스에 맞게 먹는 것부터, 먹기 전에 먹을 만큼 퍼 담아 먹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가져가 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음식점을 방문하면 혼자 식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미지인데, 한국에서는 어느 음식점을 가도 혼자 식사하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 다수가 모여 식사하는 모습에서도 양국의 문화와 습관이 다르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

이번 교류 프로그램에서 가장 재밌었던 사실은 아무리 추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된 2월은 비교적 추운 날씨였는데, 나는 추운 날엔 따뜻한 음료를, 더운 날에는 차가운 음료를 주문하는 나만의 규칙이 있었다. 그런데 한림대 학생들과 현지 사람들은 거의 전원 차가운 음료를 주문해 “어쩌서?” 하고 의문이 들었다. 이후 한국에서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추운 날에도 차가운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에선 들어 본 적 없는 아주 유쾌한 문화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도 일본에 퍼뜨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내가 생각하는 교류의 의미는, 서로 다른 곳에 살며 문화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대화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다. 교류는 지금까지 내 안에 있던 고정관념을 뒤집고 새로운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얻는 기회이므로 내 성장으로도 이어

지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교류 프로그램에서는 지금껏 온라인 교류회와는 다르게 실제로 한국에서 한림대 학생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역사와 문화에 접하며 오감을 모두 이용해 학습할 수 있었다. 문헌과 온라인으로는 느낄 수 없는 다양한 자극을 받으며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또한 한림대 학생들과 정말 깊이, 더 친밀한 관계를 쌓을 수 있었다. 이 4일간은 매일 멋진 만남과 새로운 발견 그리고 많은 배움으로 넘쳐나 정말이지 즐겁고 알찬 하루하루였다. 한림대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곳을 방문하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지낸 이 추억은 평생의 보물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다. 마지막으로 한림대 학생 여러분께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배려해 주고, 상냥하게 대해 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만,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 교류회를 통해 느낀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과 앞으로의 관계

세소코 미유

2024년 2월 26일부터 29일에 걸쳐 한림대학교와 메이오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이 열렸다. 한림대학교와의 교류회는 지금까지 오키나와나 온라인에서 이루어졌으나, 이번에는 한국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번 교류회의 주제는 ‘답답함에서 시작되는 동아시아의 화해’였다. 한일 문제는 다방면에 걸쳐 논의되었기에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필요했다. 그래서 한일 문제를 다루는 입문서 『한일 관계의 답답함과 대학생인 나』를 사전학습 교재로 채택해 토론 내용이 너무 무거워지지 않도록 배려하며 주제를 선정했다. 교류 프로그램의 주된 일정은 1일 차에는 환영회, 2일 차에는 캠퍼스 투어와 국악 강연 그리고 교류회, 3일 차에는 문화 체험과 식민지 역사박물관 관람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은 교류회와 문화 체험 그리고 식민지 역사박물관이었다.

국악 강연 시간에는 강사님이 오셔서 ‘소리와 공예’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다. 강사님은 전통악기 구조를 모티브로 한 작품 공예나 공간 디자인을 하며, 소리를 공예 하는 작가로서 활약하고 계셨다. 처음에는 파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실제로 그 형태를 나타내 본다면 어떤 모습이 될지 머릿속 이미지를 가시화하는 활동을 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악기를 연주해 소리의 진동을 느꼈다. 강사님이 실제로 만든 악기 중 흥미로웠던 것은 ‘훈’이라는 도자기로 된 악기였다. 원래 이 악기는 약 7,000년 전에 새를 사냥하기 위해 던지는 도구로 만들어졌으나 훈을 돌리면 소리가 난다는 사실과 구멍 난 돌을 모아 숨을 불어넣으면 소리가 울린다는 점에서 흙을 이용해 만들게 된 것이 시초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뚫린 구멍이 한 개에서 두 개가 되는 데 1,000년, 두 개에서 세 개가 되는 데도 1,0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한다. 이후 도자기에 구멍을 내 만들게 되어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또 강사님은 대마도 공연 때 바다를 건너 대마도 바다로 한국 쓰레기가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러한 쓰레기로부터 일본 환경단체와 함께 악기 제작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교류회는 주로 역사나 문화를 배운 뒤 한일 관계 속에서 자신이 느꼈거나 경험한 답답함을 참가자들끼리 공유하고, 사전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토론이 빙고 게임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 내용 중 자주 다룬 의제로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나 정치적 관심도와 같은 시사적인 것부터 도시락 문화 등 일상적 문화까지 다양했다. 일본 학생의 경우 타국 역사를 배워 지식을 쌓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알고 있다고 해도 입시를 위해 배우는 단편적인 지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한

국 학생들은 일본사와 한국사 모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무거운 주제가 될수록 그 차이는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는 토론뿐 아니라 3일 차 식민지 역사박물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에서는 한일 간 부정적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곳이 드물지만, 여기서는 서술된 역사 기록을 읽고 학예사님 이야기를 들으며 진지하게 마주할 수 있었다. 또한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제를 다룰 때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서로 관심을 보이며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교류 프로그램에서 느낀 점은 한일 양국 간 역사 지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점, 일상 속 사물을 보는 관점의 차이 등이 일본 학생과 한국 학생 사이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일본 학생과 한국 학생 모두 양국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고자 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양국 간 역사에는 책이나 취미 등에서 얻을 수 있는 공감은 바탕으로 조금씩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난 토론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역사를 배우고 말하는 것은 무겁고, 많은 사람이 피하는 분야이지만 스스로에게 신경 쓰이는 것부터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로써 할 수 있는 말이 늘어나고 의식이 바뀔 것이라고 느꼈다.



# 문화 교류로 얻은 많은 계기

이케다 우메카

교류 프로그램을 하며 학생들이 주도하여 교류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한다. 교류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무척 의미 있는 교류였기 때문이다. 솔직히 처음에는 학생들끼리 교류회를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멋진 교류회를 만들자!”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양국 학생들이 서로 연락하고 대화를 거듭하는 동안 교류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차츰 교류회에 대한 책임감조차 모두와 함께 즐기는 나를 보고 한림대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쌓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기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교류회에서는 토론을 진행했다. 역사와 교육 같은 무거운 주제에 취미와 습관 같은 가벼운 주제도 있어 개중에는 새롭게 깨닫고 배운 점도 많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 한림대 학생들과는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 친분을 쌓고, 그

이후로 계속 교류하는 사람도 있다. 이 소중한 연이 끊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교류회의 의의라고 생각한다.

교류의 의미는 ‘교류’와 ‘이해’하기 위한 계기라고 생각한다. 한림대와 교류회를 마친 후에는 서로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 사물을 보는 관점 등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됐을 뿐 아니라, 한림대 학생들 개개인을 전보다 더 잘 알 수 있었다. 교류라는 단어를 쓰면 외국인과의 소통하는 모습만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교류를 통해 상대를 알아감으로써 서로를 이해하며 관계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깨달았다. 또한 같은 일본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살아온 방식에 따라 해외나 일본이라는 나라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교류회에서 대화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사고방식뿐 아니라 한림대 학생들 개개인의 생각, 일본을 공부하기에 가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 일본에 대한 감정을 알게 되었다. 역시 교류는 상대를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이번 한림대와 함께한 교류회에서 절실히 느꼈다. 모든 의견이 신선하고 흥미 깊었으며 내 생각과 의견을 되돌아볼 기회가 되기도 했다. 교류에서 상대를 알고, 나를 알 수 있었다.



〈사진 23〉 메이오대학에서 한림대 학생들과



〈사진 24〉 나하시 국제거리에서 헤어지기 전날 모두와

# 교류 프로그램의 진짜 의미

주겐지 아오이

이번에 한국에서 진행된 교류 프로그램에서 느낀 점은 국제 교류는 단순히 문화 교류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역사적으로 서로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영상물, 음악 등과 같은 문화적인 면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교류가 활발하다. 나 또한 한국 드라마와 아이돌,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다. 그렇기에 처음으로 한림대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2022년 9월에는 한국 대학생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기대했고, 양국의 음악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친목을 다질 수 있어 매우 즐거웠다. 하지만 한림대학교와의 교류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교류뿐 아니라,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식민지 지배나 징용,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관계가 얽힌 문제와 오늘날 화제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민감한 문제도 토론 주제로 삼아 서로의 생각을 나누

었다. 사실 처음에 이러한 주제로 토론하게 되었을 때는 “조금 꺾끄럽네. 전달하는 방식에 신경 쓰지 않으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지도 몰라”라는 불안감이 있었고, 약간 긴장하며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교류회를 거듭할수록 이처럼 한국인으로서, 일본인으로서 주장을 명확히 하고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서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깨닫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교류 프로그램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에 관한 자료관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는 처음 교류회를 했던 때와 달리 한림대학교 학생들과 전쟁과 일제강점기에 대해 각자가 느끼고 생각한 바를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역사 인식에 대한 과제 등을 논의할 수 있었다. 우리 유대가 온라인 교류회와 오키나와에서 한림대학교 학생들을 안내했을 때보다 더 깊어졌음에 감동했다.

양국의 좋아하는 문화를 이야기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한일 문제와 같은 화제를 피하려고 신경 쓰며 대화하는 관계보다는, 이런 민감한 화제여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훨씬 더 진짜 ‘친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멋진 한국 ‘친구’를 사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림대학교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감사한 마음 가득하다. 2022년 9월부터 대학 졸업 직전인 2024년 2월까지 한림대학교와 메이오대학의 교류회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었고 행복했다. 나는 이제 메이오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림대학교와 메이오대학의 교류회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한림대학교 친구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그리고 한림대학교와 메이오대학의 교류가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란다.

#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고 느낀 점

히가 세리나

먼저, 2월에 진행된 교류 프로그램 이전에 했던 온라인 교류회와 오키나와 교류회에서 만난 한림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다양한 곳을 돌아다닐 수 있어서 즐거웠다. 또한 함께 3박 4일을 지내면서 같은 연령대의 대학생으로서 국적을 떠나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었다.

교류 프로그램에서 캠퍼스 투어와 국악 강연, 조별 토론, 서울에서 한복을 입고 경복궁 관람,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가는 등의 활동을 했는데, 모두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캠퍼스 투어에서 느낀 점은 한림대학교는 메이오대학과 비교해 매우 넓고, 다들 자유로운 분위기에 동아리 활동도 활발해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학생회가 있다는 점도 한국 대학의 특징인데 참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국악 강연은 한국의 전통악기와 환경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창작

악기를 실제로 연주해 보고 배울 흔치 않은 기회였기에 정말 즐거웠다. 북한과의 군사분계선을 나타내는 철책선 일부를 피아의 현으로 재활용한 과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역사의 어두운 면이 낳은 물건이라도 여러 차례 손질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미래의 평화로 이어지고, 환경문제에도 변화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다.

또 온라인 교류회 때 했던 것처럼 주제별 토론도 했는데,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크게 느꼈다. 한일 문제를 말할 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어디까지 솔직히 이야기해도 될지 망설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고민마저 이해해 주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나를 받아들여 주는 기분이 들었고, 상대방 자체를 존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새삼 느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관람할 때는 다 함께 한복을 입은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그리고 전통 건축물을 견학할 때는 경복궁이 산을 배경으로 세워져 있어 그 배치가 아름답다고 한림대학교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자 한국에서 산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옥좌 뒤에 놓인 그림에도 산과 태양이 그려져 있어 한국과 산의 관계가 재미있었다.

식민지 역사박물관에는 한국의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곳에는 일본어로 된 해설문이 있어 처음 보는 것들도 잘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관해선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것이 많고, 조사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다시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외에 한국의 음식이 정말 맛있었는데, 삼겹살의 그 엄청난 두께

를 보고 일본의 야키니쿠와 너무나도 달라서 놀랐다. 진짜 고기란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은 분명 더 많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족스럽긴 했지만, 다음에 또 한국에서 먹을 음식을 기대한다.

‘교류’ 과정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배우고,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이미 일어난 일에 관한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내 생각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도, 가치관이 달라도 그 차이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생기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오키나와 토박이지만 한국 학생과 의견을 나누거나, 함께 다양한 장소를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국적을 떠나 다양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색다른 체험으로 그에 대한 지식도 늘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한국의 전통 음악, 건축물, 문화 그리고 역사를 새롭게 배우는 경험을 하며 전보다 더 한국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국가를 뛰어넘어 교류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리라고 생각한다.

#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며 배운 점

히가 스미레

나는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드라마와 영화를 자주 보지만 실제 한국인 친구나 지인은 없었다. 그렇기에 이번에 한국에서 열리는 교류 프로그램으로 실제 한국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대되었다. 그렇게 한림대학교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배운 것도 많았고 한국에 대한 인상이 변했다. 각종 미디어에서 접한 한국은 일방적인 정보에 지나지 않았기에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니 이전보다 한국과 한국의 학생들을 잘 알 수 있었다. 생생한 교류 덕분에 서로 다른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길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 오키나와를 비교해 가며 토론하기도 해서 한림대학교와 메이오대학이기에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먼저 놀랐던 것은 바로 한림대 학생들의 언어 능력이었다. 일본



어로 일상 회화가 가능한 것도 대단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역사, 사회 문제에 대해 무리 없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일본인으로서 그 사실이 기뻛고, 감사한 마음이 짝뼉었다. 평범한 대화에서 한국의 문화나 습관, 학생들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토론 시간에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 현대 사회가 품고 있는 문제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나는 영어와 한국어를 할 수 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눌 정도로 잘하진 못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외국인 학생들과 이렇게 긴 시간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 이번에는 한림대학교 학생들의 일본어 실력이 좋은 덕분에 한국인 대학생들의 일상부터 식사 문화, 지역 특색, 한일 역사, 양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언어 능력 뿐 아니라, 자국과 일본을 향한 관심과 지식이 있었기에 다양한 대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 교류 프로그램 덕분에 가능한 귀중한 경험이었고, 한림대학교 학생들과 순수한 우정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쌓은 우정으로 지금도 학교 간, 개인 간 교류가 이어지고 있어 기쁘다.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던 토론 시간에 한국과 일본의 역사, 현대 사회가 품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나는 국제문화와 정치를 배우고 있었기에 더욱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오키나와 미군 기지 문제<sup>156)</sup>를 어떻게 인식하는

---

156\_ 오키나와 미군 기지 이전 문제. 오키나와의 후텐마에서 헤노코로 기지 이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일본 법원은 정부의 이전 계획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40110\\_0002587421](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40110_0002587421)), (<https://www.voakorea.com/a/3652861.html>)

가와 같은 민감한 문제들도 서로 솔직한 감상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공부가 되었다. 특히 미군 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시선으로 바라본(혹은 한국인 대학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문제점과 같이, 새로운 시점의 등장으로 흥미로운 논의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활발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유의미하다고 느끼는 한편 메이오대학 학생들은 한국의 역사나 한일 관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깨닫는 부분도 많아 한림대학교 학생들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이야기한 위안부 문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그렇다. 나는 젠더에 관련된 세미나에 소속되어 있어 위안부 문제를 공부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한림대 학생들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관련해서도 일본이 만들어 낸 역사임에도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에 부끄러웠다. 토론을 진행하며 배우게 된 것이 많아 한림대 학생들이 볼 때 부족해 보이진 않았을까 죄송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도 생각한다. 이번 교류 프로그램에서 한국인 친구들과 대화하고, 배우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음으로써 한국의 문화뿐 아니라 역사, 한일 간 문제도 좀 더 배우고 마주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프로그램을 마친 이후에는 식민지 역사박물관에서 받은 자료들을 다시 읽어도 보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공부하기도 했다. 이런 심경의 변화와 한국 전반을 향한 관심의 향상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한림대학교 학생들과의 심도 있는 교류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류’의 의미는 상대 국가의 본질을 바라보는 관심과 주체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림대학교 학생들과 교류함으로써 나는 그들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고, 한국이 더욱 좋아졌다. 이 말은 즉 내가 한국

을 더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것은 전부 한림대학교 친구들 덕분이  
라는 뜻이다. 앞으로 한국을 공부할 때, 생각할 때 그곳에 살고 있는  
내 친구들 얼굴을 떠올리며 이 교류 프로그램을 생각할 것이다. 그만  
큼 이 추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부록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 현지교육

③

+

포문동

⑦

# 본문에 신지 못했지만 읽어줬으면 하는 이모저모

이번 장에는 본문에 신기에는 애매하지만

폐기하기 아까운 원고를 모았습니다.

2023년 12월에 목포에 방문하면서

조선인 건축가에 대해 조사했던 글,

2024년 2월에 규슈를 방문했을 때 들은 특강 감상문

그리고 현지교육을 다녀온 후 참여자들이 다시 한번 모여

그 이후 이야기를 나눈 좌담회 기록까지

모두 알찬 내용으로 가득하니 읽어보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조선인 건축가

김혜진, 신현주, 윤석희

## 경성의 건축가들

‘적산가옥<sup>敵産家屋</sup>’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는 적이 만든 집, 즉 대한민국의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이 건축한 일본식 가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목포, 군산 등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적산가옥을 조사하던 중 이러한 적산가옥이 누구의 손에서 탄생했는지가 궁금해졌고, 그러다 흥미로운 책 한 권을 발견했다. 그건 바로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조선인 건축가를 다룬 책으로, 제목은 『경성의 건축가들-식민지 경성을 누빈 'B급' 건축가들의 삶과 유산』이다.

책에 등장한 조선인 건축가 상당수는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아마도 당시 건축을 배운 사람들에게 총독부 건축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을 것이다. 1920년대까지 민간의 건축 수요는 적었고, 당시 건축 공사는 발주부터 설계, 감독까지 관청이 주도했

기 때문이다.<sup>157)</sup>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한들 총독부에 몸담았던 것도 사실이다.

한편 이 책의 저자인 김소연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온 지금, 건축계 밖의 사람들은 건축가를 사상이나 의식과 관련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한다. 사농공상의 관념이 존재했던 시대에 건축가를 미장으로 알던 사람들도 수두룩했다는 것이다.<sup>158)</sup> 과연 그들은 친일에 연관된 사람들일까? 아니면 단순히 건축 일에 충실했던 기술자들이었을까? 우리는 이를 알기 위해 당시 건축가의 삶에 주목할 필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당시를 대표하는 두 건축가를 살펴봄에 그들의 행보를 생각해 보자.

### 근대건축을 빛낸 건축가 박길룡

먼저 살펴볼 인물은 바로 근대건축을 빛냈다고 평가받는 ‘박길룡’이다. 박길룡은 1898년 종로의 영세한 미곡상집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열 살 때부터 배달과 물장수, 단춧구멍을 뚫으며 어렵게 학업을 이어갔다. 그는 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전신인 경성공업전문학교(이하 ‘고공’이라 칭함)에 들어가면서 일본인을 제치고 졸업 급장을 했다고 한다. 1919년에 학교를 무사히 졸업한 박길룡은 그다음 해에 조선총독부 건축 기수技手<sup>159)</sup>로 취직한다. 여기서 1919년은 3·1운동이 일어난 해로, 그보다 한 살 아래인 후배 박동진의 경우 3·1운동에 참여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박길룡은 졸업을 앞둔 상황이었어서인지 3·1운동과 관련된 기록이나 언급은 남아 있지 않았다.

총독부에 취직한 뒤 박길룡은 조선총독부 청사와 경성제국대학 본

관(현 예술가의 집)의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총독 부에서 주관한 건축은 설계자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그가 참여한 건축물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한다.<sup>160</sup>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일제강점기에 근대건축가로 빛났던 걸까? 그 해답은 그의 활동에 있다. 박길룡은 낮에는 총독부에서 일하고 밤에는 부업으로 조선인이 의뢰한 건물을 설계했다. 밤낮 쉬지 않고 건축 일에 매진했던 그는 인맥을 쌓았고, 이는 건축사무소를 여는 데 큰 밑바탕이 되었다.

1932년에 '박길룡건축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그가 설계한 건축물은 한청빌딩(1935)<sup>161</sup>, 화신백화점(1937)<sup>162</sup>, 김덕현 주택(1938)<sup>163</sup>, 보화각(1938)<sup>164</sup> 등이 있다.<sup>165</sup> 이 건물들의 건축주 중에는 인상 깊은 인물이 몇몇 있는데, 먼저 화신백화점은 친일파 박흥식이 의뢰한 것이고 김덕현 주택은 친일파 윤덕영이 사위에게 주고자 의뢰한 것이며 보화각은 우리 문화재를 수집하고 박물관을 설립한 전형필이 의뢰한

---

157\_ 안창모. "일제하 경성고등공업학교와 건축교육."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14, no. 6(1998): 35-46.  
 158\_ 김소연. 『경성의 건축가들』. 루아크, 2017, 109-109  
 159\_ 과거 기술직 8급 공무원의 직급을 칭하던 기원(技員)의 옛 표현.  
 160\_ 김소연. 『경성의 건축가들』. 루아크, 2017, 33-33  
 161\_ 고 한규설 씨(대한제국 의정부 참정대신)의 손자 한학수 씨가 20만 원으로 준공한 건물로 오케이레코드 회사 경성 출장소 사장 이철 씨와 공동경영해 종합식 백화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청빌딩은 1970년 종로 도로 확장공사로 철거되었다.  
 162\_ 1931년 박흥식이 설립한 지상 5층의 백화점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종로타워 자리에 있었다. 근대적인 규모·시설·조직을 갖추고 합리적으로 경영하여 일제강점기에 한국 상업계의 선도적 구실을 하였다.  
 163\_ 친일파 윤덕영이 사위인 김덕현에게 지어준 주택으로, 후에 박노수 화백이 구입했고 현재는 박노수미술관이 됐다.  
 164\_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식 사립박물관. 간송미술관의 전신.  
 165\_ 김소연. 『경성의 건축가들』. 루아크, 2017, 34-34

것이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건축주를 가려 받거나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런 그는 1941년, 국민총력조선연맹(이하 ‘총력연맹’이라 칭함)의 문화부 위원으로 그리고 그 2년 후 같은 조직의 후생부 위원으로 위촉되였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친일 행적을 남긴 걸까 하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총력연맹이란 1940년에 조선총독부 차원에서 조직된 친일단체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후신이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하 ‘황민운동’)과 함께 지역 애국반<sup>166</sup>)을 통한 공출, 징병, 징용을 독려하여 전시체제를 지원하는 활동을 했다.<sup>167</sup>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해당 단체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sup>168</sup> 결국 처음에 가졌던 ‘친일 행적’에 대한 의문은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게 되였다.

한편 박길룡은 1933년 공동 저술로 『과학조선<sup>科學朝鮮</sup>』을, 1941년에 『건축조선』을 간행했다. 『과학조선』 창간호에 게재된 박길룡의 글을 살펴보면 그는 “자원을 이용하여 우리의 일용물품과 문물제도를 우리 스스로 자작자급하여 우리의 생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sup>169</sup>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해 조선에 현대 과학이 보급되고 과학기술 연구 및 교육 기관 설립되던 시기에, 조선인이 과학기술을 대중화하려 노력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다.<sup>170</sup> 그리고 『건축조선』의 경우 민족말살정책이 강화된 1941년에 우리말로 간행되였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 그는 문화주택을 옹호하기보다 재래주택을 개량하여 우리 문화에 맞는 형식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경운동 민병옥 가옥이 있다. 이 가옥은 1938년 박길룡이 설계한 개량한옥으로 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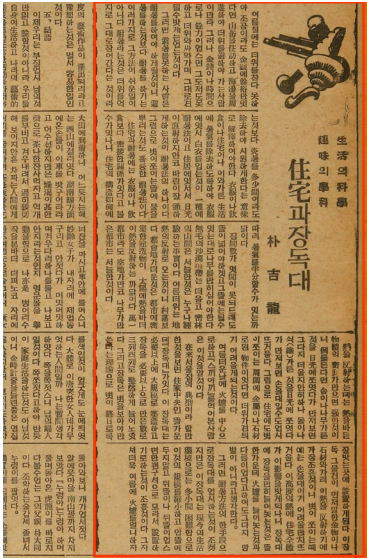


과 화장실, 목욕탕을 내부에 두고 이들을 연결하는 긴 복도를 둔 것과 유리창을 단 점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1930년부터 작고하기까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꾸준히 사설을 기고했다.



(사진 25) 경운동 민병옥 가옥(국가유산포털)

- 
- 166\_ 일제강점기 전시체제하에서 조선인의 생활을 감시·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국민총력조선연맹의 말단 조직이다.
- 167\_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5235&cid=46623&categoryId=46623>
- 168\_ 김소연. 『경성의 건축가들』. 루아크, 2017, 41-41
- 169\_ 박길룡. 『과학조선』 창간호.
- 170\_ 임종태. “과학조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23년 11월 28일 접속.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4640>



〈사진 26〉 생활의 과학 취미의 학과-주택과 장독대(朴吉龍)(조선중앙일보, 1935년 8월 16일)



〈사진 27〉 『과학조선』 창간호(1933년 6월 10일)



〈사진 28〉 건축가 입장에서 온돌만은 절대 유지합시다(朴吉龍)(동아일보, 1939년 1월 6일)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건축가로서 행보는 직업적 성취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조선의 건축 기술과 과학 발전에 힘썼다는 사실이다. 지속적으로 재래주택 개량에 대한 내용을 사설에 실은 점과 온돌을 유지하려고 했던 점 그리고 『과학조선』을 간행했던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그는 한때 총력연맹이라는 친일 단체에 속한 적이 있고, 총독부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친일파의 수주를 받았다는 점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가 설계한 화신백화점의 경우 조선인 박흥식이 운영하는 백화점이었지만, 일제의 총동원체제 당시에 전쟁을 홍보하는 전람회가 열리고 총독부의 정책 선전도구로 활용되기도 했다.<sup>171)</sup> 이러한 이유로 미루어볼 때, 그가 설계한 건축물이 비록 본의 아닌 용도로 활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친일파의 번영에 일조했음은 분

명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경성의 건축가들』의 저자 김소연이 지적한 근대건축가를 말할 때면 느껴지는 꺾끄러움의 정체가 아닐까.

### 구조계산의 전문가 김세연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박길룡과 같은 시기에 활동한 건축가 김세연이다. 그는 1920년에 고공 건축과를 졸업했다. 그해 조선인 졸업자는 그 혼자로, 당시 건축과를 졸업하는 조선인은 한 해에 한두 명에 불과했을 정도로 적었다고 한다. 이후 조선총독부 건축과에 취직한 김세연은 보조 직원에서 기수를 거쳐 기사<sup>技師</sup><sup>171)</sup>까지 총 21년간 총독부에 몸담았다. 당시 총독부는 조선인 노동자가 많은 공사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조선인을 뽑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마저도 몇 명 되지 않았고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임금 차별까지 있었다고 한다. 물론 그도 이것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김세연은 총독부에서 근무할 때 건축가로서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고 한다. 당시 총독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정수의 말을 따르면 다음과 같다.

‘김세연 선생이 총독부 영선과에 재직 시에는 약 70여 명의 일본인 기술자들 사이에서도 기술이나 경험 면에서 존경의 대상이었으며, 10여 년의 경력을 쌓은 대학 출신 일본인 기술자들도 자기가 설계한 도면을 김세연 선생에게 가져가 체크를 받고 치수가 약간 적어

171\_ 서울역사박물관. 화신백화점\_사라진 종로의 랜드마크. 2021.

172\_ 관청이나 회사 따위에서 전문 지식을 요하는 특별한 기술 업무를 맡아 보는 사람.

보이는 철근이라고 지적을 받으면 구조계산을 다시 해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도면을 김세연 선생이 지시한 대로 수정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었으니...」<sup>173)</sup>

이외에도 박길룡건축사무소에서 부업으로 구조 설계를 담당했는데, 그가 설계한 건물로 알려진 것 중에는 미쓰코시백화점<sup>174)</sup>, 화신백화점, 조지아백화점 등이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김세연의 대표작 중 하나인 미쓰코시백화점은 1906년 미쓰코시오복점에서 시작했다. 이곳은 일본 미쓰코시백화점의 서울 출장소이자 소규모 잡화점의 역할을 했다. 이후 1929년 서울출장소가 지점으로 승격되면서 백화점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다.<sup>175)</sup>

조선 최초의 근대식 백화점으로서 층마다 다양한 상품을 진열·판매하고 갤러리, 식당, 행사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뒤서 판매 공간과 여가 생활의 역할을 충족했다. 이는 당시 일본인은 물론 조선인에게 새로운 소비 문화를 만들어냈으며 1930년대 이후 모던 보이와 모던 걸이 등장하면서 매년 새로운 의상과 소품으로 치장하여 경성의 최신 유행을 선도했다.

이렇게 조선에 새로운 문화를 가져온 미쓰코시백화점은 사실 일본이 조선에 제국주의 사상을 유입하고 근대화를 꾀하는 도구로 경성에 세워졌다.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실시했는데, 이를 위해 다수의 일본인을 조선에 이주시키고자 백화점을 선택한 것이다. 많은 가게 중 백화점이 들어오게 된 이유로는 일본의 백화점이 조선에 진출함으로써 조선인에게 일본 문화를 인식시킴과 동시에 일본인 이주자들에게 자국의 상품을 제공

하여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기 때문이다.<sup>176)</sup>

또한 미쓰코시백화점은 다양한 전람회가 개최되기도 했는데, 그 중에는 화신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일본 권력자들이 국책을 선전하려는 것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사상전 전람회'思想戰展覽會가 있다. 이 전람회는 조선 방공협회가 개최했는데, 이 단체는 1938년에 조직된 국민정신총동원운동과 병행하여 일본 국체를 명백하게 증명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뿌리째 뽑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sup>177)</sup> 국그들이 백화점을 선택한 이유는 당시 미쓰코시백화점이 많은 사람이 드나들어 새로운 문화의 발상지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1938년에 개최된 제1회 사상전 전람회의 방문객은 12일간 약 26만 8,000명이라는 엄청난 수를 기록했다고 한다.<sup>178)</sup>

또 다른 대표작인 경교장(1938)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이자 백범 김구가 서거한 저택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공간이다. 본래 경교장의 이름은 죽첨장<sup>竹添莊</sup><sup>179)</sup>이었으나, 광복 이후 김구가 근처에 있는 경교<sup>京橋</sup><sup>180)</sup>라는 다리 이름을 따 경교장

173\_ 김정수. 「여명기의 한국건축계」, 『대한건축학회지』 25권 100호. 1981, 11쪽

174\_ 서울특별시에서 세워진 최초의 근대식 백화점. 1673년 미쓰이 타카토시가 에치고야라는 이름의 상호로 출발한 일본 최초의 백화점으로, 현재 건물은 신세계백화점 본점 본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175\_ 한경아. "서울 최초의 근대 백화점, 미쓰코시백화점 경성지점." 지역N문화. <https://ncms.nculture.org/legacy/story/7134>.

176\_ 최리애, "식민지시기 백화점의 등장과 사회적 위상-미쓰코시 백화점을 중심으로 -." 계간 지역사회 2017, no.77(2017): 57-61

177\_ 임종국. "조선방공협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3년 11월 28일 접속.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2048>

178\_ 당시 경성 인구는 1934년 기준으로 조선인이 약 27만 명, 일본인이 1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다. 이로써 전체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전람회를 방문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 서울역사박물관)

179\_ 죽첨은 일본말로 '다케조에'라고 하는데, 이는 갑신정변 때 경교 근처에 살았던 일본 공사 다케조에 신이치로를 기념하기 위해 일제가 그 일대를 '다케조에마치'(다케조에 마을)라 부른 데서 유래했다.

으로 개명하였다. 이러한 경교장의 건축주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광산 왕으로 불린 최창학이다. 그는 경교장을 손님맞이용 접대 건물로 사용하며 경성에 진출했고, 다양한 사업으로 친일에 가담했다. 즉, 경교장은 최창학이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고 친일 단체에 가담하려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광복 이후 그는 자신의 친일 행위를 무마하려고 경교장을 김구 선생 거처로 환국 준비위원회에 내놓았다.

1943년에 박길룡이 죽자 김세연이 박길룡건축사무소를 이어받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소를 접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김세연건축사무소’를 개소한다. 그는 박길룡 밑에서 일하며 그와 많은 합을 맞추었고 그 사무소를 이어받을 정도로 사이가 돈독했으리라 추측된다. 그런데 왜 김세연은 박길룡건축사무소를 접고 새로운 사무소를 개소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 새롭게 사무소를 개소했던 때를 주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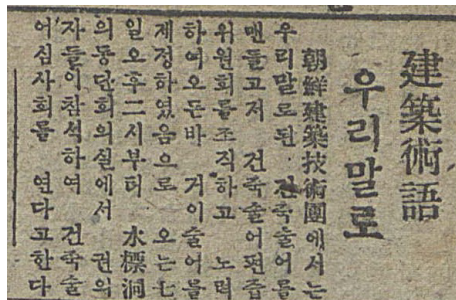
1948년, 김세연건축사무소를 개소할 당시에는 반민특위가 구성되어 박흥식과 김성수 등 조선인 건축가들의 건축주들이 반민특위에 회부됐다. 박길룡은 일제강점기에 가장 유명했던 조선인 건축가였지만 그의 이름은 일제 말기 전시체제를 지원하려고 조직된 단체(총력연맹)에 올라가 있었다.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박길룡의 화려했던 활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한편 광복 이후 김세연은 조선건축사협회 고문, 조선토건협회<sup>181</sup> 초대 회장(1946)을 맡으며 혼란한 시대에 조선 건축의 초석을 놓는 구실을 했다. 이후 조선건축기술단(지금의 대한건축학회)을 창설하여 초대 단장에 취임<sup>182</sup>, 건축 기술 용어를 우리말로 표현하고자 ‘건축술어편집위원회’를 조직하기도 했다.<sup>183</sup> 또 1928년부터 『조선과 건축』

잡지에 ‘플래트 슬래브(Flat Slab, 平床版)<sup>184)</sup>에 대해서’, ‘곡축<sup>曲軸</sup> 185)을 갖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응력’이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건축에 필요한 철근 콘크리트 시공법에 관한 많은 연구를 했다.<sup>186)</sup>

광복 이후 건축가가 부족했기에 건축계에서 연장자에 속하는 김세연이 그 창립 주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모든 건축 관련 단체는 김세연이 창립 주역이었다.<sup>187)</sup>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는 조선 건축의 발전을 위해 움직이고



(사진 29) 「建築術語 우리말로」(독립신보 1946년 12월 5일)

- 180\_ 종로구 평동 164번지 서울적십자병원 앞에 있던 다리로 과거에 경기감영(현재의 도청 건물에 해당) 앞에 있었기 때문에 경교교, 경교다리 등으로 불렀다.
- 181\_ 오늘날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협회의 전신.
- 182\_ 김정동, “김세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3년 11월 28일 접속.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9513>
- 183\_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建築術語 우리말로”(1946).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63248923&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63248923&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
- 184\_ 무량판 구조. 건축 구조의 한 종류로 하중을 지탱하는 수평 부재 없이 바닥과 기둥만 있는 형태. 층 사이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 185\_ 크랭크에 의하여 회전되는 회전축.
- 186\_ 김정동, “김세연(金世演)과 그의 건축활동에 대한 소고 제4분과: 건축 이론 및 근현대 건축.”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 no.11(2007): 3.
- 187\_ 김정동. 위와 같음, 11.

한국 건축의 기틀을 잡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정리해 보면 김세연에게서는 친일 행위라고 할 만한 행적은 발견할 수 없었고, 한국 건축에 이바지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총독부에서 21년간 근무한 사실, 박길룡건축사무소를 접은 사실과 본인 이름을 내건 건축사무소를 차린 당시 상황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 과연 그를 단순히 건축가로서 업적만으로 평가해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박길룡과는 다른 인생이었지만, 어김없이 느껴지는 이 '꼴깍러움'이 그를 단편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다.



# 가고시마에서 만난 특강

김해진

규슈 현지교육 3일 차 저녁, 릿쿄대학<sup>立教大学 188</sup>의 스즈키 아키리<sup>鈴木彰</sup> 교수님께 특별 강연을 듣게 되었다. 주제는 ‘동아시아의 화해를 가고시마에서 생각하다-자료 탐방이라는 여행과 만남이 만드는 풍경에서-’로, 교수님께서 연구했던 경험을 공유해 주셨다.

스즈키 교수님은 가마쿠라<sup>鎌倉</sup>, 무로마치<sup>室町</sup> 시대<sup>189</sup>의 일본 문학을 연구하신다. 그것도 아주 일상생활 하듯이 연구한다고 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일상생활 하듯이’ 연구한다는 게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

188\_ 일본의 도쿄에 있는 사립대학교.

189\_ 가마쿠라 시대는 1185~1333년, 무로마치 시대는 1336~1573년을 가리킨다.

뒤이어 교수님은 1500년대에 작성된 자료가 1600년대를 지나 2023년에도 읽히고 있다며 작품은 탄생한 그 시대, 그 시간에만 소비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다.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었지만, 이후 강연을 들을수록 작품이 여러 시간대에서 소비된다는 말을 너무 단순히 생각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 히 이야기하고, 교수님의 강연으로 돌아가 보자.

가장 먼저, 교수님께서서는 한 자료와의 만남을 말씀해 주셨다. ‘가 도노우라텐라이에마쿠門之浦伝来絵幕 190’(이하 ‘에마쿠’로 칭함)라고 하는 이 자료는 2010년 5월 3일, 『미나미닛폰신문南日本新聞』<sup>191</sup>에 게재된 「무 사의 삶이 생생한 에마키(武士の暮らし生き生き絵巻)」라는 기사에서 처음 보았는데, 이때 교수님은 직감적으로 ‘뭔가 (같은 자료가) 더 있 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 연구를 시작했다고 한다. 연구 주제는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고심 끝에 선택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 왔기에 그저 신문에서 본 게 계기라는 점이 조금 놀라웠 다.

2012년 교수님은 옛날에 발행된 『에이 정 지역 잡지穎妹町郷土誌』의 기 사에서 우지가미氏神 192 마쓰리에 관한 내용 중 직감적으로 에마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를 발견하여 본격적으로 그 씨족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같은 해 겨울, 수소문 끝에 드디어 그 씨족인 히라미 네가平峰家를 찾았고, 이듬해 1월에 히라미네가를 통해 두 번째 에마쿠 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연구가 곧 일상생활이라는 교수님 말씀이 무 엇인지 조금 알 것 같았다. 스스로 알고 있는 정보를 소홀히 하지 않 고 여러 사람을 탐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야기에 굉장

한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반드시 연구해야만 한다는 강한 의지로 일에 몰두한다기보단 연구가 장기적 과제로 일상에 녹아 있어야 한다는 말 같았다.

다음으로는 장소와 관련하여 내가 어디서 발상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어디’란 장소를 의미하지만, 꼭 그것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가치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같은 사건·사물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었다. 내가 생각한 ‘관점’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었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점에는 시대, 공간, 가치, 유행, 나의 입장 등 더 다양한 것이 있었다. 여기서 ‘시대’라는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비로소 초반에 말했던 ‘작품은 탄생한 그 시대, 그 시간에만 읽히는 게 아니라는’ 말이 이해되는 듯했다. 무엇이든 단순하게 바라볼 게 아니라 다각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분석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감각, 감성, 심경, 즉 다른 집단의 공감대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

190\_ 초기에는 ‘에마키(繪卷)’라고 불리던 이 ‘에마쿠(繪幕)’는 축제와 같은 신사(神事) 때 사용된 것으로, 폭 37.4cm, 전장 9.11m나 한다. 무로마치 시대의 ‘소보쿠에(素朴繪, 소박한 그림)’와 닮았으며 ‘아누오우모노(犬追物, 달리는 말 위에서 개를 활로 쏘 맞추는 궁술 단련법)’, ‘아부사메(流鏑馬, 달리는 말 위에서 과녁을 맞추는 궁술 단련법)’ 등 중세 무사의 모습 등이 그려져 있다(“門之浦伝来繪幕.” [かごしま文化財事典](https://k-bunkazai-school.com/cultural/a-i-10042/), 2024년 8월 21일 접속).

191\_ 일본의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에서 발행되는 지방 신문.

192\_ 우지가미는 같은 지역 사람들이 함께 모시는 선조신 혹은 수호신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할까? 교수님께서 남긴 의문이지만 나 또한 아직도 그 해답을 구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해주신 이야기는 가미카제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교수님께서 1944년 5월에 창간된 일본어 잡지 『해국소년<sup>海國少年</sup>』을 소개해 주셨다. 이 잡지는 조선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잡지로, 용산에서 편집·발행되었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잡지 창간 전인 1944년 4월에 징병제가 시행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징병제를 손조롭게 시행하려고 사람들의 반감을 덜어내고, ‘해양소년단’이라는 단어에서 아이들에게 동경심을 품도록 하는 장치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신문을 찾아볼 수 있는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 접속해 검색해 보니 1943년 1월 27일, 『매일신보』<sup>193)</sup>에 ‘해국소년의 영광 … 내년도부터 행해질 징병제를 대비해 올봄부터 조선에도 해양소년단이 생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 그리고 1944년 5월 28일, 『경성일보』<sup>194)</sup>에 「해국소년을 창간」이라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는 ‘해양소년단원의 정신 기능을 훈련하기 위해 해사 및 해군 지식 보급을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내가 찾아본 내용과 앞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자 뿌듯한 감정이 들었고 이런 게 연구의 시작인 걸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스즈키 교수님의 특별 강을 듣고 느낀 점은 연구 주제를 선택할 때는 사소한 호기심만 있어도 괜찮다는 사실이다. 늘 어렵게만 생각했던 연구는 ‘필요한가’라는 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의 궁금증으로 알아보고 싶다는 가벼운 마음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점

을 깨닫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이지 유익한 강연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

193\_ 일제강점기 동안 발행된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194\_ 대한제국 말기부터 일제강점기 동안 발행된 한국의 신문.

## [좌담회]



# 현지교육을 다녀와서

**박철웅:** 6월 24일 월요일, 오늘은 현지교육을 다녀와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신 아홉 분과 소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자 박철웅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좌담회는 현지교육을 다녀와서 주변에 알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확산했던 경험 혹은 이를 위해 노력한 적이 있는지 공유해 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박종후 연구보조원께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박종후:** 네. 저는 오키나와에 두 번 그리고 규슈에 다녀오고 나서 일본 학과뿐 아니라 타 학과 친구들에게도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근데 좀 그럴 기회가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제가 이번에 교생 실습을 다녀왔잖아요. 교생 실

습에서 제가 들어가던 반마다 저를 소개해야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PPT를 만들어서 “한림대학교 일본학과 4학년 박종후입니다”와 같은 자기소개뿐 아니라 연구소에 대해 소개했는데, 거기에 더해 현지교육에 대해서도 소개했습니다. 어찌다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 차례 다녀온 현지교육에서 찍은 사진도 보여줬고 느낀 점들을 공유했는데, 그러니까 일본과 일본어에 관심 있던 친구들이 수업 끝나고 한림대 일본학연구소가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한림대 일본학과 오고 싶다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오는 친구도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많은 기회를 주는 점이나 활동 경험에 대해 굉장히 흥미를 보이더라고요.

또 최근에 한림대 후배(다른 학과)를 만났는데, 그 친구에게 제 현지교육 관련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돗토리현<sup>鳥取縣</sup> 공고<sup>195</sup>)를 보았다면서 신청해 보고 싶다고, 연구소에 방문하고 싶다는 말을 해서 시간이 나면 구경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동기들한테도 현지교육 관련 경험들을 이야기하니까 연구소도 와보고 싶고, 돗토리현 교류사업에 대해서도 큰 흥미를 보이면서 기회가 있다면 같이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철웅:**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후배들에게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는 게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교생<sup>196</sup>)은 아니지만 다음 학기 멘토링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멘토링을 하게 된다

---

195\_ 2024년 6월 30일부터 5박 6일간 진행된 <강원특별자치도-돗토리현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한일 대학생 교류사업>의 모집 공고.

196\_ 교육 실습생.

면 일본학과 후배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고 연구소를 소개하면서 현지교육에서 제가 느낀 바를 공유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이외에 경험을 확산하거나 확산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혹은 현지교육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여쭙보고자 하는데, 여현정 연구보조원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현정:** 저는 ... 나뉠 역사에 관심도 있고 수능 선택 시험도 동아시아를 선택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배운 적이 없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현지교육을 준비하게 되면서 특공대에 대해 많이 찾아보고 이번에 조선인 특공대원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특공대원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냥 자살 공격을 해서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걸까, 아니면 일본이 그들을 약간 영웅화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걸까 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현지교육을 통해 기념관에 직접 가보니까 확실히 느껴진 건 비인도적인 자살 공격도 있지만, 일본이 그들을 영웅화하면서 좀 감성팔이를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태평양전쟁인데 전쟁에 대한 내용은 크게 없고 특공대원들의 삶과 그 유서, 그런 감성에 호소하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지교육을 그냥 관련 서적을 읽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현지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그걸 느낀 감정을 또 갖고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철용:** 말씀 감사합니다. 여현정 연구보조원께서는 현지교육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신 게 맞으실까요?

**여현정:** 네.

**박철용:** 이전에는 자살 공격에 대해 이제 부정적인, 이런 좀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가 현지교육을 다녀온 후 영웅화되는 가미카제와 감성팔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자료관과 기념관에 대한 감정 그리고 감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도 현지교육을 통해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직접 현지에서 사회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더욱 많은 문제의식을 좀 가질 수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전 조사 때는 특공대원에 대해 저는 이 조사한 자료에 따라서 기괴하면서도 되게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하면서 이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출격을 했다,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현지교육 중에 방문한 기념관에서 천황을 위해 죽는다, 핑침 등의 내용이 적힌 요세가키<sup>寄世書</sup><sub>197</sub>와 유서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면을 보고 그들의 광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현지교육은 저에게 비판적 시각을 좀 늘려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현지교육의 의미는 문제의식의 확장이 아닐까

---

197\_ 여럿이 한 장의 종이에 서화를 쓰는 일.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윤석희 연구보조원님,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 볼게요.

**윤석희:** 저도 현지교육에 관해서 조금 생각해 본 게 있는데요. 저는 현지교육 가기 전에 사전 조사로 논문이나 영화 자료를 통해서 접했을 때는 뭔가 직접 와닿기보다는 그냥 공부하는 느낌이 좀 컸어서, 공부하고 뭔가 금방 잇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현지교육을 직접 가서 보으로써 ... 이제 촬영이 제한된 곳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직접 보고 생각을 해보면서 기억에 많이 남았고, 이런 부분을 글로 남김으로써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가미카제에 대해서 친구들과도 이야기할 때도 있었는데 평화기념관, 평화회관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저 나름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보고 느낀 걸 확실하게 전달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박철웅:**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갔다 와서 보고서를 쓰면서 저만의 글로 승화함으로써 문제의식을 아까 넓혔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의 사고력을 좀 키웠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김지연 연구보조원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김지연:** 저는 현지 조사 후에 확산했던 경험을 말하고 싶은데요. 확산이라기에는 너무 좀 거창하지만, 저는 제 주변에 이런 식으로 일

본학을 배우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보통 제가 뭘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얘기한 게, 주변에서 일본학연구소에서 주로 뭘 하냐고 물어서 제가 2월에는 규슈의 현지 교육을 다녀와서 가미카제 특공대에 대해 배우고 조사하고 왔다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질문을 받아서 대답한 적이 있었어요. 그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질문은 “이슬람에서도 테러 공격을 하는 테러리스트가 있는데 그거랑 가미카제랑 비슷한 거 아니냐”였는데, 이런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저는 이제 “근데 가미카제 특공대는 테러가 아니라고 일본의 특공평화기념관에서는 얘기를 한다”라고 나라를 위한 작전이었다고 대답을 해줬거든요. 이런 걸 경험하니까 ‘내가 정말 조사했던 거를 진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배운 것, 보고 느꼈던 그런 생각들을 말로 정리해서 답해줄 수 있구나’ 하고 이런 게 내가 주변에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박철웅:**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그 주변에 다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 혹시 본인과 같은 학과인지 여쭙봐도 될까요?

**김지연:** 제 전공이요? 아니요. 그냥 지인, 지인도 있고 언어청각학 부생도 있고…. 근데 최근에 이 얘기를 했던 분은 그냥 아는 지인이었어요.

**여현정:** 그러면 질문드릴 게 있는데, 지연 님은 가미카제가 테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요?

**김지연:** 그때는 그냥 이제 밥을 먹으면서 짧게 얘기했던 거라 ‘테러가 아니냐’라고 물어서 이제 ‘기념관에서는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고 답을 끝냈지만, … 테러가 아니냐, 맞냐를 생각한다면, 그 양면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 한번에 대답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철웅:**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겼거나 코멘트를 달아주실 분도 자연스럽게 참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으로 김혜진 연구보조원님의 한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볼 수 있을까요?

**김혜진:** 네, 저는 현지조사를 다녀오고 알리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대상이 인문학 쪽이랑은 전혀 연이 없고, 왜 배우냐고 하는 친구였어요. ‘왜 배우냐는 말에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일단 차근차근 제가 생각했던 거를 얘기했어요. 인문학이라는 거를 왜 배우냐고 했을 때 딱 잘라서 뭐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나는 인문학 덕분에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느꼈다. 평소라면은 어딘가에서 주워들은 정보로 그렇구나 하고 끝냈을 거를 내가 직접 한번 보고 생각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고, 오히려 그것에 가치가 있냐, 없냐보다는 가치가 있다고 믿고 행동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 친구한테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여전히 그냥 ‘그렇구나’ 정도의 반응으로 끝내서

되게 아쉬웠지만, 솔직히 아직도 그 친구가 언젠가 내 생각을 좀 더 이해하는 날이 오긴 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몇 번씩 더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신현주:** 저도 그와 관련해서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요. 저도 규슈에 가기 전에 친언니한테 비슷한 걸 얘기했어요. 가미카제가 무엇인지, 거기에 조선인 특공대원도 있었다 등등 얘기를 했는데 사실 조선인 특공대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결국 일본을 위해서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아니냐고 언니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현지교육을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생각을 했는데 현지교육뿐 아니라 이후에도 이에 대해 계속 조사를 하면서 이런 특공대원이 그 개인으로 볼 게 아니라 그 특공대가 어떻게 결성되었고 그 사회 현상이 어떤 분위기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좀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언니나 혜진님 지인분한테도 우리가 왜 이런 걸 배우는지, 이런 걸 배워서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혜진:**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현주 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난 건데, 저희가 지란특공평화회관에 갔을 때 거기 학예사분께서 비슷한 걸 질문하셨었어요. 저하고 지연 님한테 물어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전시회장 중심부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랑 마침 눈이 마주쳐 가지고 다가와서 혹시 전시관을 짝 둘러보고 와서 감상이라든가 조선인 가미카제 특공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려줄 수

있겠냐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관람이 끝나고 나와서 그 학예사분과 대화를 나눴을 때 역시 ‘배신자’라고 생각을 하나는 질문을 들었어요. 그거를 듣고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되게 소름이 돋았어요. 배신자라는 단어를 한 번도 제 머릿속에서 떠올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나라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만한 게 아니니까 그 학예사분 입에서 배신자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역시 이 전시관을 다 둘러봤음에도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없구나’ 하고 그냥 그들의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본 군대에 입대해서 황제를 위해서 공격에 가담한 거지만, 근데 그 시대 상황이 단순히 그렇게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가 이미 일제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시기였고 ‘어찌 보면 단순히 돈을 위해서, 즉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수도 있는 군대인데 이거를 단순히 배신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만약 내가 그 상황에서 군대에 들어가야 하는 남성이었다면 그거를 거절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이 문제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했고, 학예사분께도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박철웅:** 감사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시 조선은 일본의 땅이었고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입대한다는 것은 일본 군대에 입영한다는 것이니까 … 그런 면에서 이것을 과연 배신자라는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확실히 넓게 바라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내용을, 저희가 확산할 대상에 대해 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김혜진 연구보조원님께서 왜 배우냐는 친구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확산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아니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좀 좋을지 그거에 대해 토론하고 싶네요. 혹시 이거에 대해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까요?

**김혜진:** 저 하나 생각했던 게, 이거는 현지교육을 다녀와서 생각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읽었던 모야모야<sup>198</sup>라는 책<sup>199</sup>에서 생각보다 단순한 방법으로도 세상에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냥 내가 인스타에다가 스토리<sup>200</sup> 하나 올리는 것만으로도 그걸 보고 궁금해하는 친구가 생긴다는 거죠. 되게 단순하지만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행동인 거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나도 SNS에 그런 걸 올린 적이 있던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인스타에 스토리는 자주 올리면서 그런 내용을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쓰면 연락해 오는 친구가 한두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거를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SNS에 게시글 하나 올리는 거, 그냥 작은 실천으로 조금씩 넓혀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8\_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 개운치 못한 감정, 멧힌 데, 응어리.

199\_ 『『日韓』のモヤモヤと大学生のわたし』(『우리가 모르는 건 슬픔이 됩니다』) 및 『ひろがる『日韓』のモヤモヤとわたしたち』(퍼지는 한일 관계의 모야모야와 우리들), 『우리가 모르는 건 슬픔이 됩니다』의 후속작. 일본인 대학생(후속권은 대학원생 혹은 사회인이 되어 쓴 책)이 한일 관계에서 느낀 다양한 의문과 답답함을 담아 출간한 책.

200\_ SNS 인스타그램에서 게시 후 24시간 동안만 보이고 이후 작성자에게만 보이는 게시물.

**박철웅:**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게 모야모야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트위터(현 X)에 이제 한 가지 게시글을 올림으로써 ‘모야모야의 연쇄’가 일어났다고 거기서도 말을 해줬거든요. 그런 사례를 본받아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인스타라든지 그런 SNS를 통해서 확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현지교육에 다녀와서’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른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다음은 윤상민 연구보조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윤상민:** 저는 현지교육에서 알리고 싶다고 생각한 것을 말하고 싶은데요. 조선인 가미카제 특공대를 듣고 사실 현지교육을 하기 이전에는 ‘특공대원이면 다 일본인이고, 만약에 조선인 가미카제가 있다면 그거는 아마 친일파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시작한 직후에도 ‘왜 내가 친일파를 조사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서 뭔가 현지교육을 갔다 와서 느낀 점이라기보다는 조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어요.

뭔가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인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지만 확산했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은데 … 그러면 왜 확산해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네요. ‘역사에 대해서 오히려 무지에서 오는 그런 분쟁,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확산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걸 제가 확산을 시킨 건 아니지만, 이전에 ‘근대 일본의 모습’이라는 수업을 들을 때 거기서 근대 일본의 인물들을 이렇게 짝 배웠는데 뭔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인물이 무엇을 했다’고 정리하기보다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에 집중하



면서 발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역사를 공부하면서 인문학은 절대 놓고 갈 수 없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박철웅:** 그렇다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접근하셨던 걸까요? 어떠한 생각이 있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왜 그 선택까지 가게 됐는지 본인이 느낀 바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상민:** ‘왜 그 선택을 하게 됐을까’... 일단 저는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라는 책을 읽고, 한림일본학 총서 중에 『대일본제국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서 그런 것도 보면서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이 어떻게, 조선인이 어떻게 해서 가미카제 특공대에 지원하게 됐는가에 대해 봤는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제 아마 박동훈 특공대원, 나이가 가장 어렸던 그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또 자신이 지금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조선인이지만 일본 군인이니까 그 책임을 다해내기 위해서 출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 그냥 좀 저마다 사정이 다 달라서 군이 한꺼번에 통쳐서 ‘왜 출격했다’, ‘특공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박철웅:** 확실히 저마다 사정이 확실히 다 있기 때문에 ... 저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전 조사 때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현지교육에 갔을 때는 그냥 천황을 위해서라는, 일제 당시 사회 현상에 광기에 감화되어 출격한 그런 모습도 굉장히 볼 수 있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민 님과는 다른 의미로 현지조사하면서 되게 느낀 점이 확장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현주 연구보조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현주:** 아까 했던 말도 그렇고, 이번 현지교육이 제가 이제 배웠던 것들을 남한테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 언니도 그렇고 아마 다른 사람도 그렇고, 역사나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미카제 특공대와 관련해서도 현지인이었던 우메카나 아오이도 이런 문제를 잘 몰랐다고 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직접 그 특공이 일어났던 장소에 가가지고 직접 설명도 듣고, 이런 걸 직접 탐사를 하게 되면서 이거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않았나.’ 그리고 이에 좀 더 나아가서 ‘전쟁이나 나라 간의 국제적 갈등이라든가 그런 걸 좀 더 해결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철용:**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절대적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더 많이 탐구하면서 되게 가벼운 이슈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이런 국제 문제나 국가 갈등을 완화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코멘트라도 남겨주실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다면 제가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아까 혜진 님이나

상민 님 의견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워크숍이랑 현지교육 가기 전에 특공대원들이랑 일제강점기에 남아서 공직 공무원 했던 사람들은 모두 친일 성향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 제가 평화기념관에서 소장님께 여쭙봤어요. 그랬더니 그들 중에는 생계를 위해서 공직에 남아 있었던 시민들도 있지 않겠냐는 답변을 받고 좀 생각을 많이 해 보고 있었는데, 이번(24년 1학기)에 ‘문예 독해’라는 수업에서도 마지막 수업에서 관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기득권에 남아서 일하고 있지만 불합리함, 괴로움 속에서 조국의 내일이라는 희망과 갈망을 품으면서 참고 견뎌낸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그때 여쭙봤던 걸 수업에서도 들으니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친일파로 확신하고 있었는데 ‘친일파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 좀 회의적인 시선을 갖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조금, 10분 정도 남았는데 좌담회를 마치기 전에 오늘 이야기를 들어 주신 소장님 의견을 한번, 소감을 듣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서정완 소장님:** 앞서 철웅이가 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면 『카이문다케開闢岳』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 문예 독해 교재 맨 마지막에 제목이 나와. 그게 이제 동생이 특공대로 간 거야. 그래서 동생 보고 일본을 위해서 왜 죽냐, 도망가라고 했을 때 동생이 나는 그냥 가겠다고. 왜냐하면 도망가면 이제 일본 애들이 조선인이 비겁한 놈들이라고 할 거다, 조선인들의 명예를 위해서 나는 이대로 가야겠다고 하는 유명한 대목이 있어. 그런 식의 단편적인, 특공대를 간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많이 전해지는 건데, 현지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 특공을 뭐 당연히 칭

송하기 위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 우리 사람, 인류의 삶이 반영된 역사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잖아. 복잡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직접 조사를 하고 뭘지 모르고 현지교육을 가면 안 되니까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의문점이든 선입견이든 가지고 가서 보고 느끼고 판단을 해라. 판단한 결과가 가미카제를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물을 보고 대하고 하면은 생각이 넓어지지 않을까. ... 녹음기처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주위들은 거에 대해서 '내가 봤더니 이러더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재미있는 이야기거든.

그리고 친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우리가 당한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조선인 특공대원 중에는 친일도 있겠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친일이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원래 국가나 민족을 버리고 일본이나 총독에 협력하는 자들을 이제 친일이라고 하잖아. 출세를 하거나 재물을 얻든 뭔가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특공에 나가면 죽는데 친일이라고 하는 그런 재물을 얻거나 그런 것만 가지고, 특공을 선택할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재물을 넣고 권력을 얻어도 살아남아야 해 먹지. 물론 친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단순하게 나의 권력이나 재산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하는 거랑은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를 곧 죽음이라고 하는 등식으로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을 건데 왜 가기 전 상태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아

주 하나의 생각밖에 못 하고, 하나밖에 못 볼까? ... 뭐 ‘현지조사에 간 것 자체가 친일이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사정이 어쨌든 간에 특공대로 가가지고 출격하는 것 자체가 친일파적 행위가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고 봐. ... ‘친일해서 뭐 하게’라는 생각도 들어보면 그렇잖아. 그럴 수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 아주 단락적인 사고가, 바라보는 관점에 목매어 있구나(라는 거지).

내가 늘 말하는 직접 체험, 직접 경험, 직접 개인 체험이 아니더라도 직접 체험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사람의 생각을 넓혀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인문학이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역사는 그렇게 주입하는 게 아니고, 방법론을 가르쳐주고 각자 알아서 관심이 있는 시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보게 하는 게 역사 교육이지...

**박철웅:**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확실히 현지교육을 통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보고 관찰하고, 느낌으로써 더 사고가 확장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단편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고, 지금에 이르러서야 현지교육을 통해 되게 다양한 생각을,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양한 생각을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되게 유익한 경험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월 24일 좌담회 <현지교육을 다녀와서>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 일본 제국주의적 야망, 만주사변

- 서희정. “21세기 새로운 동양학의 정립 가능성-‘동양(東洋)’, ‘동방(東方)’, ‘동아(東亞)’ 개념분석을 통해-.” 퇴계학논집 no. 27(2020): 129-164.
- 조관자. “일본 우익의 국가주의와 아시아주의 연구: 기타 잇키의 국가개조론과 이시와라 간지의 쇼와유신론.” 한림일본학 no. 30(2017): 139-171.
- 福澤諭吉. 『文明論之概説』.

### 첫 가미카제 작전 시작, 레이테만 해전

- 버나드 아일랜드, 레이테만 1944, 김홍래, 플래닛미디어(2008).

### 제국 일본의 광기, 오키나와 전투

- 정수미. “1945년 오키나와전투에 관한 연구.” 국내 석사학위논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9, 서울.

### 일본에 떨어진 두 발의 원자폭탄

- “카이로 선언.” 위키백과. 2024년 6월 10일 접속.  
[https://ko.wikipedia.org/wiki/%EC%B9%B4%EC%9D%B4%EB%A1%9C\\_%EC%84%A0%EC%96%B8](https://ko.wikipedia.org/wiki/%EC%B9%B4%EC%9D%B4%EB%A1%9C_%EC%84%A0%EC%96%B8).
- U.S. Department of Energy Office of History & Heritage Resources. “The Atomic Bombing of Hiroshima, August 6, 1945.” The Manhattan Project: An Interactive History. June 24th, 2024.  
<https://www.osti.gov/opennet/manhattan-project-history/Events/1945/hiroshima.htm>.

- Alex Wellerstein. "Counting the dead at Hiroshima and Nagasaki."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August 4th, 2020.  
<https://thebulletin.org/2020/08/counting-the-dead-at-hiroshima-and-nagasaki/>.
-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Britannica. accessed June 10th, 2024.  
<https://www.britannica.com/event/atomic-bombings-of-Hiroshima-and-Nagasaki>.
-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Wikipedia. accessed June 10th, 2024.  
[https://en.wikipedia.org/wiki/Atomic\\_bombings\\_of\\_Hiroshima\\_and\\_Nagasaki](https://en.wikipedia.org/wiki/Atomic_bombings_of_Hiroshima_and_Nagasaki).

### 일본의 항복과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 "自民 萩生田政調会長らが「終戦の日」に靖国神社を参拝." NHK NEWSWEB. 2023년 8월 15일.  
<https://www3.nhk.or.jp/news/html/20230815/k10014163401000.html>.

### '경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조선인 특공대원의 '특공사'

- NHKスペシャル：遺された声～録音盤が語る太平洋戦争. NHK, 2004-08-14(テレビ番組).
- 「매일신보」, 1945년 6월 10일 2면.
- 「매일신보」, 1945년 5월 9일 2면.
- "大東亜聖戦大碑." 위키피디아. 2023년 11월 29일 접속. <https://ja.wikipedia.org/wiki/大東亜聖戦大碑>
- "大本營." 위키피디아. 2023년 11월 29일 접속. <https://ja.wikipedia.org/wiki/大本營>
- 길윤형.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 경기: 서해문집, 2012.
- 배영미, 野木香里. "日帝末期 朝鮮人 特攻隊員の '志願' 과 '特攻死'." 韓日民族問題研究 no. 13(2007).
- 배영미. "조선인 특공대원의 실태와 한일 양국의 인식: 그 현황과 전망에 대해." 한국학연구 no. 28(2012).
- 이형식. "태평양전쟁시기 제국일본의 군신만들기-『매일신보』의 조선인특공대(神鷲) 보도를 중심으로-." 日本學研究 37(2012): 204.
- 박균섭. "조선의 청년·학도와 가미카제특공대-구로다 후쿠미의 탁경현을 기념하는 방식-." 일본근대학연구 57(2017).
- 少飛會歴史編纂委員会. 陸軍少年飛行兵史. 少飛會, 1983.
- 宮田節子.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 未来社, 1985.

- 金子敏夫. 神風特攻の記録: 戦史の空白を埋める體当たり攻撃の真実. 光人社, 2005.
- 大貫恵美子. 学徒兵の精神誌—「与えられた死」と「生」の探求. 岩波書店, 2006.
- 万世特攻慰靈碑奉賛会. よろずよに語り継がん—万世陸軍航空基地概要, 2008.
- 権学俊. 「植民地朝鮮における飛行機表象と朝鮮総督府の航空政策 (下)」 『機表象と朝鮮総督府』 58(2022).

### 특공사, 산화(散華)인가?

- 이영진. “산화(散華)와 ‘난사(難死)’: 전후 일본의 특공의 기억과 재현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45권 no. 3(2012): 63-104.
- KBS 역사스페셜. 1. 101. “조선인 가미카제 탁경현의 아리랑.” 공영철. 2012. 3. 15. KBS.
- 박군섭. “조선의 청년·학도와 가미카제특공대-구로다 후쿠미의 탁경현을 기념하는 방식-.” 일본근대학연구 57(2017): 227-250.
- 일본전몰학생기념회. 『들여라 와다쓰미의 소리를』. 한승동 역. 경기: 서커스출판상회, 2018.
- 권혁태. “‘옥쇄’와 ‘난사(難死)’ 사이에서-일본의 ‘전후’와 오다 마코토-.” 개념과 소통 30(2022): 49-94.

### ‘특공위령’에 대한 인식

- 이영진. “조선인 특공대원이라는 물음-위령과 기억을 중심으로-”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no. 7(2011): 185-205.
- 배영미, 노기 카오리. “日帝末期 朝鮮人 特攻隊員の ‘志願’과 ‘特攻死’.” 韓日民族問題研究 no.13(2007): 289-326.
- 이영진. “광신과 애국 사이: 전후 일본 영화에 비춰진 특공의 표상.” 일본연구논총 no. 40(2014): 39-72.
- 배영미. “조선인 특공대원의 실태와 한일 양국의 인식: 그 현황과 전망에 대해.” 한국학연구 no. 28(2012): 53-79.
- 박군섭. “조선의 청년·학도와 가미카제특공대-구로다 후쿠미의 탁경현을 기념하는 방식-.” 일본근대학연구 no.57 (2017): 227-250.
- 홍석준. “전후 일본의 특공위령과 애도의 정치학에 관한 인류학적 고찰: 이영진, 『죽음과 내셔널리즘: 전후 일본의 특공위령과 애도의 정치학』(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을 읽고.” 아시아리뷰 9, no. 1(2019): 361-372.
- 구로다 후쿠미.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조양욱 역. 타임라인, 2018.
- 윤성호. “가미카제 위령비” 앞에 선 일본 여배우의 눈물, 경남 사천에서 예정된 위령비 제막식 무산.” 오마이뉴스. 2010년 8월 5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97701](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97701)



- 배국인. “인간 폭탄” 출격지지가 평화수호 성지로 둔갑.” 동아일보. 2013년 9월 5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30905/57467211/1>
- 이영진. “근대성과 유명.” 아세아연구 59, no. 3(2016): 200-238.

### 조선인 가미카제 특공대원 탁경현, 그와 위령비를 쫓아서

- 구로다 후쿠미.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조양욱 역. 타임라인, 2018.
- 박균섭. “조선의 청년·학도와 가미카제특공대-구로다 후쿠미의 탁경현을 기념하는 방식-.” 일본근대학연구 57(2017): 227-250.

### 일본에서의 평화교육과 왜곡되는 전쟁 역사

- 박균섭. “神風特攻隊と知覽特攻平和會館の讀法—日本の戦争と平和に對する誤った教え—.” 일본근대학연구 no. 49(2015): 293-310.
- 木村正人. “「知覽からの手紙」(特攻隊員の遺書)は世界に伝わるか.” BLOGOS. 2014년 2월 27일.
- 남기정.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역사비평(2014): 94-134.
- “(社説) 戦後79年に問う 戦争の犠牲にどう向き合うか.” 朝日新聞DIGITAL. 2024년 8월 16일.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6011901.html>
- 신형철. “변하지 않는 일본… 야스쿠니 집단 참배에 외교부 “깊은 실망”.” 한겨레. 2023년 10월 18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112566.html>.
-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 국가기록원, 2006년 12월 1일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859&pageFlag=C&sitePage=1-2-2>
- 윤정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日本 歴史教科書 歪曲事件).”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4년 8월 18일 접속.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3858>
- 이기용. “아베의 역사수정주의와 새 한일 관계의 정립모색-일본 역사인식의 본질과 해법으로서의 독일 역사인식-.” 日本思想 no. 34(2018): 209-244.
- pmg 지식엔진연구소. “일본 헌법 제9조.” 네이버 지식백과. 2017년 12월 28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40322&cid=43667&categoryId=43667>

### 가미카제 특공대와 만화(진격의 거인) 속 유사성과 딜레마

- “땅울림.” 나무위키. 2024년 8월 11일 접속. <https://namu.wiki/w/%EB%95%85%EC%9A%B8%EB%A6%BC>

## 특공대의 이미지와 그 활용에 대한 고찰

- “資料名遺書·手紙類(掛軸).” 知覽特攻平和會館홈페이지. 2024년 3월 29일 접속.  
[https://www.chiran-tokkou.jp/digital\\_archive/25](https://www.chiran-tokkou.jp/digital_archive/25)
- 이형식. “태평양전쟁시기 제국일본의 군신만들기-『매일신보』의 조선인특공대(神鷲) 보도를 중심으로-.” 日本學研究 37(2012): 193-217.
-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敵輸船 五擊碎-神風特攻隊猛活躍-레이테”(1944).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5226891&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5226891&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
-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광고, 神風特別攻撃隊の精神”(1945).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130749697&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130749697&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
-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神風攻撃隊 奮戰映畫化”(1944).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5225407&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5225407&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
- 이영진. “광신과 애국 사이: 전후 일본 영화에 비춰진 특공의 표상.” 일본연구논총 no. 40호(2014): 39-72.
- “고이즈미, “힘들 때 가미가제 생각.” 연합뉴스. 2001년 5월 22일. <https://www.yna.co.kr/view/AKR20010522000300073>.
- “2. 역사문제: 야스쿠니 신사 문제.” 동북아역사넷. 2024년 8월 23일 접속.  
[http://contents.nahf.or.kr/item/level.do?levelId=eadeah.d\\_0006\\_0050\\_0020\\_0020](http://contents.nahf.or.kr/item/level.do?levelId=eadeah.d_0006_0050_0020_0020)

## 가미카제가 이런 식으로 소비되어도 되는 걸까

- Walter Topp. “The Kamikaze War – Inside the U.S. Navy’s Race to Defeat Japan’s Suicide Pilots.” Military History Now. 12 October, 2021. <https://militaryhistorynow.com/2021/10/12/the-kamikaze-war-inside-the-u-s-navys-race-to-defeat-japans-suicide-pilots/>
- Trent Hone. “Countering the Kamikaze.” U.S. Naval Institute. October 2020. <https://www.usni.org/magazines/naval-history-magazine/2020/october/countering-kamikaze>

## 특공의 위령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하여

-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Research and Analysis Branch. “Japan’s Secret Weapon: Suicide.” July 20, 1945.

[https://www.cia.gov/readingroom/docs/DOC\\_0000709802.pdf](https://www.cia.gov/readingroom/docs/DOC_0000709802.pdf).

### 일본에서 본 '특공(가미카제)'과 '평화' 그 이질적인 조합 속에서

- “특공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4년 5월 11일 접속.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D%8A%B9%EA%B3%B5%EB%8C%80>,
- “평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4년 5월 11일 접속.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D%8F%89%ED%99%94>.

### 특공대원의 죽음을 기억해 줄 사람은 누구인가

- 이형식. “태평양전쟁시기 제국일본의 군신만들기-『매일신보』의 조선인특공대(神鷲) 보도를 중심으로-.” *日本學研究* 37(2012): 193-217.
- “震電.” 위키피디아. 2024년 3월 27일 접속. <https://ja.wikipedia.org/wiki/震電>
- “航空機.” 위키피디아. 2024년 3월 27일 접속. [https://ja.wikipedia.org/wiki/B-29\\_\(%E8%88%AA%E7%A9%BA%E6%A9%9F\)](https://ja.wikipedia.org/wiki/B-29_(%E8%88%AA%E7%A9%BA%E6%A9%9F))
- 후루하타 야스오(降旗康男). 〈호타루(The Firefly, ホタル)〉. 브에나비스타 인터내셔널 코리아, 2001. 1시간 54분.
- 일본전문학생기념회. 『들어라 와다쓰미의 소리를』. 한승동 역. 파주: 서커스출판상회, 2018. 10-11.
- 森本忠夫. 特攻 外道の統率と人間の条件. 東京:文藝春秋, 1992. 130-133.
- 鹿児島読売テレビ. 「幻の特攻基地」万世飛行場」語り部のバトン、「よろずよ」に込める永遠の思い.” Yahoo JAPAN 未来に残す 戦争の記憶. 2024년 3월 27일 접속. <https://wararchive.yahoo.co.jp/wararchive/kyt3.html>.
- 一般財団法人 日本航空協会. “重要航空遺産零式水上偵察機.” 航空遺産継承基金: 航空の歴史を後世に残そう. 2024년 3월 27일 접속. [https://www.aero.or.jp/isan/heritage/aviation-heritage-type\\_0\\_reconnaissance\\_seaplane.htm](https://www.aero.or.jp/isan/heritage/aviation-heritage-type_0_reconnaissance_seaplane.htm)
- 이영진. “산화(散華)와 '난사(難死)': 전후 일본의 특공의 기억과 재현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45 no. 3(2012): 63-104

### 평화기념관의 그늘과 평화의 길-기해와 피해의 기억

- “대본영.” 위키피디아. 2024년 4월 17일 접속.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B%B3%B8%EC%98%81>
- 길영형.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 경기: 서해문집, 2012.
- 전순선, 김진기. “오다마코토(小田実)의 사상과 반전평화운동- '난사(難死)'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86(2020): 397-413.

- 박규태. “감정의 야스쿠니: 야스쿠니 가요를 중심으로.” 日本研究 24(2015): 31-60
- 김용철. “야스쿠니(靖):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의 정신적 허브.” 日本學報 114(2018): 173-192.
- 이영진. “『조선인 특공대원』이라는 물음-위령과 기억을 중심으로-.”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7(2011): 185-205.

### 일본이 말하고자 하는 ‘평화’란 무엇일까?

- 지란특공평화회관 홈페이지. “パイロット 養成所の先生である特攻隊員へ、教え子たちの 寄せ書き.”  
[https://www.chiran-tokkou.jp/museum\\_kids.html](https://www.chiran-tokkou.jp/museum_kids.html)
- 이형식. “태평양전쟁시기 제국일본의 군신만들기-『매일신보』의 조선인특공대(神鷲) 보도를 중심으로-.” 日本學研究 37(2012): 193.

### 한국과 일본에서 바라본 가미카제

- 길윤형.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 경기: 서해문집, 2012.
- 구로다 후쿠미.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조양옥 역. 인천: 타임라인, 2018.
- 이영진. “산화(散華)와 ‘난사(難死)’: 전후 일본의 특공의 기억과 재현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45 no. 3(2012): 63-104.

### 다각적인 시점에서 바라본 특공대, 그리고 평화란 무엇인가?

- “沈壽官家の歴史” 沈壽官窯. 2024년 6월 20일 접속. <http://www.chin-jukan.co.jp/juddTest/history.html>

### 한국 학생들과 교류로 배운 점

- 김예진. “日정부, ‘지자체 반대’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공사 오늘 착수.” 공감언론 뉴시스. 2024년 1월 10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110\\_0002587421](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110_0002587421)
- “일본 방위성, 오키나와 기지 이전 공사 9개월 만에 재개.” VOA 뉴스. 2016년 12월 28일.  
<https://www.voakorea.com/a/3652861.html>

###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조선인 건축가

- 안창모. “일제하 경성고등공업학교와 건축교육.”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14, no. 6(1998): 35-46.
- 김소연. 『경성의 건축가들』. 루아크, 2017.
- 김정동. “박인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3년 11월 28일 접속. <https://>

- encykorea.aks.ac.kr/Article/E0021075
- 김정동. “김세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3년 11월 28일 접속.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9513>
  - 임종국. “조선방공협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3년 11월 28일 접속.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2048>
  - 임종태. “과학조선.”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23년 11월 28일 접속.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4640>
  - “국민총력조선연맹.”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23년 11월 28일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5235&cid=46623&categoryId=46623>
  - 김정수. 「여명기의 한국건축계」. 『대한건축학회지』 25권 100호, 1981, 11쪽.
  - 한경아. “서울 최초의 근대 백화점, 미쓰쿠시 백화점 경성지점.” 지역N문화. <https://ncms.nculture.org/legacy/story/7134>
  - 최리애. “식민지시기 백화점의 등장과 사회적 위상-미쓰쿠시백화점을 중심으로-.” 계간 지역사회 2017, no. 77(2017): 57-61
  -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建築術語 우리말로”(1946).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63248923&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63248923&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
  - 서울역사박물관. 화신백화점\_사라진 종로의 랜드마크. 2021.
  - 서울역사박물관. 각정동직업별호구조서. 2017.
  - 김정동. “김세연(金世演)과 그의 건축활동에 대한 소고/제4분과: 건축 이론 및 근현대 건축.”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 no. 11(2007): 3-11

### 가고시마에서 만난 특강

- “門之浦伝来絵幕.” 가고しま文化財事典. 2024년 8월 21일 접속. <https://k-bunkazai-school.com/cultural/a-i-10042/>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 현지교육 ④+포문동 ⑦

# 규슈에서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존을 생각하다

2024년 2월 19일, 일본학연구소 연구보조원이기도 한 한림대학교 대학생 10명이 규슈를 일주하는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 현지교육>을 다녀왔다. 세계사 또는 동아시아사로서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역사적으로 각각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치아라이평화기념관, 반세특공평화기념관, 지란특공평화회관을 중심으로 구마모토성과 심수관요를 찾았다.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 찾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하나씩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역사 알기를 실천하는 <대학생을 위한 포문동 현지교육> 여정이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ISBN 979-11-90612-21-0(05060)

비매품